



2018 강원학 연구보고 5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文科) 급제자 분석

A Study on Successful Applicants of
Mungwa from Gangwon Province in
Joseon Dynasty



이상무

발간사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학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강원학 관련 연구 논문 공모를 실시하여 강원학 연구의 기초 토대 연구 주제로의 적합성을 고려한 4편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한편인 「조선 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급제자 분석」은 강원지역 출신 조선시대 과거제도 문과(文科) 급제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여 강원학 연구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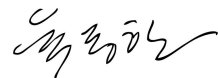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국가 인재를 등용하는 가장 중요한 경로로 그 중에서도 문과 합격은 고위직 관료로 등용되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비중이 큰 시험이었습니다. 과거시험의 합격자를 얼마나 배출하였는지는 그 지역의 교육 수준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의 배출규모나 비율, 합격 등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강원도 교육과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특정 인물에 치중되어 있었던 강원도 인물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교육제도, 교육정책, 교육사상 연구에 치중되었던 지역 교육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집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상무 한남대학교 교수님과 심의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전문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년 12월

강원연구원장



목차

요약문

I. 연구의 필요성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검토	4
3. 연구 대상	7
4. 연구자료	9
5. 기대효과	10
II. 과거제도 개요	11
1. 시험 시기별 구분	11
2. 시험 과목별 구분	15
III. 강원지역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의 분포 및 특징	19
1. 기본사항	19
1.1 강원지역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수	19
1.2 시험에 합격한 실제 인원수	23
2. 지역별 합격자 분포	25
3. 성관별 분포	27
3.1 문과 합격자의 성관별 분포	27
3.2 문과, 생원시, 진사시의 성관별 분포	39

4. 시대별 분포	41
5. 전력별 분포	46
6. 시험별 분포	48
7. 기타 합격자 관련 통계	55
8.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의 특징	59
IV.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급제자들의 합격 등급과 관직 진출	61
1.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급제 등급	61
2.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최고품계	64
V.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 중 주목되는 인물들	67
1.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들	67
2.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들	70
3. 소과 합격으로 끝났지만 3품 이상 관직에 오른 사람들	72
4. 장원급제자 출신자들의 이력	74
5. 기타 특이한 인물들	76
5.1 강원지역 출신 유일의 문신중시(文臣重試) 합격자 장의국(張義國)	76
5.2 이름을 고쳐서 합격된 후 발각되어 처벌받은 이만강(李萬江)	76
VI. 맺음말	79
1. 요약	79
2. 제언	83
참고문헌	85
Abstract	87
부록 : 강원도 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들의 주요 관직 기록	93

표목차

<표 I-1> 강원 감영의 관할 구역 7

<표 II-1> 식년시 문과 시험과목 15

<표 II-2> 소과 시험과목 17

<표 III-1> 강원지역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연인원 및 합격자 비율 20

<표 III-2> 조선시대 시기별 강원도 인구 수 및 비율 21

<표 III-3> 조선시대 지역 별 인구 비율 및 문과 합격자 비율 22

<표 III-4> 강원지역 출신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 시험별 인원 수 24

<표 III-5> 강원도내 지역별 문과 및 생원, 진사시 합격자 분포(연인원) 25

<표 III-6> 강원지역에서 5명 이상 문과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 27

<표 III-7> 간성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28

<표 III-8> 강릉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29

<표 III-9> 고성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0

<표 III-10> 금성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0

<표 III-11> 김화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1

<표 III-12> 삼척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1

<표 III-13> 양구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1

<표 III-14> 양양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2

<표 III-15> 영월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2

<표 III-16> 울진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3

<표 III-17> 원주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4

<표 III-18> 이천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5

<표 III-19> 철원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5

<표 III-20> 춘천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6

<표 III-21> 평강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7

<표 III-22> 평해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7

<표 III-23> 흥천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8
<표 III-24> 횡성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38
<표 III-25> 강원지역 내에서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를 20명 이상 배출한 성관 (실인원)	39
<표 III-26> 조선시대 강원지역 시기별 문과 합격자 분포	41
<표 III-27> 조선시대 강원지역 시기별 생원시 합격자 분포	42
<표 III-28> 조선시대 강원지역 시기별 진사시 합격자 분포	43
<표 III-29> 조선시대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의 전력별 분포	46
<표 III-30>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 중 생원, 진사시 합격자 비율	48
<표 III-31> 강원지역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중 문과 합격자 비율	48
<표 III-32>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의 문과 시험별 합격자 분포	49
<표 III-33> 강원지역 출신 식년시, 증광시 문과 합격자 평균 등수	51
<표 III-34> 강원지역 생원시 합격자의 소과 시험별 합격자 분포	52
<표 III-35> 강원지역 진사시 합격자의 소과 시험별 합격자 분포	52
<표 III-36>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생원시 시험별 합격 등수	53
<표 III-37>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진사시 시험별 합격 등수	54
<표 III-38> 강원지역 합격자 평균 합격 연령	55
<표 III-39> 생원시 합격 후 문과에 합격할 때까지 걸린 기간	55
<표 III-40> 진사시 합격 후 문과에 합격할 때까지 걸린 기간	57
<표 III-41> 생원,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이 소과 최초 합격 후 문과 합격까지 걸린 기간	58
<표 IV-1>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의 합격 등급	61
<표 IV-2>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의 합격 시험별 등급	62
<표 IV-3> 강원지역 출신 문과 급제자들의 최고 품계	64
<표 IV-4> 문과 합격 후 최고 품계까지 오르는 데에 걸리는 기간	65
<표 V-1> 강원지역 출신 중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	67
<표 V-2> 강원지역 출신 중 문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으나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	70

<표 V-3> 소과에만 합격하였으나 3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된 자 72
<표 V-4> 강원지역 출신 문과 장원 급제자 74
<표 V-5> 강원지역 출신 소과 장원 급제자 75

요 약 문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급제자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문과 급제자뿐만 아니라 소과(생원시, 진사시) 합격자들도 함께 확인하여 조선시대 강원지역의 과거와 교육에 대해 여러 사실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 명단인 『국조문과방목』과 소과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에 거주지가 강원도로 표기되어 있는 자들을 분석하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관찬자료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력을 추적하였다.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중 중복 합격자를 포함한 연인원은 모두 1873명이었다. 이 중에서 문과 229명, 생원시 856명, 진사시 78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229명은 조선시대 문과 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출신지역이 확인된 10,801명 중에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 강원도 인구가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인구 비율 대비 합격자 비율을 따지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8도 중에 5위를 차지해서 그리 낮은 편이라 보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중 중복 합격자를 제외한 실인원은 모두 1,735명이었다. 이 중 문과에만 급제한 사람이 118명, 문과와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은 61명, 문과와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은 39명,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11명이었다. 또한 생원시에만 합격한 사람은 768명, 진사시에만 합격한 사람이 722명, 생원시와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16명이었다.

강원도내 지역별로 확인해보면 모두 18개 지역에서 1명 이상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 중 원주가 84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여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뒤를 강릉 55명, 춘천 30명, 횡성 13명, 양양 11명 순이었으며, 다른 지역은 한 자리 수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원주, 강릉, 춘천 이 세 지역이 229명 중 169명을 배출하여 전체 합격자의 73.8%를 차지하였다. 소과의 경우도 원주, 강릉, 춘천 순으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원주는 생원시 297명, 진사시 29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강릉은 생원시 159명, 진사시 143명, 춘천은 생원시 110명, 진사시 114명을 배

출하였다. 흡곡의 경우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단 한 명도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에서는 모두 85개의 성관에서 229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이 중 강릉 김씨가 17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안동 권씨, 초계 정씨, 강릉 최씨가 각각 12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5명 이상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모두 16개 성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과, 생원시, 진사시를 모두 합치면 모두 190개 성관에서 실인원 1,73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문과, 생원시, 진사시를 합쳐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은 모두 23개 성관이었다.

강원지역 과거시험 합격자의 시대별 분포를 확인해보면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문과의 경우 15세기에 5명, 16세기에 22명이 확인되었으나, 17세기에 60명, 18세기에 62명, 19세기에 80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생원시의 경우 15세기까지 28명, 16세기 85명, 17세기 200명, 18세기 191명, 19세기 348명으로 증가하였다. 진사시는 15세기까지 5명, 16세기 58명, 17세기 141명, 18세기 186명, 19세기 392명으로 나타났다.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하게 합격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문과 합격자의 전력을 살펴보면 229명 중에 103명이 유학, 52명이 생원, 34명이 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전현직 관료로 표기된 것이 40명이었다. 또한 문과 합격자 229명 중에 문과에만 합격한 사람이 118명, 생원시에 합격 후에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 61명, 진사시에 합격한 후에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 39명, 생원시와 진사시를 모두 합격한 후에 문과에 합격한 사람은 11명으로 나타났다. 문과 합격자 229명의 합격 시험별 분포를 확인해보면 229명 중에 식년시가 100명, 증광시가 57명, 별시가 26명, 정시가 35명, 알성시가 10명, 현량과가 1명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합격자들의 문과 합격시 평균 등수는 식년시가 19.7등, 증광시가 23.4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년시가 평균적으로 38명 정도를 선발하므로 이들의 평균 등수는 38.5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년시 합격자들의 평균 등수는 전국 평균에 거의 근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증광시의 경우에도 평균 등수보다 1등 정도는 낮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합격 성적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생원시는 856명의 합격자 중에 식년시 합격자가 580명 증광시 합격자가 276명이었다. 진사시의 경우 전체 788명의 합격자 중에 식년시 합격자가 497명, 증광시 합격자

가 291명이었다.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의 평균 등수는 생원시가 60.5등, 진사시가 61.7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험의 평균 등수는 59.5등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합격 등수는 1.2등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저히 낮은 점수라고는 보기 어렵다.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의 합격 당시 평균 연령은 37.2세였으며, 생원시는 35.6세, 진사시는 34.1세였다. 또한 생원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합격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0.9년이었으며,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합격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9년이였다. 또한 생원시,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문과에 합격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6년이였다.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들의 배출 규모나 비율, 합격 등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조선시대 당시 강원지역의 수준은 조선 전체의 교육 수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강원지역의 교육 수준은 조선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에 비슷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생원시, 진사시 합격 비율이나 식년시와 식년시가 아닌 시험의 합격 비율 등은 기존의 지방 유생들에 대한 연구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들의 급제 등급은 갑과 1위(장원급제)가 11명, 장원을 제외한 갑과 9명, 을과 32명, 병과 176명, 정과 1명으로 나타났다. 식년시의 경우 갑과 10%, 을과 15%, 병과 75%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년시의 경우 합격자 33명의 분포가 갑과 9.1%(3명), 을과 21.2%(7명), 병과 69.7%(23명)으로 구성되는데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갑과와 병과의 비율이 높고, 을과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출신 중에서 정1품까지 승진한 사례는 없었으며,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 중에 최고품계는 종1품 3명, 정2품 11명, 종2품 9명, 정3품 55명, 종3품 1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 중에 최고 품계가 확인되는 211명 중 44.5%는 3품까지는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1품까지 승진하는 사람들은 종1품까지 도달하는 데에 평균 32.3년이 소요되었으며, 정2품까지 승진하는 사람들은 종2품까지 승진하는 데에 21.5년, 종2품까지 승진하는 사람들은 종2품까지 승진하는 데에 평균 30.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합격자들 중에서 주목되는 인물들에 대한 이력도 확인하였다.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11명과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한 16명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았다. 또한 소과 합격으로 끝났지만 3품 이상 관직에 오른 3명과 문과 장원급제자 출신 11명의 이력도 확인해보았으며, 기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도 함께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이므로 본 연구만으로는 의미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둘째, 조선시대 강원지역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조선시대 강원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역사를 정리하는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 넷째, 도 단위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의 교육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밝히고, 본 연구 결과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조선시대 당시 강원지역의 교육과 인물에 관한 연구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연구의 필요성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강원지역 출신의 조선시대 과거제도 문과(文科) 급제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여, 강원학 연구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학 분야의 하위 분과인 교육사 분야에서 '과거제도'는 교육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시대에 과거제도는 국가의 인재를 등용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주된 경로였으며, 그 중에서도 문과 합격은 고위직 관료로 등용되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문과는 무과, 잡과에 비해서 비중이 훨씬 큰 시험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들이나 재상들은 거의 대부분 문과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원지역 출신 중에서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과 급제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선비들은 문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도 쉽게 비견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 문과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했으며,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구성원들의 여러 교육적 노력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과 합격자를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학문적 분위기가 융성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급제자들이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인지를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지 시험만 잘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선시대 교육 및 과거제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과거시험 합격자들은 그 당시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과거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단순히 그들이 양반이었기 때문으로 풀이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아무리 지체가 높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었고, 평민(정확히는 천인이 아닌 남자라면)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합격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 당시의 과거제도였다. 그러므로 과거시험의 합격자를 얼마나 배출하였는지는 그 지역의 교육 수준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시험에 합격하여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초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과거시험의 합격자들은 최소한의 검증은 거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향교나 서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 교육기관에서는 선악적(善惡籍)이라고 하여 잘한 일과 잘못된 일을 적어주는 장부가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크게 잘못하여 악적(惡籍)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적어도 관리가 되기 위한 덕성이 충분하지 않은 자들이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인성이 되지 않는 자들이 과거시험에 응시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 둔 것이었다. 최소한의 인성과 태도는 검증된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한 자들이라면 충분히 이들에 대해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무리 이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았던 그 당시 유럽이나 일본 사회의 관리들보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합격자들이 못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시험의 합격이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훌륭하다고 볼 근거도 빈약하다. 강원지역이 낳은 최대의 인물인 이이(李珥)의 경우에도 1564년에 생원시, 진사시, 문과에 동시에 급제한 인물이었다. 이이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 중에 한 명인 이황(李滉)도 1528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34년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또한 이이가 선조의 명을 받아서 성균관 학령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인 『학교모범』에서도 과거시험에 응시를 위한 공부를 하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다.

즉,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만 하는 공부는 지양해야 하지만,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좋은 뜻을 갖고 임하는 과거시험 준비는 얼마든지 장려해야 하는 공부였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연구 그 당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최소한의 검증을 거친 자들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강원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굴하는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물론 과거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지역에서 조용히 자신이 역할을 다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드러난 사람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되기 않은 상황에서 조용히 숨어서 지낸 인물들을 조사하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문과 이외에도 당시의 교육적, 학문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은 생원·진사시였다. 이들은 문과의 토대가 되는 시험으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생원시 혹은 진사시에 입격한 뒤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따라서 생원시와 진사시 입격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당시 강원지역의 교육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과 이외에도 생원·진사시 입격자들의 경향성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에 대한 분석은 문과 급제자 명단과 인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국조문과방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초적인 연구들은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역사학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은데, 이들이 급제자를 분석할 때의 주된 관심사는 급제자의 출신 배경이나 신분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들은 성관(姓貫) 분석을 통해 급제자들이 어느 가문 사람들이었는지를 확인하거나 전력(前歷) 분석을 통해 이들이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급제자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특정 시험의 합격자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 ‘김량수(1981), 戊申增廣榜目(1848 A.D.)의 分析研究, 논문집 14(1), 청주대학교, pp. 263-283.’에서는 1848년 증광시의 합격자 명단을 분석하였다. 합격자 명단을 통해서 주로 성관과 지역에 관한 정보를 개략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이었다. ‘김창현(2001), 朝鮮初期 科擧及第者의 出身背景: 文·武科 單回榜目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3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79-115.’에서는 문과 6회, 무과 5회 총 201명에 대해서 이들의 전력, 아버지의 지위, 지역별 분포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원 급제자에 대한 분석을 따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최진옥(2001), 朝鮮前期 壯元 及第者의 分析, 학술저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 pp. 130-148.’에서는 성관이 확인된 문과 장원급제자 219명에 대해서 이들의 성관, 지역, 연령, 관직 진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는 특정 시험의 합격자 명단인 단회방목이나, 장원급제자와 같이 전체가 아닌 특정한 사람들만 선별하여 분석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의 범위를 좀 더 넓은 연구도 발견된다. ‘김기주(1986), 朝鮮後期 文科及第者의 社會的 背景分析,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7(2), pp. 235-253.’에서는 영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조선후기의 문과 급제자의 사회적 배경을 확인하였다. 주로 합격자들의 전력(前歷)을 분석하였고, 전력이 문과 합격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다. 무과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양창진(2016), 동양고전연구 64, 동양고전학회, pp. 221-250.’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무과 급제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무과 급제자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과 이를 활용한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문과 급제자 분석과 관련된 총체적인 연구는 총 4권으로 구성된 ‘한영우(2013), 과거; 출세의 사다리, 지식산업사’이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를 전수조사하여 그 중에서 소위 ‘신분이 낮은 급제자’의 명단과 인원, 그리고 출신성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중에 한미한 가문 출신도 다수 합격하였음을 밝혀내었다.

급제자의 신분이나 전력 분석 이외에도 거주지에 대한 분석도 확인할 수 있다. ‘이원명(2004), 문과 급제자 거주지 분석: ‘주요성관’의 『문과방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73, 한국사학회, pp. 673-713.’에서는 문과 급제자 전수를 대상으로 거주지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였다. 거주지가 표시되어 있는 합격자들의 전수를 조사했다는 점에는 의의가 있지만, 각 도별로 전체적인 수치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는 파고들지 못했다.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 관한 연구물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주지역에 관해서는 ‘박노석(2007), 조선시대 전주출신의 문과 급제자 현황, 전북사학 30, 전북사학회, pp. 33-6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지역에 관한 연구는 ‘이규복(2011),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과 급제자 실태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특정 지역의 문과 급제자를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며 본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주나 제주는 당시 기준으로는 도 단위의 행정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연구와는 다루는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강원교육에 대한 연구물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피정만(2003), 강원교육사, 하우’이다. 이 연구물은 강원지역의 교육사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강원지역의 교육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연구물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전체 9장 중에 7개의 장을 개화기 이후의 강원지역 교육을 다루고 있다. 조선시대의 교육을 다루고 있는 장은 ‘제2장 강원도의 전통교육’인데, 여기에서도 향교, 서원, 서당, 교육사상 등을 다루고 있으나 과거시험에 대한 연구를 따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강원교육의 전통을 이해할 때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부분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를 충분히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그 동안 문과 급제자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로서는

성관, 전력, 연령 분석 등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정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연구도 있으나, 이 연구들은 도 단위를 다루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또한 강원교육사를 다루고 있는 연구물에서도 과거시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대폭 보완하여 강원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3.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인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과 『사마방목』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거주지가 강원도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들의 각각의 생애를 추적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주지가 강원도로 표기되어 있는 인물이 분석 대상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이이(李珥)나 허균(許筠)과 같은 경우 강원도가 배출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지만 이들이 거주지는 ‘경(京)’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물론 이들은 강원도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이며, 반드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들의 행적을 밝히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강원도의 교육을 통해 성장하여 나라의 큰 인물이 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발굴하겠다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며, 이이 정도의 인물은 본 연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득이하게 대상자를 문과방목 상에 거주지가 강원도로 표기된 인물로 한정하고자 한다.

강원지역의 기준은 현재의 행정구역이 아닌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강원도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강원도의 행정구역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¹⁾

<표 I-1> 강원 감영의 관할 구역

행정구역	개수	해당 지역
대도호부	1	강릉
목	1	원주
도호부	5	삼척, 양양, 철원, 춘천, 회양
군	7	고성, 간성, 영월, 정선, 통천, 평창, 평해
현	12	금성, 금화(김화), 낭천, 안월, 양구, 울진, 이천, 인제, 평강, 홍천, 횡성, 흡곡

전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분석할 때에는 강원도 지역 출신임이 표기된 인물들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7), 『국역 각사등록 66, 강원도편(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2.

만이 그 대상이 되지만, 개인별 인물 추적을 실시할 때에는 이들 이외에도 몇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부록에 개인별 이력 추적의 대상에는 포함시킬 예정이다. 강원도내 각 시·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중에 3품 이상의 지위에 올랐거나, 그 정도 지위까지는 아니지만 강원도 출신으로 유명하다고 판단되는 이력 추적의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문과 및 생원·진사시 합격자들의 경향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되는 것과 동시에 강원지역 출신 인물들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자료

본 연구는 문과 합격자의 명단인 『문과방목』과 생원·진사시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을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사용하며, 이들 자료의 정보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한국역대인물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이들 자료에서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들의 이력 추적이나, 당시 강원도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의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또한 당시의 과시 및 과거 관련 정책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과시등록(課試謄錄)』이나 『과거등록(科擧謄錄)』의 내용도 함께 확인하여 당시의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 이들에게 미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강원지역의 서원지 혹은 향교지도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이들 자료는 문과 방목에는 강원지역 출신임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강원도에서 출생해서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는 인물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다.

5. 기대효과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강원학연구센터 설립에 맞춰 강원학의 하위 분과인 교육 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현재 강원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강원교육 본연의 모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 측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강원도 인물사 연구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까지의 강원지역 인물에 대한 연구는 특정 몇몇 인물에 치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인물은 몇 명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원지역 인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도 인물사 연구를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시대 강원지역 교육열과 교육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강원학 연구의 하위 분과인 ‘교육’분야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사는 교육학 분야 내에서도 매우 기초적인 학문으로 평가받는다. 이 연구는 강원학 연구일 뿐만 아니라 교육학 연구이기도 하다. 현재 교육사 연구는 주로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 교육정책, 교육사상 연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사 연구는 일천한 상황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조선시대 강원교육의 단면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연구를 축적해간다면, 이는 교육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과거제도 개요

조선시대 관리는 주로 과거를 통해서 선발해왔다. 음서나 천거를 통해서 관리에 임용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원칙적으로 고위직 관리로 나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고위관료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과거시험 특히 문과에 합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이에 합격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는 유생들이 많았다. 이 장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과와 소과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1. 시험 시기별 구분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실시 시기에 따라 크게 식년시와 식년시가 아닌 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식년시가 아닌 시험을 '별시'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식년시 이외의 시험을 통칭하지 않고 각 시험별로 설명한다.

1) 식년시

식년시(式年試)는 3년에 1번 실시되는 정기적인 시험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子, 쥐띠 해), 묘(卯, 토끼띠 해), 오(午, 말띠 해), 유(酉, 닭띠 해)년에 합격자를 배출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그 전 해 가을에 식년시의 초시를 시작해서 이듬 해 봄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다. 시험의 단계는 초시(初試), 회시(會試), 전시(殿試)의 3단계로 되어 있으며, 초시와 회시는 각각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시는 1번의 시험으로 끝나게 된다.

초시는 각 지역에서 실시하며 도(道)를 기준으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모두 240명을 선발하였다. 회시는 초시에 합격한 240명이 서울에 모여서 실시한 시험이었으며, 모두 33명을 선발하였다. 전시는 회시에 합격한 33명이 응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불합격자는 없고 33명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험이었다. 33명의 순위에 따라 처음 임용될 때 품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시험은 대부분 지필 시험으로 실시하였다. 주로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묻거나,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필 시험 이외에도 구술시험이 있었다. 회시의 초장은 지필 시험이 아니라 구술시험이었으며, 시험 내용은 사서(四書)와 삼경(三經)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식년시에서는 문관을 선발하는 문과,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 생원이나 진사를 선발하는 소과를 모두 실시하여 규모도 매우 큰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식년시와 증광시의 경우 문과, 무과, 잡과, 소과를 모두 실시하는 데 반해 다른 시험들에서는 문과와 무과만 실시하였다.

2) 증광시

증광시(增廣試)는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여러 경사가 겹쳐서 합쳐졌을 때 실시하는 시험이었다. 일반적으로 왕이 새롭게 즉위하면 증광시가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증광시는 문과, 무과, 잡과, 소과가 모두 실시되기 때문에 규모나 절차 면에서 식년시와 큰 차이가 없었으면 국가의 경사가 여러 개가 겹쳐서 '대증광(大增廣)'으로 실시될 경우 문과의 정원은 33명에서 40명으로 늘려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험과목은 식년시와 거의 비슷하게 실시되었으나, 식년시에 비해 경전에 대한 구술시험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술에 강한 선비들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3) 별시

별시(別試)는 국가의 경사가 있거나 중시(重試)를 실시할 때 같이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절차는 초시와 전시 두 단계로 실시하였으며, 초시의 합격인원은 300명 또는 600명이었으며, 초시에서 300명을 뽑을지 600명을 뽑을지 전시의 합격 인원은 얼마인지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다. 초시와 전시의 두 단계로 되어 있고, 문과와 무과만 실시하기 때문에 식년시, 증광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험이지만, 정시, 춘당대시, 알성시에 비해서는 큰 시험이라 할 수 있다.

4) 정시

정시(庭試)는 전정(殿庭)에서 실시한다는 의미로 정시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과거의 한 종류로 실시된다. 역시 별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사가 있거나 할 때 실시되었다. 원래 한 번의 시험만 실시해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정조 대 이후에는 별시와 마찬가지로 초시와 전시로 나눠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5) 춘당대시

춘당대시(春塘臺試)는 춘당대에서 실시한다고 하여 춘당대시이다. 주로 관리들의 무예 수준을 확인하는 관무재(觀武才)를 실시할 때 이에 대거(對舉, 짝을 맞추어 실시함)하여 치르는 시험이었다. 시험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여 문과의 경우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6) 알성시

알성시(謁聖試)는 임금이 성균관에 행차하여 공자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실시하는 시

험이기 때문에 알성시라는 이름이 붙었다.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만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주로 모든 유생들에게 개방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알성시의 경우에도 한 번에 시험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다른 시험들과 마찬가지로 시험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

7) 중시

중시(重試)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가 아니라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다. 매 병년(丙年, 병자년, 병진년 등 병자로 시작하는 해를 뜻하는 것으로 2006년, 2016년처럼 6으로 끝나는 해)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10년에 1회 실시한다. 중시를 실시할 때에는 문신들을 대상으로 중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생들을 대상으로 별시(別試)를 실시한다. 그래서 식년시와 중시대거별시(重試對擧別試, 중시와 같이 실시하는 별시)는 각각 3년에 1회, 10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의 이 원칙대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2. 시험 과목별 구분

과거시험은 문관을 선발하는 문과, 무관을 선발하는 무과, 기술관을 선발하는 잡과, 생원·진사를 선발하는 소과로 나뉜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하게 되는 문과와 소과 과목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한다.

1) 문과

우선 문과 식년시의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다.²⁾

<표 II-1> 식년시 문과 시험과목

시험종류	시험 전 확인사항	초장(初場)	중장(中場)	종장(終場)
초시(初試)	처음 응시하는 유생은 중용, 대학(후에는 소학)을 각기 한 곳씩 배송(背誦)하여 조(租) 이상을 취득해야 녹명을 허락	<제술>오경·사서, 의(疑)·의(義) 중 1편, 론(論) 1편 (후에 오경의는 폐지)	<제술>부(賦), 송(頌), 명(銘), 잠(箴), 기(記), 표(表), 전(箋) 중 1편 (후에 송, 명, 잠, 기는 폐지)	<제술> 대책(對策) 1편
복시(覆試)	경국대전, 가례를 임문강(臨文講)한 후 녹명	<강서>사서, 삼경(제자(諸子), 사서(史書)를 강서하기 원하면 허락함)	초시와 동일	초시와 동일
전시(殿試)		<제술> 대책, 표, 전, 송, 제(制), 조(詔) 중 1편 (후에 론, 부, 명 추가)		

2) 김경용(2003), 과거제도와 한국 근대교육의 재인식, 교육과학사. p.291.

식년시 문과는 초시, 회시, 전시의 3단계로 실시되며, 초시와 회시는 각각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된다. 주로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의(疑)나 의(義)를 비롯해서 부(賦), 표(表), 대책(對策) 등이 주요 시험과목이었다. 또한 회시의 초장은 사서(四書)와 삼경(三經)에 대한 구술시험도 실시하였다. 전시 시험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주로 대책(對策)을 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증광시는 식년시와 거의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만 회시 초장에서 사서와 삼경에 대한 구술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삼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술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또한 별시의 경우에도 삼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술시험을 실시한다. 그 밖의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처럼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식년시 문과 전시와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³⁾

일반적으로 식년시와 다른 시험을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식년시는 지방 유생들이 유리하고, 다른 시험들은 서울 유생들이 유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는 학풍이나 해당 시험이 갖고 있는 특징으로 인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우선 학풍으로 보았을 때 지방의 유생들이 경전에 강하고, 서울의 유생들이 제술에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식년시의 경우 회시의 초장이 사서삼경을 모두 시험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였으며, 다른 시험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전에 대한 지식보다는 제술 능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제술 능력이 뛰어난 유생들이 더 유리하였다. 또한 식년시는 3년에 1번 실시하는 정기 시험이고, 초시를 지방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방의 유생들이 상대적으로 준비하기가 수월하였으나, 그 밖의 시험들은 시험 시기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고, 초시를 서울에서 실시하거나 서울에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지방 유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기도, 시험에 참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⁴⁾

그리고 한 가지 문과의 시험과목과 관련하여 덧붙인다면, 문과에서는 시(詩)가 시험

3) 각종 법전에 나타난 기준을 보면 별시,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는 시험과목이 증광시 전시와 같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증광시 전시는 바로 식년시 전시와 시험과목이 같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이들 시험들은 모두 식년시 전시와 동일한 과목으로 시험을 친다고 할 수 있다.

4) 물론 시험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거나, 불시에 실시해서 상대적으로 지방 유생들이 불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시간, 비용 등에서 오는 불리함까지 극복하기는 어렵다.

과목에 빠져 있다. 당시에 시는 유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양이었음은 분명하나, 그것이 문과의 시험과목으로는 등장하지 않는다. 시는 소과 중에서도 진사시에서만 시험과목으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시나 잘 짓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고려시대에는 가능했는지 모르겠으나, 조선시대에는 제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한편, 합격을 나타내는 ‘급제(及第)’라는 표현은 문과와 무과의 합격에만 쓰이는 단어이다. 소과의 합격증인 백패(白牌)나 다른 시험의 합격증을 보면 합격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입격(入格)’이다. 그런데 문과와 무과에 한해서는 ‘급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는 올바른 표현이지만, ‘소과에 장원급제하였다’는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 소과

소과(小科)는 생원(生員)을 선발하는 생원시와, 진사(進士)를 선발하는 진사시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생원은 경전에 능한 선비이고, 진사는 문장 능력이 뛰어난 선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과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⁵⁾

<표 II-2> 소과 시험과목

시험종류	진사시	생원시
초시(初試)	<제술> 부(賦) 1편, 고시(古詩), 명(銘), 잠(箴) 중 1편 (후에 명, 잠 폐지)	<제술> 오경의, 사서의 2편(후에 춘추의 폐지)
복시(覆試)	초시와 동일	초시와 동일

소과의 시험과목은 식년시와 증광시가 동일하다. 증광시 소과의 시험과목을 규정한 것을 확인하면 모두 식년시와 같다고 되어 있다. 시험 과목을 확인해보면 같은 제술이라고 하더라도 소과는 비교적 문학성이 강한 글쓰기라고 한다면 생원시는 경전에 대한

5) 김경용, 앞의 책, p.292.

내용에 대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사는 문장에 능하고, 생원은 경전에 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생원이나 진사들은 소과에 합격한 후에 문과에 응시하여 관료로 진출하기도 하고, 천거를 통해서 하급관리가 되기도 하며, 생원이나 진사로서 그대로 있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과에 합격해야 문과에 응시했다고 설명하기도 하나, 조선시대의 합격자를 분석해보면 소과에 합격하지 않고 문과에 바로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이 전체 합격자의 50%에 육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과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Ⅲ. 강원지역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의 분포 및 특징

1. 기본사항

문과 및 소과 합격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는 2018년 11월 10일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역대인물정보 종합시스템(<http://people.aks.ac.kr>)에 수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수치를 작성하였다. 한국역대인물정보 종합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파악되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다만,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통계를 보여줄 때 미세하게 변동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그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최신의 자료를 수치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1.1 강원지역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수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는 모두 229명이며, 생원은 856명, 진사는 788명으로 중복자를 포함한 연인원은 모두 1,873명이었다. 위와 같은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Ⅲ-1> 강원지역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연인원 및 합격자 비율

시험종류	합격자 수(a)	출신지역이 확인된 전체 합격자 수(b)	강원도 지역 출신 비율(a/b)
문과	229	10,801	2.1%
생원시	856	19,718	4.3%
진사시	788	21,045	3.7%
합계	1,873	51,564	3.6%

전국에서 출신지역이 확인된 문과 합격자 10,801명 중에서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의 수는 22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2.1%를 차지하였으며, 생원시, 진사시는 각각 4.3%와 3.7%로 문과보다는 강원지역 출신자의 비율이 높았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강원도 출신의 합격자 수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강원도의 인구수나 다른 지역 출신자의 비율을 함께 비교해보면 강원도 지역의 합격자 배출 비율이 반드시 낮은 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표 Ⅲ-2> 조선시대 시기별 강원도 인구 수 및 비율 (단위: 천 명)

연도	전국인구(a)	강원도 인구(b)	강원도 인구 비율(% (b/a)×100
1648	1,532	54	3.52
1657	2,290	72	3.14
1669	5,019	186	3.71
1678	5,247	271	5.16
1717	6,840	282	4.12
1726	7,032	290	4.12
1753	7,299	391	5.36
1777	7,239	341	4.71
1789	7,404	332	4.48
1807	7,561	336	4.44
1837	6,709	318	4.74
1852	6,919	325	4.70
1864	6,829	332	4.86

위의 표는 조선시대의 전국 인구와 강원도 정리한 것이다. 강원도의 인구 비율은 낮게는 3.52%에서 많게는 5.36%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대략 전체 조선인구의 4.5%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1% 수준인 문과 합격자 수는 인구 대비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으나, 3.7%를 차지하는 생원시 합격자 수와 4.3%를 차지하는 진사시 합격자 비율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서 약간만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원 지역 이외의 타 지역과 비교해서 본다면 강원도의 합격자 배출 비율은 그렇게 낮은 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표 Ⅲ-3> 조선시대 지역 별 인구 비율 및 문과 합격자 비율(인구 수 단위: 천 명, 비율: %)

년도	합계	한성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
1648	1532	96	81	174	432	425	54	55	146	69
1657	2290	81	133	287	522	763	72	138	185	110
1669	5019	194	546	595	973	1174	186	361	720	269
1678	5247	167	554	714	1000	1005	271	455	707	374
1717	6840	238	561	974	1110	1628	282	458	1078	510
1726	7032	189	560	911	1105	2243	290	469	735	531
1753	7299	174	642	931	1193	1662	391	540	1268	498
1777	7239	198	607	871	1190	1569	341	550	1274	639
1789	7404	189	642	868	1121	1591	332	568	1296	696
1807	7561	205	675	893	1251	1607	336	583	1306	706
1837	6709	204	658	846	1093	1501	318	547	853	690
1852	6919	204	673	881	1068	1536	325	673	869	692
1864	6829	203	674	879	1083	1521	332	568	873	696
13년 합계	77920	2342	7006	9824	13141	18225	3530	5965	11310	6480
13년 평균	5993.8	180.1	538.9	755.6	1010.8	1401.9	271.5	458.8	870	498.4
인구 비율 (%)		3.0	9.0	12.6	16.9	23.3	4.5	7.7	14.5	8.3
합격자 수	10801	5398	848	1014	796	1318	229	178	804	218
합격자 비율		50.0	7.9	9.4	7.4	1.2	2.1	1.6	7.4	2.0
합격자 비율/ 인구 비율		16.6	0.87	0.74	0.44	0.52	0.46	0.21	0.51	0.24

위의 표는 각 지역별 인구 대비 합격자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강원도는 조선시대 전체 인구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조선시대 전체의 문과 합격자의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인구 비율 대비 합격자 비율(2.1/4.5)은 0.46에 해당한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구에 대비해서 합격자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합격자를 단연 많이 배출한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은 인구 비율 대비 합격자 비율이 16.6이라 인구에 대비해서 16배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렇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한 지역도 이 수치가 1을 넘지 못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충청, 경상, 평안도가 강원도보다 이 수치가 높았으며, 전라, 함경, 황해도가 강원도 보다 낮았다. 강원도보다 높은 지역인 경상, 평안도도 이 수치가 각각 0.52, 0.51로 나와 강원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수치는 당시 강원도의 문과 합격자 배출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평균보다는 다소 낮을 수는 있지만,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7개 도 중에서 딱 중간인 4위를 차지하였다. 문과 합격자 배출이 당시의 교육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관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문과 합격자가 꾸준히 배출되고 비율로 보았을 때 강원도보다 아래 순위의 도가 3군데가 더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 강원도 지역이 최소한의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었음을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당시 강원지역의 학력 수준은 전국의 평균적인 수준에 충분히 근접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2 시험에 합격한 실제 인원수

위에서 확인된 1,873명은 문과, 생원, 진사시의 합격자 수를 단순하게 더한 것이다. 따라서 연인원이 아닌 실인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험에 중복하여 합격한 사람들의 수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한 실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Ⅲ-4> 강원지역 출신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 시험별 인원 수

합격 시험	인원(명)
문과	118
문과 + 생원시	61
문과 + 진사시	39
문과 + 생원시 + 진사시	11
생원시	768
진사시	722
생원시 + 진사시	16
합계	1,735

문과에 합격한 사람 중에 생원, 진사시를 시험보지 않고 바로 합격한 사람은 모두 118명이었다. 또한 생원시에 합격한 후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 60명, 진사시에 합격한 후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 38명,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도 11명이 되었다. 그리고 생원시에만 합격한 사람이 769명, 진사시에만 합격한 사람이 723명,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16명이었다. 이에 따라 중복합격자를 제외한 강원지역 출신 중에 문과와 소과에 합격한 실인원은 1,7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별 합격자 분포

그렇다면 도내 지역별 분포는 어떠할까? 각 지역별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의 분포는 아래의 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표 Ⅲ-5> 강원도내 지역별 문과 및 생원, 진사시 합격자 분포(연인원)

지역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계
간성	2	3	7	11
강릉	55	159	143	317
고성	3	2	4	9
금성	3	1	1	5
금화	5	7	7	19
낭천	0	11	1	12
삼척	4	10	4	18
안협	0	2	8	10
양구	3	7	10	20
양양	11	26	32	69
영월	1	21	16	38
울진	1	21	6	28
원주	84	297	292	673
이천	1	9	4	14
인제	0	4	7	11
정선	0	3	4	7
철원	2	29	25	56
춘천	30	110	114	254
통천	0	2	6	8
평강	3	2	8	13
평창	0	6	4	10
평해	2	11	13	26
홍천	6	50	34	90
회양	0	5	5	10
횡성	13	53	28	94
흡곡	0	0	0	0
합계	229	851	782	

합격자를 확인해보면 문과는 229명, 생원시는 851명, 진사시는 782명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⁶⁾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강원도내의 가장 큰 도시들이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었다. 원주는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를 모두 합쳐 670명을 배출하였으며, 강릉은 356명, 춘천은 254명을 배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횡성과 홍천이 각각 95명과 9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흡곡은 단 한 명의 문과, 생원시, 진사시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과는 합격자 명단 중에서 지역의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흡곡 출신 합격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84명이 합격한 원주였다. 그리고 그 뒤를 강릉, 춘천, 횡성, 양양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낭천, 안협, 인제, 정선, 통천, 평창, 회양, 흡곡은 현재까지는 과거 급제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원시 합격자는 원주, 강릉, 춘천, 횡성까지는 문과 급제자와 순위가 같다. 그러나 홍천이 50명으로 도내에서 5번째였으며, 철원이 29명으로 도내에서 6번째였다. 문과에서 11명의 급제자를 배출한 양양은 생원의 경우 26명으로 7번째를 차지했다. 영월과 울진도 각각 21명을 배출하여 20명이 넘는 생원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진사시 합격자도 원주, 강릉, 춘천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으며 홍천, 양양, 횡성, 철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들 7개 지역이 20명이 넘는 진사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흡곡은 생원, 진사시에서도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 3곳인 춘천, 원주, 강릉 3곳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거시험 합격자 배출도 월등하게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이 부분은 앞서 <표 3-1>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타 지역에 거주할 때 소과에 합격했으나, 문과 합격은 강원도 지역에서 했을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예컨대, 1583년생 원급(元汲)이나 1765년생 이상원(李相遠)의 경우 한성(京)에 거주할 때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문과는 원주에서 합격한다. 그러한 인원들의 경우 생원시 합격자 명단에서는 강원도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성관별 분포

합격자의 성관별 분포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성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여기에서는 각 지역별 합격자 분포를 성관별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성관별 분포의 경우 지역색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확인한다.

3.1 문과 합격자의 성관별 분포

강원도 내에서는 85개의 성관에서 모두 229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 중에서 5명 이상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은 모두 16개의 성관이며 해당 성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6> 강원지역에서 5명 이상 문과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

본관	성	합격자 수	배출 지역
강릉	金	17	강릉 16, 원주 1
안동	權	12	강릉 4, 고성 1, 원주 5, 횡성 2
초계	鄭	12	강릉 1, 원주 5, 횡성 6
강릉	崔	12	강릉 7, 양양 3, 원주 2
원주	元	8	원주 8
풍산	洪	8	원주 8
밀양	朴	7	금성 1, 원주 6
원주	李	7	원주 7
함평	李	7	양양 6, 원주 1
청주	韓	6	강릉 1, 원주 4, 춘천 1
평산	申	5	원주 4, 횡성 1
삼척	沈	5	강릉 4, 홍천 1
영일	鄭	4	강릉 2, 고성 1, 삼척 1
남양	洪	5	삼척 1, 원주 1, 춘천 3
평해	黃	5	강릉 1, 춘천 2, 평해 2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은 17명을 배출한 강릉 金씨였다. 그 뒤로 안동 權씨, 초계 鄭씨, 강릉 崔씨가 각각 12명을 배출하였다. 강릉 金씨와 강릉 崔씨는 주로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초계 鄭씨는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안동 權씨는 강릉과 원주에 걸쳐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3.1.1 간성

간성은 2명의 문과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평창 李씨와 울진 林씨에서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표 Ⅲ-7> 간성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평창	李	1
울진	林	1
합계		2

3.1.2 강릉

강릉은 5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55명 중에 강릉 金씨가 16명을 배출했으며, 강릉 崔씨도 7명을 배출하였다. 안동 權씨와 삼척 沈씨도 각각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표 Ⅲ-8> 강릉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제주	高	1
안동	權	4
강릉	金	16
경주	金	1

Ⅲ. 강원지역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의 분포 및 특징

본관	성	인원 수
김해	金	1
정선	金	1
여흥	閔	1
강릉	朴	1
청주	楊	1
영월	嚴	1
배천(白川)	劉	1
벽진	李	1
성주	李	1
영해	李	3
나주	林	1
영일	鄭	2
초계	鄭	1
창녕	曹	1
풍양	趙	1
강릉	崔	7
삼척	沈	4
진양	河	1
청주	韓	1
강릉	咸	1
평해	黃	1
합계		55

3.1.3 고성

고성지역은 3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안동 權씨, 청주 韓씨, 영일 鄭씨에서 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표 Ⅲ-9> 고성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안동	權	1
청주	金	1
영일	鄭	1
합계		3

3.1.4 금성

금성지역은 3명의 문과합격자를 배출하였다. 밀양 朴씨, 죽산 朴씨, 정선 全씨에서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표 Ⅲ-10> 금성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밀양	朴	1
죽산	朴	1
정선	全	1
합계		3

3.1.5 김화

김화지역은 모두 5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평산 李씨가 2명, 진천 張씨가 3명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김화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평산	李	2
진천	張	3
합계		5

3.1.6 삼척

삼척 지역은 모두 4명의 문과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영양 南씨가 1명, 영일 鄭씨가 2명, 남양 洪씨가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표 Ⅲ-12> 삼척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영양	南	1
영일	鄭	2
남양	洪	1
합계		4

3.1.7 양구

양구지역은 3명의 문과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성관별로는 청도 金씨, 청풍 金씨, 청송 沈씨가 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표 Ⅲ-13> 양구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청도	金	1
청풍	金	1
청송	沈	1
합계		3

3.1.8 양양

양양은 11명의 문과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 중에서 함평 李씨가 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강릉 崔씨가 3명, 광주 盧씨, 한양 趙씨가 각각 1명을 배출하였다.

<표 Ⅲ-14> 양양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광주	盧	1
함평	李	6
한양	趙	1
강릉	崔	3
합계		11

3.1.9 영월

영월지역은 단 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1명은 연안 車씨였다.

<표 Ⅲ-15> 영월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연안	車	1
합계		1

3.1.10 울진

울진지역도 영월과 마찬가지로 단 1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합격자는 울진 林씨였다.

<표 Ⅲ-16> 울진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울진	林	1
합계		1

3.1.11 원주

원주지역은 문과 합격자를 84명을 배출하여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문과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의 1/3을 넘는 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어느 특정 성관이 대수를 차지하기보다는 33개의 성관이 조금씩 나눠서 합격자를 배출하는 양상이었지만, 그래도 몇몇 성관에서는 10명 가까운 급제자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원주 元씨와 풍산 洪씨가 8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원주 李씨가 7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밀양 朴씨가 6명, 안동 權씨와 초계 鄭씨가 각 5명씩을 배출하였다.

<표 Ⅲ-17> 원주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청주	郭	1
안동	權	5
강릉	金	1
김해	金	1
연안	金	1
여흥	閔	1
밀양	朴	6
원주	邊	1
창녕	成	1
경주	孫	1
청주	孫	1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文科) 급제자 분석

본관	성	인원 수
영해	申	1
평산	申	4
순흥	安	1
동북	吳	1
원주	元	8
기계	俞	1
경주	李	1
덕수	李	3
성주	李	1
연안	李	1
예안	李	2
원주	李	7
전주	李	3
한산	李	3
함평	李	1
나주	丁	4
초계	鄭	5
강릉	崔	2
곡산	韓	1
청주	韓	4
남양	洪	1
풍산	洪	8
창원	黃	1
합계		84

3.1.12 이천

이천은 단 1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문과합격자는 울진 林씨에서 배출하였다.

<표 Ⅲ-18> 이천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울진	林	1
합계		1

3.1.13 철원

철원은 2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반남 朴씨와 기계 兪씨에서 각 1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표 Ⅲ-19> 철원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반남	朴	1
기계	兪	1
합계		2

3.1.14 춘천

춘천은 모두 30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30명의 문과합격자를 22개의 성관에서 나눠서 배출하고, 가장 많은 성관이 3명의 합격자를 배출할 정도로 비교적 고르게 성관이 분포하였다. 강릉의 경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4개 성관이 전체 합격자 55명의 절반을 넘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성관별로 확인하면 수원 崔

씨와 남양 洪씨가 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서 춘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과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이었다.

<표 Ⅲ-20> 춘천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해평	吉	1
광산	金	1
선산(善山)	金	1
청풍	金	2
의령	南	1
고흥	柳	1
문화	柳	1
경주	李	1
성주	李	1
연안	李	1
우봉	李	1
전주	李	1
경주	朴	1
영암	朴	1
대구	徐	1
수원	崔	3
전주	崔	2
청송	沈	2
청주	韓	1
남양	洪	3
창원	黃	1
평해	黃	2
합계		30

3.1.15 평강

평강은 모두 3명의 문과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풍천 任씨가 2명, 창원 黃씨가 1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표 Ⅲ-21> 평강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풍천	任	2
창원	黃	1
합계		3

3.1.16 평해

평해는 2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2명의 문과 합격자 모두 평해 黃씨였다.

<표 Ⅲ-22> 평해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평해	黃	2
합계		2

3.1.17 홍천

홍천지역은 모두 6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홍천지역은 어느 특정한 성관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6개의 성관이 각 1명씩 급제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홍천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능성	具	1
고성(固城)	李	1
연안	李	1
전주	崔	1
삼척	沈	1
청송	沈	1
합계		6

3.1.18 횡성

횡성지역은 모두 13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6명을 초계 鄭씨에서 배출하였으며 안동 權씨는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다른 5개의 성관에서 각 1명씩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표 Ⅲ-24> 횡성지역 문과합격자 성관별 분포

본관	성	인원 수
횡성	高	1
안동	權	2
원주	金	1
고령	朴	1
평산	申	1
진양	鄭	1
초계	鄭	6
합계		13

3.2 문과, 생원시, 진사시의 성관별 분포

문과, 생원시, 진사시의 합격자를 합치면 모두 190개 성관에서 1,735명의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앞서 문과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15개 성관 외에도 생원시, 진사시로 범위를 넓히면 좀 더 많은 인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강원지역에서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를 20명 이상 배출한 성관들을 살펴보자.

<표 Ⅲ-25> 강원지역 내에서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를 20명 이상 배출한 성관(실인원)

본관	성	합계	문과	문과+ 생원시	문과+ 진사시	문과+생원 시+진사시	생원시	진사시	생원시+ 진사시
전주	李	112	1	1	2		58	48	2
강릉	崔	104	4	4	3	1	49	42	1
강릉	金	74	6	8	3		30	27	
안동	權	62	6	4	2		21	27	2
밀양	朴	56	3	3	1		23	26	
원주	元	56	2	2	4		29	16	3
초계	鄭	56	5	3	3	1	23	21	
청주	韓	56	5	1			25	25	
나주	丁	42	1		1	2	15	23	
남양	洪	39	4			1	18	16	
원주	李	37	4	3			20	10	
평산	申	32	3	2			12	15	
창원	黃	32	2	1			11	18	
경주	李	31	1	1			14	13	2
함평	李	27	3	1	3		6	14	
경주	金	26	1				12	13	
덕수	李	25	2			1	13	9	
평해	黃	25	3		1	1	13	7	
한산	李	24	2	1			11	10	
풍산	洪	24	3	2	3		6	10	
광산	金	23	1				8	14	
여흥	閔	21		1			8	12	
청송	沈	21	4				8	9	

위의 표에서 확인해보면 문과, 생원시, 진사시를 모두 합쳐서 20명 이상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은 모두 23개 성관이였다. 그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은 전주 이씨였다. 전주 이씨는 문과 합격자는 4명에 그쳤지만, 생원시 58명, 진사시 48명, 생원시와 진사시를 모두 합격한 자 2명까지 모두 11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 뒤를 잇는 강릉 崔씨, 강릉 金씨, 안동 權씨, 원주 元씨, 초계 鄭씨, 청주 韓씨 등은 문과 합격자도 많이 배출하면서도 동시에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자도 많이 배출하였다.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에서는 1명 이상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金여씨와 여흥 闕씨의 경우 문과는 1명만 급제하였으나, 생원시와 진사시의 급제자가 합쳐서 2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대별 분포

여기에서는 시대별로 문과 합격자 및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한다. 100년을 단위로 각 시대별 문과 합격자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Ⅲ-26> 조선시대 강원지역 시기별 문과 합격자 분포

	1392-1500	1501-1600	1601-1700	1701-1800	1801-1894
간성			1		1
강릉	3	9	20	11	12
고성			1	1	1
금성				1	2
금화		3			2
삼척		1		2	1
양구					3
양양			4	5	2
영월				1	
울진					1
원주		6	24	26	28
이천		1			
철원					2
춘천			8	7	15
평강					3
평해		1	1		
홍천	1	1	1	2	1
횡성	1			6	6
합계	5	22	60	62	80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文科) 급제자 분석

지금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강원도 지역 출신 문과 15세기에 5명, 16세기에 22명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7세기부터는 확연한 증가세가 포착되어 17세기에 60명, 18세기에 62명, 19세기에 80명의 문과 합격자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생원시, 진사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표 Ⅲ-27> 조선시대 강원지역 시기별 생원시 합격자 분포

지역	1392-1500	1501-1600	1601-1700	1701-1800	1801-1894	합계
간성			2		1	3
강릉	13	32	45	22	48	160
고성		1	1			2
금성	1					1
김화		3	2		2	7
낭천		1	2	3	5	11
삼척		2	3	1	4	10
안협					2	2
양구	1			2	4	7
양양	2	2	5	2	15	26
영월		1	2	7	11	21
울진	4	3	5	6	3	21
원주	3	26	75	79	114	297
이천		1		1	7	9
인제					4	4
정선		1		1	1	3
철원	2	3	3	2	19	29
춘천	1	3	30	30	46	110
통천				1	1	2

Ⅲ. 강원지역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의 분포 및 특징

지역	1392-1500	1501-1600	1601-1700	1701-1800	1801-1894	합계
평강				1	1	2
평창				2	4	6
평해		3		3	5	11
홍천		2	10	12	26	50
회양				1	4	5
횡성	1	1	15	15	21	53
흡곡						0
합계	28	85	200	191	348	852

생원시 합격자의 시대별 분포도 문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15세기까지 28명에 그쳤던 생원시 합격자는 16세기에 85명으로 늘어났고, 17세기에는 200명, 18세기에는 191명, 19세기에는 348명까지 증가하였다.

<표 Ⅲ-28> 조선시대 강원지역 시기별 진사시 합격자 분포

지역	1392-1500	1501-1600	1601-1700	1701-1800	1801-1894	합계
간성			1		6	7
강릉	2	23	42	27	48	142
고성				3	1	4
금성				1		1
금화		2	2		3	7
낭천			1			1
삼척				1	3	4
안협				1	7	8
양구			1	3	6	10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文科) 급제자 분석

지역	1392-1500	1501-1600	1601-1700	1701-1800	1801-1894	합계
양양		2	4	13	13	32
영월		2	3	6	5	16
울진		1	2	1	2	6
원주	2	17	61	80	132	292
이천					4	4
인제					7	7
정선					4	4
철원			1	4	20	25
춘천		5	16	25	68	114
통천					6	6
평강				7	1	8
평창		1			3	4
평해	1	5	1		6	13
홍천			3	7	24	34
회양				1	4	5
횡성			3	6	19	28
흡곡						0
합계	5	58	141	186	392	782

진사시의 경우도 문과와 생원시의 분포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인다. 15세기에는 5명만 확인되던 강원지역 출신 진사시 합격자는 16세기에는 58명, 17세기에는 141명, 18세기에는 186명, 19세기에는 39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문과, 생원시, 진사시 모두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사실 문과의 경우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30%정도에 달하고,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조선전기에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조선 전기에 문과 급제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현상은 강원지역 급제자가 적어서라기보다는

급제자는 더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자의 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생원시와 진사시는 합격자의 출신지역이 확인되지 않는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5% 정도 밖에 되지 않기 그 분포의 신빙성은 문과 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전에는 강원 지역의 문과 합격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 강원지역 문과 급제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가설적으로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조선전기보다 조선후기에 과거시험의 실시횟수가 훨씬 증가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합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도 설명이 부족한 것이 강원도 출신 합격자들의 수가 전체 합격자 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 전후로 강원지역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강원도는 경상도, 전라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기 때문에 외부인의 유입이 활발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이력을 따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 편으로는 조선후기로 가면 갈수록 전반적으로 학교체제가 정비되고 안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강원지역이 이전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위의 가설들은 일단 가설 수준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며, 추후 여러 자료를 보강하여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5. 전력별 분포

<표 Ⅲ-29> 조선시대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의 전력별 분포

전력	인원
유학	103
생원	52
진사	34
가감역관	1
계공랑	1
교도	1
교수	1
군수	1
동몽교관	2
사헌부감찰	1
선교랑	1
세자익위사익찬	1
장사랑(將仕郎)	1
전별제(前別提)	1
전도사(前都事)	1
전판관(前判官)	1
전참군(前參軍)	1
전력부위	1
좌랑	1
주부	1
참봉	4
통덕랑	16
황산도찰방	1
훈도	1
합계	229

조선시대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 전력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유학으로 모두 103명이었으며, 생원은 52명, 진사는 34명이었다. 그 밖에 통덕랑이 16명, 참봉이 4명, 동몽교관이 2명이었으며, 나머지 18개 전력이 각각 1명씩이었다.

여기서 전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과방목 상에 기재된 자신의 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의 정확한 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생원시에 합격하였지만, 전·현직관료인 경우 그 관직명을 넣는 경우도 있으며, 생원시와 진사시를 모두 합격하였을 경우 생원과 진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기도 한다. 심지어는 오기로 인해 진사시에 합격하였지만, '생원'으로 표기되는 사례도 발견이 된다. 따라서 대체적인 수준에서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6. 시험별 분포

아래는 문과 합격자들의 생원시, 진사시 합격 경력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Ⅲ-30>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 중 생원, 진사시 합격자 비율

합격 시험	인원 수	비율
문과만 합격	118	51.5
생원시 합격 → 문과 합격	61	26.6
진사시 합격 → 문과 합격	39	17.0
생원시, 진사시, 문과 모두 합격	11	4.8
합계	229	100.0

이 중에서 문과만 합격한 사람은 118명으로 전체의 51.5%에 해당하였다. 생원시에 합격한 뒤 문과에 합격한 사람은 모두 61명으로 26.6%를 차지하였으며, 진사시에 합격한 후 문과에 합격한 사람은 39명으로 17.0%를 차지하였다. 또한 생원시, 진사시, 문과를 모두 합격한 사람은 11명으로 4.8%를 차지하였다.

또한 강원지역의 전체 생원시 및 진사시 합격자 중 문과 합격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Ⅲ-31> 강원지역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중 문과 합격자 비율

소과 종류	강원지역 합격자	소과 합격자 중 문과 합격자	비율(%)
생원시	829	61	7.4
진사시	761	39	5.1
생원시+진사시	27	11	40.7
합계	1,617	111	6.7

7) 여기서 생원시와 진사시 합격자 수는 생원시와 진사시를 모두 합격한 사람들은 제외한 수치이다.

Ⅲ. 강원지역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의 분포 및 특징

강원지역 출신 중에서 생원시에만 합격한 사람은 829명이었으며, 그 중에 61명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진사시에만 합격한 사람은 761명이었는데, 그 중 39명이 문과에 합격하였다. 또한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27명 중에 11명이 문과에도 급제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생원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합격한 사람의 수가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합격한 사람의 수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합격률도 생원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합격한 사람보다 2.2% 높은 편이었다. 대체적으로 서울의 유생들이 제술에 강하고, 지방의 유생들이 경전에 강하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영향이 얼마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27명 중에서는 11명이 문과에 합격하여 생원시, 진사시 하나만 합격한 사람들에 비해서 문과 합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하였다는 것은 이미 경전과 제술에 두루 능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합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과 합격자의 문과 시험종류별 합격자 수는 아래와 같다.

<표 Ⅲ-32>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의 문과 시험별 합격자 분포

시험종류	강원지역 합격자	비율(%)	조선시대 전체 문과 합격자에서 해당 시험의 합격자 비율(%)
식년시	100	43.7	39.8%
증광시	57	24.9	17.9%
별시	26	11.4	13.1
정시	35	15.3	16.6
알성시	10	4.4	5.1
현량과	1	0.4	0.1
합계	229	100.0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의 문과 시험별 합격자는 100명으로 강원지역 전체 문과합격자 229명의 43.7%였다. 전체적인 숫자도 많은 편이지만, 조선시대 전체 문과 합격자 중에

식년시 합격자의 비율이 39.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원지역 합격자 중에 식년시 합격자가 점유한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증광시 합격자는 57명으로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 중에 24.9%를 차지하였다. 조선시대 전체 문과 합격자 중에 증광시 합격자의 비율이 17.9%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원지역의 증광시 합격자 비율은 다소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시, 정시, 알성시는 각각 11.5%, 15.4%, 4.4%로 전체 평균에 비해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들의 경우 식년시, 증광시의 비율이 다소 높고, 별시, 정시, 알성시의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지방의 유생들이 경전에 밝은 선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3년에 1번 정기적으로 시험이 실시되며, 초시를 지방에서 실시하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식년시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강원지역 합격자들 중에서 식년시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러한 경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식년시 이외의 시험의 경우 서울의 유생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으나, 강원지역의 경우 증광시 합격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조선시대 전체적으로 보면 증광시에서 배출하는 합격자의 비율이 17.9%인 것에 반해,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 중에 증광시 합격자의 비율은 24.9%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험과목의 영향보다는 시험의 실시 형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광시는 식년시에 비해서는 경전에 대한 구술시험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제술에 능한 서울의 유생들이 유리하다고 풀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강원지역 학생들이 증광시의 합격자가 많은 것으로 보았을 때 증광시라고 해서 서울의 유생들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오히려 식년시와 증광시의 경우 초시를 지방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강원지역의 유생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초시를 서울에서 실시하거나, 서울에서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별시,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 등에 비해서 식년시와 증광시의 응시 여건이 더 나았다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는 어떠할까? 여기서는 식년시와 증광시의 합격 성적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식년시와 증광시는 선발 인원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별시,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는 선발 인원을 그 때 그 때 정하기 때문에 인원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평균으로 순위를 따지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적게

는 3, 4명을 선발할 때도 있지만, 많게는 20명이 넘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년시와 증광시는 비교적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합격 등위를 따지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래는 식년시와 증광시의 시험별 평균 합격 등수이다.

<표 Ⅲ-33> 강원지역 출신 식년시, 증광시 문과 합격자 평균 등수

시험종류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 수	합격 당시 식년시의 평균 선발 인원	강원지역 출신 식년시 합격자의 평균 등수
식년시	100명	38.3명	19.7등
증광시	57명	43.1명	23.4등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식년시 합격자 수는 100명이었다.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를 배출했던 식년시의 평균 선발 인원은 38.3명이었는데, 강원지역 출신 문과 식년시 합격자의 평균 등수는 19.7등이었다. 이는 매 시험마다 38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이들의 평균 등수가 19.5등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강원지역 식년시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은 전국 평균에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지역 출신 증광시 합격자는 모두 57명이었다.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를 배출했던 증광시의 평균 선발 인원은 43.1명이었는데, 강원지역 출신 증광시 문과 증광시의 합격자 평균 등수는 23.4등이었다. 매 시험마다 43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들 합격자들의 평균 등수는 22.5등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평균 등수가 1등정도 낮다는 것인데,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이지만, 이것만으로 보았을 때는 강원도 출신 합격자들의 합격 등수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당시 강원지역 유생들의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조선시대 전반적인 학업 성취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수준이 강원지역 유생들의 성적을 전체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원지역에서 합격자들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강원지역 유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쉽게 말해서 당시 강원지역의 유생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낮은 등수로 겨우 합격

한 것이 아니라 당당히 실력을 겨뤄서 합격했으며, 그 실력도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34> 강원지역 생원시 합격자의 소과 시험별 합격자 분포

시험종류	강원지역 생원시 합격자	비율(%)	조선시대 전체 소과 합격자에서 해당 시험의 합격자 비율(%)
식년시	580	67.8	68.0
증광시	276	32.2	32.0
합계	856	100.0	

강원지역 생원시 합격자의 소과 시험별 합격자 분포는 조선시대 전체의 분포와 비교적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다. 생원시 합격자 856명 중에 식년시에 합격한 사람은 580명으로 67.8%를 차지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전체 생원시 합격자 중 식년시 합격자의 비율인 68.0%와 비슷한 수치였다. 생원시의 경우 식년시와 증광시의 시험과목이나 시험 절차가 같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Ⅲ-35> 강원지역 진사시 합격자의 소과 시험별 합격자 분포

시험종류	강원지역 진사시 합격자	비율(%)	조선시대 전체 소과 합격자에서 해당 시험의 합격자 비율(%)
식년시	497	63.1	67.5
증광시	291	36.9	32.5
합계	788	100.0	

강원지역 진사시 합격자의 소과 시험별 합격자 분포를 보면 여기에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증광시 합격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생원시와 마찬가지로 진사시는 식년시나 증광시나에 따라 시험과목이나 시험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차이는 우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확실한 이유를 밝

히기 위해서는 추후에 좀 더 구체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진사시와 생원시의 합격자들의 합격 등수를 확인해 볼 것이다. 우선 생원시 부터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Ⅲ-36>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생원시 시험별 합격 등수

시험종류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 수	합격 당시 시험의 평균 선발 인원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의 평균 등수
식년시	580명	117.4명	60.5등
증광시	276명	117.9명	64.2등
전체	856명	117.6명	61.7등

강원지역 출신 생원시 합격자 수는 모두 856명이었다. 이 중에서 식년시 합격자는 580명, 증광시 합격자는 276명이었다. 합격 당시 시험의 평균 선발 인원은 식년시가 117.4명, 증광시가 117.9명이었으며, 평균 선발 인원은 117.6명이었다. 그리고 강원지역 출신 생원시 합격자의 평균 등수는 식년시가 60.5등, 증광시가 64.2등 전체적으로는 61.7등이었다. 만약 평균적으로 118명을 선발한다고 한다면 이들의 평균 등수는 59.5등이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심각하게 낮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래는 진사시 합격자에 대한 통계이다. 진사시의 경우 워낙 많은 인원을 뽑아서 평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번의 시험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그 세 번의 시험은 1888년 식년시, 1891년 증광시, 1894년 식년시이다. 1888년 식년시에서는 진사시에서 328명을 선발하였고, 1891년 증광시는 559명, 1894년 식년시는 1,055명을 선발하였다. 생원시도 조선 말기로 오면 200명 넘게 선발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선발인원이 300명을 넘는 시험은 없었다. 따라서 선발인원이 300명이 넘는 시험의 통계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적인 경향성을 가늠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들 세 번의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에 대해서만 확인해보고자 한다.

<표 Ⅲ-37>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진사시 시험별 합격 등수

시험종류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 수	합격 당시 식년시의 평균 선발 인원	강원지역 출신 식년시 합격자의 평균 등수
식년시	414명 ⁸⁾	113.6명	57.0등
증광시	264명	116.4명	62.5등
전체	678명	114.7명	59.2등

강원지역 출신 진사시 합격자 수는 위에서 언급한 3번의 시험을 제외하고 모두 678명이었다. 이 중에서 식년시 합격자는 414명, 증광시 합격자는 264명이었다. 합격 당시 시험의 평균 선발 인원은 식년시가 113.6명, 증광시가 116.4명이었으며, 평균 선발 인원은 114.7명이었다. 그리고 강원지역 출신 생원시 합격자의 평균 등수는 식년시가 57.0등, 증광시가 62.5등 전체적으로는 59.2등이었다. 만약 평균적으로 114명을 선발한다고 한다면 이들의 평균 등수는 57.5등이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식년시 진사시 합격자의 합격 성적은 평균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증광시의 합격 성적은 다소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저히 낮다거나 심각하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생원시, 진사시의 합격 등수는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그렇다고 심각하게 낮은 편이라 보기는 어렵다. 타 지역과 비교를 해봐야 얼마나 낮은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낮은 것으로 강원도 지역의 유생들의 수준이 낮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과 합격자의 성적이나,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들의 성적을 보았을 때 당시 강원도의 유생들의 기본적인 학력 수준은 조선시대 평균적인 수준에 근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8) 원래는 415명이나 1명의 등수가 확인되지 않아 414명으로 계산하였다.

7. 기타 합격자 관련 통계

여기서는 합격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수치를 확인해 본다. 우선 강원지역 합격자들의 소과 또는 문과 합격 당시 평균 연령을 확인한다. 합격 당시 평균 연령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Ⅲ-38> 강원지역 합격자 평균 합격 연령

시험별	연령이 확인되는 인원	평균 합격 연령
문과	214명	37.2세
생원시	769명	35.6세
진사시	751명	34.1세

연령이 확인되는 문과 합격자의 합격 평균 연령은 37.2세였다. 생원시는 35.6세였으며, 진사시는 34.1세로 확인되었다.

앞서 확인했듯이 조선시대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 중 111명은 생원시, 진사시 또는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후 문과에 급제한 경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생원시 또는 진사시에 처음 급제한 후 문과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표 Ⅲ-39> 생원시 합격 후 문과에 합격할 때까지 걸린 기간

생원시 합격 후 문과 합격까지 걸린 기간	인원
0년	3
1년	3
2년	4
3년	2
4년	1
5년	1
6년	12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文科) 급제자 분석

생원시 합격 후 문과 합격까지 걸린 기간	인원
7년	5
8년	2
9년	7
12년	3
14년	2
16년	1
18년	1
19년	2
20년	1
21년	1
22년	1
23년	1
24년	1
25년	1
27년	1
29년	1
30년	1
32년	1
33년	2
합계	61

평균: 10.9년

생원시 합격 후 문과 합격에 걸린 시간은 평균 10.9년이었다. 이 중에서 같은 해에 합격한 사람은 3명으로 1696년생의 강릉에 거주했던 권서동(權瑞東)이라는 인물은 1727년 증광시에 생원시와 문과에 동시에 합격했으며, 나머지 두 명은 같은 해에 실시된 다른 종류의 시험에 생원시와 문과에 각기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1명 중에 40명은 생원시에 합격한 지 10년 이내에 문과에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0> 진사시 합격 후 문과에 합격할 때까지 걸린 기간

생원시 합격 후 문과 합격까지 걸린 기간	인원
0년	2
1년	3
2년	1
3년	3
4년	4
5년	1
6년	4
7년	2
9년	4
10년	5
11년	1
12년	2
15년	2
18년	1
20년	1
22년	1
27년	1
35년	1
합계	39

평균: 8.9년

진사시 합격 후에 문과에 합격하는 기간은 평균 8.9년 정도였다. 평균적으로는 생원시보다는 다소 빠르게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2명은 같은 해에 진사시와 문과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688년생이고 횡성에 거주했던 김몽좌(金夢佐)라는 인물은 1721년 증광시에 진사시와 문과에 동시에 합격했고, 1755년생이고 원주에 거주했던 홍대호(洪大浩)라는 인물은 1803년 증광시에 진사시와 문과에 동시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9명 중에 29명은 진사시에 합격한 지 10년 이내에 문과에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 생원,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이 소과 최초 합격 후 문과 합격까지 걸린 기간

소과 합격 후 문과 합격까지 걸린 기간	인원
0년	1
1년	1
2년	2
4년	1
5년	1
6년	1
7년	2
11년	1
20년	1
합계	11

평균: 5.9년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했던 11명의 경우 생원시 또는 진사시에 최초에 합격한 후 문과에 합격하는데 평균 5.9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원시 출신자들이 문과 합격에 평균 10.9년이 걸리고, 진사시 출신자들이 문과 합격에 8.9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생원시와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하는 것은 제술과 경전에 두루 능해야 가능한 것으로 이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합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들 11명은 생원시 따로 진사시 따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이 생원시와 진사시를 동시에 응시하여 합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500년생 강릉출신 최연(崔演)의 경우 1525년 식년시에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1명 중에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소과에 합격한지 7년 이내에 문과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의 특징

위에서 각종 수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추론을 통해 당시 강원지역 합격자들의 대체적인 특징과, 강원지역 교육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우선 강원지역 출신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생 수나 합격 등위로 보았을 때 강원지역이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정도의 수준으로 다른 지역보다 앞서나갔다는 말은 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당시 호구조사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강원지역보다 더 좋지 않은 지역은 3군데나 더 있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도 중에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으로, 강원지역의 합격자 배출은 전국 평균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합격자 등수의 경우에도 평균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수준이라 할 수는 있으나, 1, 2등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므로, 그리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타 지역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강원도 지역의 합격 등수가 현저히 낮다고 볼 근거는 없다. 크게 보았을 때 강원도 지역의 합격등위는 전국 평균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보아야 하며, 조선시대 전반적으로 강원도 지역의 교육 수준은 조선시대 평균적인 수준에는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시험종류별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강원도 지역의 합격자 특징은 지방 유생의 합격자 분포의 특징을 설명하는 기존의 통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반적으로 생원시 합격자가 진사시 합격자보다 많았다고 하는 것은 지방 유생들이 상대적으로 경전에 밝은 선비들이 많고, 이 때문에 생원시에 더 유리하다는 기존의 통설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편으로는 합격자 중에서 증광시 합격자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는 식년시와 함께 초시를 지방에서 실시하는 증광시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초시를 반드시 지방에서 치르지는 않았던 별시나, 초시 없이 서울에서 단 번에 끝나는 알성시, 춘당대시와 같은 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증광시의 응시여건이 좋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당시 강원지역은 충분히 조선시대의 당시 수준에서 크게 쳐지지 않고 나름의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전반적인 인구수가 적어서 외형상 작아 보일 뿐이지, 인구에 비례해서 여러 모로 평가한다면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당시 강원도는 일정 수준의 교육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이

(李珥)나 허균(許筠)과 같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IV.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급제자들의 합격 등급과 관직 진출

1.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급제 등급

<표 IV-1>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의 합격 등급

등급	인원	비율(%)
갑과 1위	11	4.8
갑과 1위를 제외한 갑과	9	3.9
을과	32	14.0
병과	176	76.8
정과	1	0.4
합계	229	100.0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 최종 성적은 이들에게 처음 발령을 낼 때의 품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르면 갑과의 1등, 즉 장원급제자는 종6품의 벼슬을 주고, 갑과의 다른 사람들은 정7품의 벼슬을 준다. 또한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을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지역 합격자들의 합격 순위를 통해 대략적인 초직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식년시의 경우 최종 합격자 33명의 등급은 갑과 3명(9.1%), 을과 7명(21.2%), 병과 23명(69.7%)으로 구성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갑과는 9.1%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을과는 그것에 비해서 다소 비율이 낮고, 병과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명, 7명, 23명으로 나누는 것은 식년시의 기준이고 다른 시험에서는 갑과, 을과, 병과의 인원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높다 혹은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갑, 을, 병 이외에도 정(丁)과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1453년(단종1) 증광시에서 나타난 일로, 이때는 을과 3명, 병과 7명, 정과 30명으로 합격자가 구성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과는 사실상 병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시험종류별 급제 등급을 확인해본다. 각 시험별로 해당 합격 등급의 인원과 비율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표 IV-2>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의 합격 시험별 등급

	갑과	을과	병과	정과	합계
식년시	10(10.0%)	15(15.0%)	75(75.0%)		100(100.0%)
증광시	6(10.5%)	4(7.0%)	46(80.7%)	1(1.8%)	57(100.0%)
별시	1(3.8%)	5(19.2%)	20(76.9%)		26(100.0%)
정시	2(5.7%)	6(17.1%)	27(77.1%)		35(100.0%)
알성시	1(10%)	2(20%)	7(70%)		10(100.0%)
현량과			1(100%)		1(100.0%)
전체	20(8.7%)	32(14.0%)	176(76.8%)	1(0.4%)	229(100.0%)

전체적으로 보면 식년시와 알성시의 합격 등급이 다른 시험들에서 다소 높게는 나타났으나 시험별로 갑, 을, 병과의 비중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높다, 낮다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갑, 을, 병과로 인해 첫 발령의 품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험별에 따른 합격 등급은 한 번 참고해 볼 만 하다.

그래도 식년시의 합격 등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식년시의 합격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강원지역의 문과 합격자 중에서 식년시 합격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의 합격 등수도 다른 시험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면 강원지역의 학풍이 식년시 과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식년시 합격자 비율이 높고 식년시 급제 등수가 높은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추후의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지만, 적어도 강원지역의 경우 식년시 합격 비율이 높고, 식년시의 급제 등수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2.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들의 최고품계

문과 급제자들은 단순히 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관리로서 삶을 살게 된다. 여기에서는 강원지역 출신 급제자들이 관리로 임용된 후 최고 품계가 무엇이고, 최고 품계까지 올라간 비율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최고 품계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공식적으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표 IV-3> 강원지역 출신 문과 급제자들의 최고 품계

최고품계	인원
총1품	3
정2품	11
총2품	9
정3품	55
총3품	16
정4품	9
총4품	9
정5품	35
총5품	8
정6품	30
총6품	4
정7품	20
정9품	1
총9품	1
합계	211

문과 급제자 중에 최고 품계가 확인되는 합격자는 전체 211명이다. 이 중에서 정1품은 없으며, 총1품은 3명, 정2품은 11명, 총2품은 9명, 정3품은 55명, 총3품은 16명으

IV.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급제자들의 합격 등급과 관직 진출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관직이 확인되는 사람들인 211명 중 전체 44.5%는 3품까지는 승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대개 관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높은 관직에 올랐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 전체 229명 중에서는 41.0%정도가 3품까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즉, 강원지역 출신자 중에 문과에 합격한 사람의 중에서 40% 정도는 3품까지 승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 최고품계별로 문과 합격 후에 걸리는 평균 시간을 확인해보았다. 여기서는 문과 합격 후에 최고품계에 언제 올라갔는지를 확인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소요기간을 산출하였다. 최고품계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 해당 품계 또는 직책으로 임명되었다는 기사나, 다른 기사에서 해당 직책으로 등장하는 시기를 우선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각종 공식적인 문건들을 확인하여 보완하였다.

<표 IV-4> 문과 합격 후 최고 품계까지 오르는 데에 걸리는 기간

최고품계	최고 품계에 오른 시간이 확인되는 인원	평균 소요기간
종1품	3	32.3년
정2품	11	21.5년
종2품	9	30.1년
정3품	55	18.9년
종3품	16	20.9년
정4품	8	16.5년
종4품	9	14.9년
정5품	35	9.5년
종5품	7	14.3년
정6품	30	7.5년
종6품	7	5.8년
정7품	20	1년
정9품	1	0년
종9품	1	0년
합계	211	

최고 품계에 오른 것이 확인되는 인원 211명을 확인해본 결과 강원지역 출신자들이 오른 가장 높은 품계인 종1품에 오르기까지는 평균 32.3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떤 사람이 최고 품계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품계에 따라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품계가 정2품인 사람들의 경우 정2품까지 오르는 데까지는 평균 21.5년이 걸렸지만, 최고 품계가 종2품인 사람들은 종2품에 오르기까지는 평균 30.1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고 품계가 정3품인 사람들의 경우 정3품에 오르기까지는 18.9년이 걸렸지만, 최고 품계가 종3품인 사람들은 종3품에 오르기까지는 20.9년이 걸렸다. 대략적으로 3품 정도까지 오르는 데에 20년, 1품까지 오르는 데에 30년 정도 걸린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여기서 나타난 소요시간은 실제 해당 관직까지 승진하는 평균 기간보다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표 IV-4>는 해당 품계가 최고 품계인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기간을 평균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고 품계가 종5품으로 확인되는 7명의 종5품까지의 평균 승진 기간은 14.3년이지만, 그보다 더 높은 품계로 올라간 정5품에서 정1품까지의 인원들의 종5품까지의 승진기간은 이 통계에서는 빠져 있다. 따라서 이 표는 일정한 참고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V.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 중 주목되는 인물들

이 장에서는 강원지역 합격자 중에서 다소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했거나, 시험에 장원으로 급제했거나, 문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으나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했거나 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1.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들

우선 문과와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V-1> 강원지역 출신 중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가나다 순)

성명	한자성명	출신지역	생년	생원시, 진사시 합격년도	문과 합격년도	최고품계
신용연	申用淵	원주	1759	1792	1803	정5품
심언경	沈彦慶	강릉	미상	1510	1516	종1품
이은모	李殷模	원주	1745	1768	1775	정3품
정도겸	丁道謙	원주	1643	1660	1662	정7품

성명	한자성명	출신지역	생년	생원시, 진사시 합격년도	문과 합격년도	최고품계
정사신	丁思愼	원주	1662	1687	1691	정3품
정혹	鄭穀	원주	1559	1589	1594	종2품
최연	崔演	강릉	1500	1525	1525	정2품
최항제	崔恒齊	춘천	1649	1675	1677	정3품
하계도	河啓圖	강릉	1587	1610	1630	정5품
홍언철	洪彦喆	춘천	1729	1762	1763	정3품
황중운	黃中允	평해	1577	1605	1612	정3품

강원지역에서 출신자 중에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총 11명이다. 이들 11명의 한 가지 특징은 소과에 합격할 때에는 생원시와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식년시나 증광시를 실시할 때 문과, 생원시, 진사시의 시험 일자를 각기 달리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응시해서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출신지역별로 보면 원주 5명, 강릉 3명, 춘천 2명, 평해 1명이었다. 원주, 강릉, 춘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세 지역이 강원도 출신 문과 합격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세 가지 시험에 동시에 합격한 사람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들 지역이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나았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강원지역에서 문과, 생원시, 진사시를 모두 합격한 최초의 인물은 1510년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고, 1516년에 문과에 합격한 심언경이었다. 심언경은 1531년에 대사헌, 1532년 예조참판, 1534년 이조판서를 거쳐 1536년에 의정부우찬성에 오른 인물이었다. 1525년에 식년시에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동시에 응시한 최연은 그 세 가지 시험에 모두 합격하였다. 최연은 1545년 도승지, 1547년 병조참판, 1548년 한성부판윤과 병조판서에 제수되는 등 두루 요직을 거친 인물이었다.

강원지역 출신 중에서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한 자 11명 중에서 8명이 3품 이상의 관직에 올랐다는 것은 이들이 그만큼 당시 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로 볼 수 있다. 앞서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 전체 중에서 3품까지 올라간 비율이 40%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품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들

강원지역 출신 소과 합격자 중에 문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인물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V-2> 강원지역 출신 중 문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으나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

성명	한자성명	출신지역	생년	생원시 및 진사시 합격년도
곽맹건	郭孟健	평해	?	1504
권련	權璉	강릉	?	1519
권사균	權士鈞	강릉	?	1507
원자겸	元自謙	원주	?	1480
원진규	元晉揆	원주	1679	1725
원후삼	元後參	춘천	?	1552
윤종직	尹宗直	춘천	1696	1727
이경집	李慶集	춘천	1599	1633
이덕배	李德培	춘천	1559	1589
이덕익	李德益	원주	1604	1639
이언기	李彦基	춘천	1681	1710
이태제	李泰齊	춘천	1643	1669
장계호	張繼顥	강릉	?	1496
조두년	趙斗年	강릉	1817	1864
조운	趙標	춘천	1621	1650
최윤문	崔允文	강릉	1556	1615

강원지역 출신 소과 합격자 중에서 문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소과의 두 시험인 생원시와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모두 16명이다. 생원시와 진사시는 식

년시와 증광시를 실시할 때 서로 다른 날 실시하기 때문에 동시에 응시하여 합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체 16명 중에서 거주지가 춘천 출신이 7명, 강릉 출신이 5명, 원주 출신이 3명으로 이들 세 지역에서 15명을 차지하였으며, 평해 출신이 1명을 차지하였다. 앞서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명단에서 확인하였지만, 이들 세 지역의 교육 여건은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좋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들의 합격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진 것들이 별로 없다. 생원시,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위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문과 급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건에서 이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소과 합격으로 끝났지만 3품 이상 관직에 오른 사람들

아래의 인물들은 소과에만 합격하였으나 천거 등의 경로를 통해 관리에 임용된 후 정3품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난 인물들이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보도록 한다.

<표 V-3> 소과에만 합격하였으나 3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된 자

성명	한자성명	합격당시 거주지	생년	합격시험	합격년도	최고품계
성운한	成雲翰	원주	1606	진사시	1635	종2품
이엽	李曄	양구	1602	진사시	1633	종3품
이하징	李夏徵	춘천	1686	진사시	1721	정3품

위의 표에 나타난 성운한, 이엽, 이하징은 소과에만 합격하였으나, 3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난 인물들이다. 우선 성운한은 1606년생으로 소과에 합격할 당시 거주지는 원주였다. 병자호란 이후에 은거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1650년부터 예빈시 봉사, 종부시직장, 기린도찰방, 광흥고주부를 거쳐서 안협현감을 역임하였다. 그 뒤 맏아들 성호징(成虎徵)의 공으로 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이 되고, 1685년 80세로 가선대부의 품계를 받고 돈지돈녕부사에 올랐다. 따라서 성운한의 경우 본인이 실질적으로 2품의 자리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들인 성호징의 경우 1666년(현종7) 식년시 문과 방목에 거주지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과방목에 나타난 거주지를 기준으로 강원지역 출신자를 분류하기 때문에 성호징을 분석대상에 넣지 않았으나, 정황상 성호징도 강원지역 출신일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하징은 1721년 진사시에 합격하였는데, 합격당시 거주지는 춘천이었다. 1721년 창릉주부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1725년 의영봉사, 1728년 지례현감, 1733년 호조좌랑, 1734년 호조정랑에 임명된 기록이 확인되며, 1737년 형조정랑, 한산군수, 1741년 전주판관, 1744년 능주목사를 거쳐 1748년에는 나주목사로 일하고 있는 것을 승정원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하징은 소론일파가 노론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역모 사건인 나주괘서사건에 연루되어 종성으로 유배되었다가 결국 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다.

이엽은 1633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는데, 합격당시 거주지는 양구였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상에서는 이엽의 관직명이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라고 나와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4. 장원급제자 출신자들의 이력

다음으로는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 중에서 장원급제를 했던 사람들을 확인해보도록 한다. 강원지역 출신 문과 장원급제자의 명단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V-4> 강원지역 출신 문과 장원 급제자

성명	한자성명	출신지역	생년	합격년도	시험종류	최고품계
권복	權馥	원주	1769	1817	정시	정3품
박대후	朴大厚	원주	1694	1728	정시	정6품
박인환	朴寅煥	춘천	1866	1880	알성시	정5품
박진량	朴震亮	원주	1682	1715	식년시	정5품
유치익	兪致益	철원	1822	1885	증광시	정2품
이덕령	李德齡	원주	1630	1669	식년시	정6품
이상빈	李尙馥	강릉	1584	1615	식년시	정5품
이시정	李時楨	원주	1568	1600	별시	정4품
이양신	李亮信	원주	1801	1849	식년시	관직 경력 확인 안됨
이휘항	李彙恒	양양	1695	1726	식년시	정5품
홍중효	洪重孝	원주	1708	1740	증광시	정2품

조선시대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 중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사람은 모두 11명이었다. 이 중에서 원주 출신이 7명이고, 춘천, 강릉, 철원, 양양에서 각 1명씩 장원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장원급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원주 출신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시대별로 보면 16세기까지가 2명이었던 것에 반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가 9명이었다. 이는 17세기 이후에 과거 합격자가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험별로 확인하면 식년시 장원이 5명, 증광시 장원이 2명, 별시 장원이 1명, 정시 장원이 2명, 알성시 장원이 1명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 중에 식년시와 증광시 합격자가 2/3 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

다. 합격 이후 품계로 보았을 때 3품 이상이 3명, 4~6품이 7명, 관직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1명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장원으로 급제하면 6품 이상은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급제한 사람들의 경우 11명 중 8명이 최고 품계가 3품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비해서 최고 품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래에서는 소과 장원 급제자들을 확인해본다.

<표 V-5> 강원지역 출신 소과 장원 급제자

성명	한자성명	출신지역	생년	합격년도	시험종류	시험과목
권기화	權基和	원주	1815	1844	증광시	진사시
권련	權璉	강릉	?	1519	식년시	진사시
신재복	申在復	원주	1739	1771	식년시	생원시
심익택	沈翼澤	춘천	1844	1880	증광시	진사시

강원지역 출신 소과에서 장원을 합격한 사람은 모두 4명이다. 이 중에서 원주 출신이 2명이고, 강릉과 춘천에서 각 1명씩 장원을 배출하였다. 이 중에서 진사시 장원이 3명, 생원시 장원이 1명이었다. 소과의 장원의 수가 문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소과의 실시회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과는 중시(重試)까지 포함해서 조선시대에 모두 808회 실시하였고, 합격자 수도 많아야 40명 정도이지만, 소과의 경우 생원시는 231회, 진사시는 212회를 실시하였으며, 합격자 수도 매 시험마다 100명이었다. 이 때문에 문과 장원 급제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장원으로 합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과 장원 입격자 4명 중에 권련의 경우 1519년에 생원시에도 동시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사시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던 권련은 같은 해 실시된 생원시에 3등 38위로 전체 합격자 100명 중 68위의 성적으로 합격하였다. 그러나 권련도 문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강원지역 소과 장원 급제자 4명 모두 문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왜 이들이 문과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기타 특이한 인물들

5.1 강원지역 출신 유일의 문신중시(文臣重試) 합격자 장의국(張義國)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 문과(文科)는 일반 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관리로 선발하는 시험이었으나, 중시(重試)의 경우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아니라 문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었다. 장의국은 1537년 생으로 1558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64년에 문과에 합격하였다. 합격당시 거주지는 김화(金化)였다. 그 후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로 있던 1586년에 문신중시에 병과 3위(전체 6명의 합격자 중 5위)로 급제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장의국에 관한 내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장의국은 창원의 부사(府使)로 일하고 있었다. 이 때 장의국에 대한 평가는 '나이는 들었지만, 잘 다스린다는 칭찬이 있다'는 것이 당시 실록에 나와 있는 평가였다. 그 때 이미 55세의 나이였기 때문에 당시 나이로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잘 다스린다는 평가 속에 창원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결국 많은 나이 때문에 이듬해인 1593년에는 조정에서 요충지인 창원을 맡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에는 창원 부사의 자리에서는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현재 장의국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의 전부이다.

5.2 이름을 고쳐서 합격된 후 발각되어 처벌받은 이만강(李萬江)

이만강은 1689년생으로 1719년에 증광시 생원시에 3등 59위(전체 89위)로 합격하고, 1725년에는 증광시 문과에 병과 7위(전체 44명 중 17위)로 합격하였으며, 생원시와 문과 합격당시의 거주지는 강릉이었다. 그런데 이만강의 경우 문과방목에서 이만강의 이름을 찾으면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며, 엄택주(嚴宅周)라는 이름을 검색해야 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만강은 자신의 이름을 엄택주라고 속이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기 때문이다.

이만강은 조부의 논죄로 인해 벼슬길이 막히자 엄택주로 개명하여 과거에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1729년에 교서박사에 임명되고, 찰방, 전적 등을 거쳤으며, 1739년에는 제주 판관을 지냈다. 그러다 1745년 이름을 개명하고 과거에 급제한 사실이 발각되었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부친의 묘에 성묘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강상의 윤리를 무너뜨렸다는 내용으로 탄핵을 당하였고, 후에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후에 나주괘서사건에 연루되어 결국 사형을 당하였다.

이만강의 사례 자체로는 그 자신이 훌륭한 일을 했다거나, 이만강의 사례를 알려서 후대 사람들이 본받을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신분을 속이고 과거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 과정 자체가 나름 탐구해 볼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조선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신분을 그렇게 숨기고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신분을 숨긴 상황이라면 여러 형편이 여의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 당시 강릉지역의 교육환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이 궁금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답을 내놓기는 어려우며, 조선후기 한국교육사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후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사학자들이나 강원지역사 연구자들이 연구업적이 충분히 축적된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VI. 맺음말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급제자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문과 급제자뿐만 아니라 소과(생원시, 진사시) 합격자들도 함께 확인하여 조선시대 강원지역의 과거와 교육에 대해 여러 사실들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 명단인 『국조문과방목』과 소과 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에 거주지가 강원도로 표기되어 있는 자들을 분석하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관찬자료를 중심으로 이들의 이력을 추적해보았다.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중 중복 합격자를 포함한 연인원은 모두 1873명이었다. 이 중에서 문과 229명, 생원시 856명, 진사시 78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229명은 조선시대 문과 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출신지역이 확인된 10,801명 중에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당시 강원도 인구가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인구비율 대비 합격자 비율을 따지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8도 중에 5위를 차지해서 그리 낮은 편이라 보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생원시, 진사시 합격자 중 중복 합격자를 제외한 실인원은 모두 1,735명이었다. 이 중 문과에만 급제한 사람이 118명, 문과와 생원시에 합

격한 사람은 61명, 문과와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은 39명,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11명이었다. 또한 생원시에만 합격한 사람은 768명, 진사시에만 합격한 사람이 722명, 생원시와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16명이었다.

강원도내 지역별로 확인해보면 모두 18개 지역에서 1명 이상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 중 원주가 84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여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그 뒤를 강릉 55명, 춘천 30명, 횡성 13명, 양양 11명 순이었으며, 다른 지역은 한 자리 수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원주, 강릉, 춘천 이 세 지역이 229명 중 169명을 배출하여 전체 합격자의 73.8%를 차지하였다. 소과의 경우도 원주, 강릉, 춘천 순으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였다. 원주는 생원시 297명, 진사시 29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강릉은 생원시 159명, 진사시 143명, 춘천은 생원시 110명, 진사시 114명을 배출하였다. 흡곡의 경우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단 한 명도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에서는 모두 85개의 성관에서 229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이 중 강릉 김씨가 17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안동 권씨, 초계 정씨, 강릉 최씨가 각각 12명의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5명 이상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성관은 모두 16개 성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과, 생원시, 진사시를 모두 합치면 모두 190개 성관에서 실인원 1,73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문과, 생원시, 진사시를 합쳐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한 성관은 모두 23개 성관이었다.

강원지역 과거시험 합격자의 시대별 분포를 확인해보면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문과의 경우 15세기에 5명, 16세기에 22명이 확인되었으나, 17세기에 60명, 18세기에 62명, 19세기에 80명의 문과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생원시의 경우 15세기까지 28명, 16세기 85명, 17세기 200명, 18세기 191명, 19세기 348명으로 증가하였다. 진사시는 15세기까지 5명, 16세기 58명, 17세기 141명, 18세기 186명, 19세기 392명으로 나타났다. 임진왜란 이후에 급격하게 합격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문과 합격자의 전력을 살펴보면 229명 중에 103명이 유학, 52명이 생원, 34명이 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전현직 관료로 표기된 것이 40명이었다. 또한 문과 합격자 229명 중에 문과에만 합격한 사람이 118명, 생원시에 합격 후에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 61명, 진사시에 합격한 후에 문과에 합격한 사람이 39명, 생원시와 진사시를 모두 합격한 후에 문과에 합격한 사람은 11명으로 나타났다. 문과 합격자 229명의 합격 시험별 분포를 확인해보면 229명 중에 식년시가 100명, 증광시가 57명, 별시가 26명, 정시가 35명, 알성시가 10명, 현량과가 1명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합격자들의 문과 합격시 평균 등수는 식년시가 19.7등, 증광시가 23.4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년시가 평균적으로 38명 정도를 선발하므로 이들의 평균 등수는 38.5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년시 합격자들의 평균 등수는 전국 평균에 거의 근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증광시의 경우에도 평균 등수보다 1등 정도는 낮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합격 성적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생원시는 856명의 합격자 중에 식년시 합격자가 580명 증광시 합격자가 276명이었다. 진사시의 경우 전체 788명의 합격자 중에 식년시 합격자가 497명, 증광시 합격자가 291명이었다. 강원지역 출신 합격자의 평균 등수는 생원시가 60.5등, 진사시가 61.7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험의 평균 등수는 59.5등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합격 등수는 1.2등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저히 낮은 점수라고는 보기 어렵다.

강원지역 문과 합격자의 합격 당시 평균 연령은 37.2세였으며, 생원시는 35.6세, 진사시는 34.1세였다. 또한 생원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합격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0.9년이었으며,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합격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8.9년이였다. 또한 생원시, 진사시에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문과에 합격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6년이였다.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들의 배출 규모나 비율, 합격 등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조선시대 당시 강원지역의 수준은 조선 전체의 교육 수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강원지역의 교육 수준은 조선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에 비슷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생원시, 진사시 합격 비율이나 식년시와 식년시가 아닌 시험의 합격 비율 등은 기존의 지방 유생들에 대한 연구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들의 급제 등급은 갑과 1위(장원급제)가 11명, 장원을 제외한 갑과 9명, 을과 32명, 병과 176명, 정과 1명으로 나타났다. 식년시의 경우 갑과 10%, 을과 15%, 병과 75%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년시의 경우 합격자

33명의 분포가 갑과 9.1%(3명), 을과 21.2%(7명), 병과 69.7%(23명)으로 구성된다.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갑과와 병과의 비율이 높고, 을과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출신 중에서 정1품까지 승진한 사례는 없었으며,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 중에 최고품계는 종1품 3명, 정2품 11명, 종2품 9명, 정3품 55명, 종3품 1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 중에 최고 품계가 확인되는 211명 중 44.5%는 3품까지는 승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1품까지 승진하는 사람들은 종1품까지 도달하는 데에 평균 32.3년이 소요되었으며, 정2품까지 승진하는 사람들은 종2품까지 승진하는 데에 21.5년, 종2품까지 승진하는 사람들은 종2품까지 승진하는 데에 평균 30.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합격자들 중에서 주목되는 인물들에 대한 이력도 확인하였다. 문과, 생원시, 진사시에 모두 합격한 11명과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한 16명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았다. 또한 소과 합격으로 끝났지만 3품 이상 관직에 오른 3명과 문과 장원급제자 출신 11명의 이력도 확인해보았으며, 기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들도 함께 조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의 과거제도와 관련된 현상들을 확인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당시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들도 간략히 점검해 보았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만으로는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오로지 강원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강원지역 만의 특징을 밝혀내기 어렵다. 강원지역 만의 특징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타 도와의 비교는 필수적이므로, 향후 타 지역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밝혀지면 이 연구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더욱 풍부하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제언

연구자는 본 연구가 좀 더 의미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이 연구는 기초 연구의 성격이 매우 강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 자체만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다. 과거제도 합격자와 관련하여 강원지역 출신자들에 관해 특정한 수치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의 상대적인 위치를 제대로 따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국 인구의 5% 미만의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다소 왜소해 보이나, 비율로 놓고 보면 생각보다 양호한 수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강원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를 계기로 타 지역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연구가 축적이 되어야 이 연구에서 나온 수치들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야 본 연구에서도 단순히 추정으로 머물렀던 부분들이 좀 더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 강원지역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강원지역 과거시험 합격자와 관련된 수치들을 살펴보면, 강원지역이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소외된 지역이라 보기 어렵다. 강원지역이 조선시대 교육을 선도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강원지역의 향교, 서원 및 기타 여러 교육기관들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제도는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계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제도는 어떤 사람이 교육받은 결과를 관리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제도와 교육제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각종 한국교육사 교재들에서 과거제도를 비중 있게 다루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원지역 교육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교육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조선시대의 강원지역의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를 정리하는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은 서로 유

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사실을 밝혀낸다고 해도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는 제반 분야의 연구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연구들이 부실하다면 의미 부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의미 부여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육이나 과거제도뿐만 아니라 강원지역의 타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서 여러 연구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강원학 연구 전반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강원도는 인구가 전반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 단위로 어떤 것을 파악하기도 수월한 편이므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 단위 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의 지역의 교육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시·군 단위의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강원도 단위와 시·군 단위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왕래가 불편한 강원도 지역의 특성상 지역별로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군 단위의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도 단위 연구가 결합된다면 강원지역 교육사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며, 강원학 연구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오류나 잘못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책임이다. 독자들의 제언과 질정을 바란다.

■ 참고문헌

- 원전(元典)

- 『經國大典』
- 『大典會通』
- 『科擧謄錄』
- 『課試謄錄』
- 『備邊司謄錄』
- 『承政院日記』
- 『試藝謄錄』
- 『朝鮮王朝實錄』
- 『學校謄錄』
- 『學校模範』

- 논문 및 단행본

- 김경용(2003), 과거제도와 한국 근대교육의 재인식, 교육과학사.
- 김경용(2003), 전근대 서구 지식인들의 시험제도에 대한 인식, 교육사학연구 13, 서울대학교 교육사학회.
- 김경용(2014), 조선의 교육현장, 박영스토리.
- 김기주(1986), 조선후기 문과급제자의 사회적 배경분석, 호남대학교 학술논문집 7(2).
- 김량수(1981), 무신증광방목(1848 A.D)의 분석연구, 논문집 14(1), 청주대학교.
- 김창현(2001), 조선초기 과거급제자의 출신배경: 문·무과 단회방목 분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3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박노석(2007), 조선시대 전주출신 문과 급제자 현황, 전북사학 30, 전북사학회.
- 박현준(2012), 조선시대 선악적 연구, 교육사학연구 23(1), 교육사학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7), 국역 각사등록66 강원도편(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7), 국역 각사등록67 강원도편(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7), 국역 각사등록68 강원도편(3),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7), 국역 각사등록69 강원도편(4),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송만오(2012), 조선시대 비정기 문과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검토(1): 별시, 정시, 알성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향토서울 8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월창애 외(2014), 조선시대 과거제도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이규복(2011), 조선시대 제주지역 문과운영과 급제자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무(2013), 17-18세기 지방유생의 과거응시 여건에 대한 재론: 『과거등록(科擧謄錄)』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3(1), 교육사학회.
- 이성무(1994),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 이원명(2004), 문과 급제자 거주지 분석: '주요성관'의 『문과방목』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73, 한국사학회.
- 이원재(2011), 과거공부를 알아야 우리 교육이 보인다, 문음사.
- 최진옥(2001), 조선전기 장원 급제자의 분석, 학술저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
- 피정만(2003), 강원교육사, 하우.
- 한영우(2013), 과거: 출세의 사다리(1), 지식산업사.
- 한영우(2013), 과거: 출세의 사다리(2), 지식산업사.
- 한영우(2013), 과거: 출세의 사다리(3), 지식산업사.
- 한영우(2014), 과거: 출세의 사다리(4), 지식산업사.

- 관련 사이트

-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 승정원일기 홈페이지: <http://sjw.history.go.kr>
-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A Study on Successful Applicants of Mungwa from Gangwon Province in Joseon Dynasty

Lee, Sang Mu

This study focused on the features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i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Chosŏn dynasty(朝鮮), especially applicants who lived in Gangwon province(江原道). Also, we tried to provide the education an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Gangwon province with providing the list of successful applicants who passed the Sogwa(小科). In this study, 『Gukjomunkwabangmok(國朝文科榜目)』, the list of people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Chosŏn dynasty was investigated and 『Chosonwangjosillok(朝鮮王朝實錄, The Annals of the Chosŏn dynasty)』, 『Seungjeongwon Ilgi(承政院日記,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in Chosŏn dynasty)』 were used to tracing the career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in Gangwon province.

During the period of Chosŏn dynasty, the annual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Gangwon province were 1,873, with the number of people who passed multiple examinations concurrently. Among these applicants, 229 persons were Munkwa(文科), 856 persons were Saengwonsi(生員試), 788 persons were Jinsasi(進士試). Considering that the population of Gangwon province was about 4.5 percent of the nation's population at that time, it can't be regarded as the high

proportion that 2.1 percent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However, considering the ratio of applicants to the provincial population, 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in Gangwon province is not considered to be low, 5th out of 8 provinces except Seoul, the capital of the Chosŏn dynasty.

There were 1,735 people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Gangwon province, without counting the number of people who passed these exams simultaneously. Among them, 118 applicants passed only the Munkwa, 61 applicants passed both Munkwa and Sangwonsi, 39 applicants passed both Munkwa and Jinsasi, and 11 applicants passed all these examinations. There were also 768 people who passed the Saengwonsi, 722 people who passed the Jinsasi, and 16 people who passed both these two kinds of the Sokwa.

In addition, there were 18 regions which have the successful applicants in Gangwon province. Among them, Wonju(原州) had 84 successful applicants, the majority of applicants who passed the Munkwa in Gangwon Province, followed by 55 applicants in Gangneung(江陵), 30 in Chuncheon(春川), 13 in Hoengseong(橫城) and 11 in Yangyang(襄陽). The three biggest cities in Gangwon: Wonju, Chuncheon and Gangneung had 169 successful applicants among 229 successful applicants in Gangwon. In the case of Sokwa, these cities also had the majority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Wonju had 297 in Sangwonsi, 292 in Jinsasi. Gangneung had 159 in Sangwonsi and 143 in Jinsasi, and Chuncheon had 110 in Sangwonsi, 114 in Jinsasi.

In Gangwon province, there were 229 successful applicants in 85 family clans. Among these clans, Gangneung Kim(江陵金氏) had 17 applicants that the highest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And Andong Kim(安東金氏), Chogye Chung(草溪鄭氏) and Gangneung Choi(江陵崔氏) had 12 applicants each. Also, 16 family clans produced over 5 applicants during the Chosŏn

period.

The number of people who passed the civil examina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17th century. The case of Munkwa, 60 applicants passed in 17th century, 62 applicants in 18th century, and 80 applicants in 19th century while 5 applicants in 15th century, 22 applicants in 16th century. In the case of Sangwonsi, 28 applicants were a success by 15th century, 85 applicants in 16th century. But, 200 applicants passed in 17th century, 191 in 18th century, and 348 in 19th century. At last, the case of Jinsasi, 63 applicants passed by 16th century but 141 applicants in 17th century, 186 applicants in 18th century, and 322 applicants in 19th century. The following studies are needed to explain this drastic increase of the number of successful applicant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ccording to the archival resources of the past career of these successful applicants, 103 applicants were Yuhak(幼學), 52 applicants were Sangwon, and 34 applicants were Jinsa. Also, 61 applicants passed the Munkwa after they got the Sangwon, and 39 applicants passed the Munkwa after they were a success in Jinsasi. There were 11 applicants who passed the Munkwa after achieving both Sangwonsi and Jinsasi.

The average of the ranking of applicants in Gangwon province was 19.7 in Siknyeonsi(式年試), and 23.4 in Jeunggwangsi(增廣試). Considering the average ranking, the ranking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in Gangwon might be considered as the close number of the national average. In the case of Sokwa, the average ranking of applicants in Gangwon was 60.5 in Sangwonsi and 61.7 in Jinsasi.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average ranking was 59.5, the average ranking of Gangwon province cannot be regarded as the significant low ranking.

The average age of the successful applicants in Gangwon province was 37.2 years old in Munkwa, 35.6 years old in Sangwonsi, and 34.1 years old in Jinsasi. In addition, it took 10.9 years on average to pass the Munkwa after succeeding in Sangwonsi. And 8.9 years was taken after achieving the Jinsasi. Also, 5.6 years was taken on average to pass the Munkwa after the applicants passed both the Sangwonsi and the Jinsasi simultaneously.

The education standards in Gangwon province during the Chosŏn period was not considered to very low-level considering the national standard of education in Chosŏn dynasty. Also, the proportion of the applicants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was presented the similar results to other research which dealt with the regionals standard of education in this period.

About the degree of people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Gangwon province, 11 applicants were in the first place in Gabgwa(甲科, the first grade), 9 applicants were in the first grade but the first place, 32 applicants were in the second grade(乙科), 176 applicants were in the third grade(丙科), and only one applicant was in fourth grade(丁科).

There was no one who promoted to the prime minister in Chosŏn dynasty among the successful applicants in Gangwon province. The highest rank of the officer among these applicants was the Jong 1th grade(宗1品). In addition, among 211 successful applicants from Gangwon province, 44.5 percent of those applicants were confirmed to reach the third highest rank of the officers(3品) in the Chosŏn dynasty.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results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Gangwon province. To investigate more deeply, the following studies are needed:

First, comparative provincial research about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the following studies about the education in Gangwon province during the period of Chosŏn dynasty are needed. Third, historical research about the diverse field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is needed. At last, more diverse research on education at the regional level such as the city or the county is needed.

■ 부록

강원도 지역 출신 문과 합격자들의 주요 관직 기록

본 부록에서는 강원지역 출신 문과 급제자들의 주요 이력을 추적하였다. 다시 한 번 밝혀두지만, 여기서 강원지역 출신이라 함은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인 문과 방목에 거주지가 강원도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문과방목에 다른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부득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자기 고장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여기에서는 이름, 성관, 생년, 생진시 합격연도 및 등수, 문과 합격연도 및 등수, 주요관직을 확인하였다. 주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주요 관찬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아무래도 관찬자료가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에 등재되어 있거나 혹은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경우 해당 내용을 각주로 표기하거나, 내용에 포함시켰다.

고응화(高應華, 1723-?)

본관 제주, 거주지 강릉, 1777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7위, 전체 27위)
1777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고형산(1453-1523)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횡성, 거주지 횡성, 1480년 생원시 3등 25위(전체 55위)로 합격, 1483년 식년시 문과 합격(병과 21위, 전체 31위).

성종 대에 지평현감과 승훈랑을 거쳐, 연산군 6년인 1500년에 사헌부장령에 임명되었다. 중종반정 이후인 1507년에 함경도관찰사, 1510년에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1511년에 강원도관찰사를 거쳐 중종 16년인 1521년에 우찬성에 이르렀다.

조광조(趙光祖) 일파의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한 사람으로 현량과(賢良科)의 실시 등을 극력 반대하였으며, 1519년 남곤(南袞) 일파와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신진세력을 축출하였다.

곧고 근검한 성품으로 수리(數理)에 밝아 행정능력이 뛰어났다. 뒤에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시호는 익평(翼平)이다.

곽건(1562-?)

본관 청주, 거주지 원주, 1601년 식년시 문과 합격(갑과 3위, 전체 3위).

선조 37년(1604)에 성균관 전직에 임명되었다.

구명원(具明源, 1768-?)

본관 능성, 거주지 홍천. 1798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0위, 전체 20위)

1708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04년 감찰을 거쳐 1807년 정언을 지냈으며 1810년 병조정랑에 제수되었다. 영해부사를 거쳐 1821년 우통례를 지냈다.

권국형(權國衡, 1741-?)

본관 안동, 거주지 횡성. 1708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5위, 전체 15위)

1737년 참봉에 제수되었다. 이후 직장을 거쳐 1740년 상의별제가 되었으며 같은 해 정언에 임명되었다. 1798년 전직에 임명되었으며 1800년에는 장릉령을 지냈다.

권덕훈(權德訓, 1712-?)

본관 안동, 거주지 고성(高城), 1763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21위, 전체 31위)

1763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전직에 올랐으며 1765년에는 직강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에 예조좌랑을 지냈으며 병조좌랑을 거쳐 1766년 강원도사에 임명되었다. 1773년 정언을 지냈으며 1780년에는 장령을 거쳐 좌통례에 임명되었다.

권복(權馥, 1769-?)

본관 안동, 거주지 원주, 1817년 문과 정시 장원

1817년 전직에 임명되었으며 병조좌랑, 지평을 거쳐 1821년 함평현감에 제수되었다. 1823년 병조정랑을 거쳐 필선, 사복시정 등을 지냈으며 1826년 부교리에 임명되었다. 1829년 사성을 지낸뒤 김해부사를 거쳐 1831년 대사간에 올랐으며 1835년에 흥주목사, 병조참지를 지냈다.

권봉규(權鵬圭, 1841-?)

본관 안동, 거주지 원주, 1870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18위, 전체 21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서동(權瑞東, 1696-?)

본관 안동, 거주지 강릉, 영조 3년(1727) 증광시 생원시 입격(1등 3위, 전체 3위), 같은 해 증광시 문과 합격(병과 8위, 전체 18위).

영조 3년(1727) 가주서로 벼슬길에 올랐으며, 영조 10년(1734)에 예조좌랑, 영조 16년(1740)에 병조좌랑을 거쳐 황해도사로 임명되었다. 영조 30년(1754)에 병조정랑을 거쳐 서산군수에 오른다. 영조 37년(1761) 사헌부장령, 39년(1763) 우통례를 역임하였다.

권섭(權燮, 1671-1759)

본관 안동, 거주지 횡성. 1804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2위, 전체 22위)

1805년 가주서를 지냈으며 1814년 전직을 지냈다.

권식(權炆, 1753-?)

본관 안동, 거주지 원주, 정조 7년(1783) 증광시 생원시 입격(2등 21위, 전체 25위), 정조 14년(1790) 증광시 문과 합격(병과 9위, 전체 19위).

증조부는 권두선(權斗璿)이고, 조부는 권익순(權益淳)이며, 부친은 권만형(權萬衡)이다. 형 권흡(權煥)과 동생 권엽(權燁)·권익(權爨)이 있다.

1790년 율릉별검(元陵別檢)으로 처음 관직에 나갔으며, 1795년 가주서를 거쳐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이후 1798년 병조정랑, 1801년 황해도사를 거쳐 정언에 올랐으며 1804년 지평, 1808년 직강, 헌납, 부교리를 역임하였다. 이후 1812년 강릉부사를 거쳐 1814년 공조참판,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에 올랐다.

권종윤(權鍾崙, 1813-?)

본관 안동, 거주지 강릉. 1879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4위, 전체 34위)
1879년 가주서, 1880년 전직에 올랐다. 1885년에 형조참의에 임명되었다.

권칭(權稱, 1580-164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안동, 거주지 강릉. 1627년 식년 생원시 입격(3등 22위, 전체 52위), 1629년 문과 별시에 합격하였다(병과 16위, 전체 22위).

기량과 식견, 문예에 일찍부터 뛰어났으며, 새벽마다 가묘(家廟)에 참배한 뒤에야 관청에 출근하였다. 인조 8년(1630)에 공조좌랑, 호조좌랑을 역임했으며 바로 같은 해 경상도사로 임명되었다. 1639년에 형조정랑으로 돌아와 1641년 직강, 1643년 성균관사예에 오른다.

권팽로(權彭老, 164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안동, 거주지 원주, 1681년 식년시 문과 합격(을과 4위, 전체 7위)

1682년 학유로 임관되어, 1688년 검춘추를 거쳐 1694년 형조정랑에 이르렀다.

권험(權僉, 1787-?)

본관 안동, 거주지 원주. 1827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8위, 전체 12위)

1827년 가주서에 임명되어 전직, 태안군수를 차례로 지냈다. 1832년 필선을 거쳐 경기도사, 장령, 사복정을 지냈으며 1845년에 집의에 오른다. 1847년 헌납, 수찬을 거쳐 사성, 사간에 올랐다. 1848년 병조참지에 올랐으며 이듬해 영광군수에 제수되었다.

권흥익(160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안동, 거주지 강릉, 1633년 증광 생원시 입격(3등 49위, 전체 79위), 1639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11위, 전체 15위)

1641년 학유로 임명되었다. 1641년 거주서에 올랐으며 1649년 예조좌랑, 경상도사를 거쳐 1650년 형조좌랑으로 임명되었다.

길현범(1788-?)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해평, 거주지 춘천, 1811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11위, 전체 15위)

1811년 거주서를 거쳐 1813년 직강에 임명되었으며, 1825년에는 평안도사를 역임하였다. 이후 1834년 병조좌랑에 올랐으며 1837년 예조좌랑을 거쳐 1852년 병조참지에 임명되었다.

김경직(1569-?)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선산, 거주지 춘천, 1590년 증광 진사시 입격(2등 4위, 전체 9위), 1610년 식년시 합격(병과 12위, 전체 22위).

1625년 병조좌랑에 임명되었으며, 1630년 영천군수와 사예를 거쳐 1631년 사도시정에 임명되었다.

김광백(金光白, 156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603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5위, 전체 10위), 1612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2위, 전체 22위)

1614년 비인현감(庇仁縣監)에 재임 중이었음이 확인됨.

김광우(金光遇, 1708-?)

본관 김해, 거주지 원주, 1738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7위, 전체 22위), 1763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37위, 전체 47위)

1749년 해주판관에 임명되었으며, 1763년 거주서를 거쳐 1768년 예조좌랑, 예조정랑

을 거쳐 1779년 지평에 임명되었다. 이후 1792년 전적을 거쳐 충청도사에 올랐다.

김광진(金光軫, 149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519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41위, 전체 71위), 1526년 문과 별시 합격(을과 1위, 전체 2위).

1531년에 사간원정언에 임명된 것이 최초로 보이는 관직 경력이다. 이후 1532년 사간원정언을 거쳐 헌납, 지평을 지냈고 1532년에는 바로 홍문관부응교에 임명되었다. 이후 정4품인 세자시강원필선(世子侍講院弼善)을 거쳐 1537년에는 홍문관직제학에 올랐다.

중종 이후 명종 때에는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와 충청도관찰사, 전주부윤 및 함경도관찰사를 거쳐 1557년에는 지중추부사에 올랐다. 이후 호조참판과 1567년 개성부유수를 역임하였다.

김광철(金光轍, 1493-1550)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507년 식년시 생원 입격(1등 2위, 전체 2위), 1513년 별시 합격(병과 2위, 전체 4위)

1529년 밀양현감, 1530년 군자감첨정이 되고 이듬해 장령이 되었다. 1533년 판교·동부승지·좌부승지를 거쳐 이듬해 우승지·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535년 장례원판결사로 동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뒤, 1537년 병조참지가 되었다.

같은 해 충청도관찰사가 되었으나, 간원으로부터 인물됨이 용렬하고 공문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탄핵을 받았다. 1542년 안동부사로서 흉년을 힘써 구제하고 검소함을 강조해 백성들을 잘 살게 했으므로, 이 공으로 포상을 받고 지급(資給)을 올려받아 가의대부가 되었다.

1543년 한성부우윤이 되고 1545년(인종 1) 종부시제조가 되었다. 이후 예조참판이 되어 『중종실록(中宗實錄)』과 『인조실록(仁祖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547년 첨지중추부사를 거쳐 동지중추부사가 되었다.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양하니, 왕이 불러 흉년과 백성들의 기근 구제에 힘써줄 것을 특별히 요구하였다.

김기승(金耆升, 1783-?)

본관 청주, 거주지 고성. 1822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1위, 전체 31위)

1823년 사변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28년 병조좌랑을 거쳐 1833년에 함경도사에 임명되었으며 1836년에는 직강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사예를 거쳐 전라도사를 지냈으며 1843년 병조좌랑에 올랐다. 1844년 황산찰방을 지냈다.

김낙두(金洛斗, 1813-?)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831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6위, 전체 36위)

1831년 가주서에 임명되어 1840년에는 전직, 직강을 지냈다. 1842년 찰방을 거쳐 1845년에 전라도사, 1848년 강원도사에 부임했다. 1854년 황해도사, 1857년 봉상주부를 거쳐 1862년에는 장령에 임명되었다. 1857년 봉상주부, 1862년 장령을 거쳐 1864년에 다시 봉상주부로 임명되었다.

김남재(金南載, 1875-?)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889년 문과 알성시 합격(병과 4위, 전체 7위)

1889년 사변가주서에 임명되었다.

김몽좌(金夢佐, 1688-1728)

본관 원주, 거주지 횡성.

1721년(경종 1) 증광시에서 진사 3등 35위로 합격하였고, 같은 해에 증광시에서 병과 11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1725년 교서박사, 내섬시직장, 시릉관을 거쳐 1726년 무장현감(茂長縣監)에 부임하였다.

김몽호(金夢虎, 1557-?)

본관은 강릉(江陵), 거주지 강릉. 1582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53위, 전체 83위), 1609년 증광시 합격(병과 1위, 전체 11위)

1582년(선조 15) 진사가 되고, 1609년(광해군 1)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공조정랑·호조좌랑·지평을 역임하였다. 1613년 정언 등을 역임하고, 이듬해 장령을 거쳐 1623년 공조참의를 역임하였다.

김백형(金伯衡, 생몰년 미상)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447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11위, 전체 41위), 1469년 문과 증광시 합격(을과 3위, 전체 6위).

1465년(세조 11)에 적성 현감(積城縣監)에 재직 중이었음이 확인됨.

김병연(金秉淵, 1749-?)

본관 김해, 거주지 강릉. 1792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7위, 전체 17위)

1792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02년 강원도사를 거쳐 1807년 병조좌랑, 1808년에 정언을 지냈다. 이후 이조좌랑을 거쳐 별제, 찰방을 지낸뒤 1847년 영릉참봉, 1824년에 하양현감에 부임하였다.

김상적(金尙績, 1577-?)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603년 식년 생원시 입격(3등 30위, 전체 60위), 1609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1위, 전체 21위).

1626년 공조정랑, 찰방을 거쳐 1629년에 의성현령, 형조정랑, 1631년에 다시 공조정랑에 올랐다.

김선(金銑, 1750-?)

본관 연안, 거주지 원주, 1794년 문과 알성시 합격(병과 1위, 전체 4위)

1794년 급제 후 수찬에 올랐으며, 교리를 거쳐 이듬해 교리, 병조정랑을 지냈다. 이후 1797년 직강, 헌납을 역임하였다. 순조 즉위 이후 전적(典籍)·예조좌랑 등을 거쳐 1806년(순조 6)에 대사간을 지냈으며, 호조참판(1812년)을 지낸 뒤 1817년 관상감제조를 역임하였다. 1822년에는 성균관대사성에 올랐으며 지춘추, 동의금을 거쳐 1829년 형조판서, 1833년 한성부판윤에 올랐다.

김성준(金聖準, 1735-?)

본관 청풍, 거주지 춘천. 1774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22위, 전체 32위)

1774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780년 별검을 거쳐 1786년 전적을 지냈으며 1788년 흥

양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이듬해 정언을 거쳐 비인현감을 지냈으며 1795년 돈녕도정에 임명되었다.

김속(金漑, 1629-?)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654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3위, 전체 18위), 1673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0위, 전체 20위).

1674년 가주서에 임명되면서 관직을 시작하였다. 이후 동학훈도, 감찰, 직강을 거쳐 1685년에 성균관사예에 올랐다. 이후 1689년 제주판관, 1696년에는 사도시 정을 거쳐 우통례(右通禮)에 임명되었다.

김시중(金始重, 1631-?)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660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8위, 전체 23위), 1669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7위, 전체 10위)

1671년 가주서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1673년에는 성균박사, 전적을 지냈다. 이듬해에는 병조좌랑, 황해도사를 역임했으며 1680년에 성균관직강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1680년 울진현감, 1681년 정포만호를 역임하였다.

김시휘(金始徽, 1650-1704)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678년 증광시 생원 입격(2등 4위, 전체 9위), 1678년 증광시 합격(병과 20위, 전체 30위)

1678년 문과 급제 이후, 가주서를 거쳐 1683년 감찰, 황해도사를 지냈다. 이후 1686년 성균관 직강, 함경도사를 지냈으며 1696년에는 자인현감, 1701년에는 평안도사에 임명되었다.

김양성(金養誠, 1581-?)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615년 식년시 진사 입격(2등 9위, 전체 14위), 1627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4위, 전체 14위)

1629년 봉상시참봉에 임명되었으며, 1639년에 전적, 형조좌랑을 거쳐 이듬해에 형조정

랑에 임명되었다. 1641년에 진해현감, 봉상첨정을 거쳐 1650년 다시 전직에 임명되었다.

김의민(金義民, 생몰년 미상)

본관 정선, 거주지 강릉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공조좌랑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해당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응하(金應夏, 1708-?)

본관 강릉, 거주지 원주, 1843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33위, 전체 43위)

1844년 가주서에 올랐으며 1847년 지평에 임명되었음.

김중식(金中植, 1842-?)

본관 청풍, 거주지 춘천. 1880년 증광시 생원 입격(3등 19위, 전체 49위), 1882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10위, 전체 14위)

1882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전직, 주서를 거쳐 남학교수를 지냈으며 1884년 헌납, 부교리를 지냈다. 1890년까지 수찬, 부교리에 재임하다 1891년 병조참지에 임명되었으며 1891년에 이조참의에 오른다. 이듬해 공조참의에 임명되었다.

김지안(金志顔, 1588-?)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618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61위, 전체 91위), 1653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2위, 전체 6위)

1626년 장사랑(將仕郎)에 임명되었다. 문과급제 후 1654년에 형조좌랑에 올랐으며, 이듬해 공조정랑에 제수되었다. 이후 1656년 봉상첨정을 거쳐 1653년 김제군수에 올랐다.

김지연(金之沆, 1629-1657)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651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8위, 전체 28위)

1652년 학유에 임명되었다. 1654년 성균관 박사를 거쳐 이듬해 전직, 공조좌랑을 역임

하였다. 이후 1656년 기사관(記事官)을 거쳐 이조좌랑에 올랐고, 1657년에는 동학교수를 겸하였다.

김종호(金宗虎, 1787-?)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814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3위, 전체 13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택민(金澤珉, 1721-?)

본관 경주, 거주지 강릉. 1777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위, 전체 11위)
1777년 사변가주서에 임명되었으며 1783년에 전적을 지냈다.

김흥섭(金鴻燮, 1860-?)

본관 청풍, 거주지 양구. 1880년 문과 정시 합격(을과 1위, 전체 2위)
1880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김희진(金熹鎭, 1848-?)

본관 청도, 거주지 양구. 1885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3위, 전체 23위)
1885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88년 전적에 올랐으며, 지평, 병조좌랑을 거쳐 1889년
다시 전적에 임명되었다.

남석(南?, 1836-?)

본관 영양, 거주지 삼척, 1865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3위, 전체 6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중경(盧重慶, 1762-?)

본관 광주(光州), 거주지 양양. 1805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7위, 전체 27위)
1805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07년 수봉관을 거쳐 이듬해 주부에 올랐으며 1811년
전적에 임명되었다.

민사겸(閔思謙, 1595-1662)

본관 여흥, 거주지 강릉, 1648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위, 전체 6위), 1654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위, 전체 12위)

1655년 성균관전적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남학교수를 거쳐 사헌부감찰이 되었다.

민정수(閔鼎秀, 1770-1862)

본관 여흥, 거주지 원주. 1792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4위, 전체 34위), 1802년 문과 정시 합격(을과 1위, 전체 2위)

1802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11년 전적에 올랐으며 같은 해 병조정랑에 임명되었다. 1813년에는 이조정랑을 지냈으며 이듬해 장령을 거쳐 1816년 우통례에 임명되었다. 이후 좌통례, 병조참지를 거쳐 1820년 공조참의에 올랐다. 이후 1828년 영월부사로 부임했다.

박경원(朴慶元, 1575-?)

본관 영암, 거주지 춘천. 1605년 증광시 생원 입격(3등 56위, 전체 86위), 1624년 문과 식년시 합격(갑과 2위, 전체 2위)

1628년 전라도사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1631년에 형조정랑, 통훈대부를 거쳐 1641년에 진해현감으로 부임하였다. 1645년에는 직강에 올랐으며 이듬해 풍기군수가 되었다.

박공달(朴公達, 1470-?)⁹⁾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495년 증광시 생원 입격(3등 6위, 전체 36위), 1519년 현량과 합격(병과 4위, 전체 8위).

박대유(朴大有, 1712-?)

본관 고령, 거주지 횡성. 1747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1위, 전체 31위), 1752년 문과 정시 갑과 장원,

9) 조선 중종(中宗) 때의 문신. 병조좌랑(兵曹佐郎), 승문원 교검 등을 지냈으며,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사림(士林)에 화가 미치자 벼슬에서 물러나 삼가(三可) 박수량(朴遂良)과 함께 경학강의를 하며 여생을 보냈다.

1753년 가주서를 거쳐 1757년에 찰방, 1760년에는 병조좌랑에 올랐다. 이후 이조좌랑과 지평, 정언을 거쳐 1764년에는 이조정랑에 올랐으며 1769년에 우부승지에 임명되었는데 종부정(宗簿正)을 겸하였다.

박대후(朴大厚, 1694-?)

본관 밀양, 거주지 원주. 1723년 증광시 생원 입격(1등 5위, 전체 5위), 1728년 문과 정시 장원, 1728년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

박돈양(朴墩陽, 1847-?)

본관 반남, 거주지 철원. 1885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36위, 전체 39위).

1885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1890년 성균관전적을 거쳐 중학교수(中學教授)를 지냈으며 교리를 거쳐 1892년 지평(持平)에 올랐다. 그 해 12월에 수찬(修撰)에 임명되었으며 1894년에는 동부승지로 재직하였다.

박문빈(朴文彬, 1848-?)

본관 밀양, 거주지 금성. 1870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7위, 전체 10위)

1874년 율봉찰방에 임명되었다. 이후 좌랑을 거쳐 1880년 지평에 올랐으며 같은 해 예조정랑, 병조좌랑을 지냈다. 이듬해인 1881년에는 이조좌랑을 지냈다.

박사묵(朴師默, 1736-?)

본관 밀양, 거주지 원주. 1778년 문과 알성시 합격(을과 1위, 전체 2위)

1778년 사변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783년 수봉관을 거쳐 사록에 임명되었다. 이후 1785년에 병조좌랑, 1787년에 정언을 거쳐 1791년에 이조좌랑이 되었으며 이후 수찬, 부수찬을 거쳐 1793년 흥해군수로 임명되었다.

박인환(朴寅煥, 1866-?)

본관 경주, 거주지 춘천. 1880년 문과 알성시 장원

1881년 예조정랑에 임명되었다. 1885년 지평을 거쳐 정언, 형조좌랑을 지냈으며 1890

년에 지평에 임명되었다.

박종윤(朴宗潤, 1683-?)

본관 밀양, 거주지 원주. 1717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13위, 전체 43위), 1719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0위, 전체 20위).

1721년 가주서에 올랐다. 이듬해 장녕전별검, 전적을 거쳐 1724년 예조좌랑에 올랐다. 1725년에 예조정랑을 거쳐 황해도사를 지냈으며 1731년 병조정랑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다시 충청도사, 1735년 함경도사를 거쳐 1741년에 종부시정에 임명되었다.

박진량(朴震亮, 1682-?)

본관 밀양, 거주지 원주. 1715년 문과 식년시 장원

1715년 성균관전적에 임명되었다. 3년 뒤에 예조좌랑, 성균관직강을 지냈으며 1726년에 문겸(文兼)에 올랐다. 1727년 음성현감에 임명되었다.

박창윤(朴昌潤, 1699-?)

본관 밀양, 거주지 원주. 1729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42위, 전체 72위), 1735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5위, 전체 15위)

1735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찰방을 거쳐 1745년 전적에 올랐으며 같은 해 예조정랑에 임명되었다. 1748년 지평에 올랐으며 이조정랑을 거쳐 1751년에는 헌납에 올랐다. 1757년 집의를 거쳐 승지를 지냈으며, 형조참의와 강계부사를 지냈다. 1760년 형조참지로 제수되었으며 1763년에 병조참의, 같은해 능주목사로 부임하였다.

박해윤(朴海潤, 1696-?)

본관 밀양, 거주지 원주. 1721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54위, 전체 84위), 1735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6위, 전체 16위)

1735년 가주서를 거쳐 1744년 예조좌랑에 임명되었다. 1746년 사예를 지내고 형조좌랑을 거쳐 1751년에 황해도사로 부임하였다. 1761년에 사성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장령을 지냈다. 그 해 좌통례로 임명되었다.

박희인(朴羲寅, 1861-?)

본관 죽산, 거주지 금성. 1888년 문과 정시 합격(을과 1위, 전체 2위)

1888년 가주서를 거쳐 이듬해 전적에 올랐다. 1890년 지평, 정언, 병조좌랑을 지냈으며 1894년에 은계찰방에 임명되었다.

변진국(邊鎭國, 1694-?)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726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6위, 전체 16위)

1732년 찰방에 임명되었으며 중학훈도를 거쳐 1737년 주부, 1738년 정릉령에 임명되었다. 1748년에 전적에 올랐으며 같은 해 찰방에 임명되었다.

서명우(徐命遇, 1666-?)

본관 대구, 거주지 춘천. 1702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29위, 전체 59위), 1702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3위, 전체 6위)

1703년 가주서에 임명되었으며 1706년에 예조좌랑, 병조좌랑을 거쳐 강동현감에 임명되었다. 1709년에 정언에 올랐으며 병조좌랑, 경상도사를 거쳐 1710년 병조정랑, 지평을 지냈다. 이후 1712년 장령을 거쳐 1722년 사복시 정, 1725년에는 병조참의에 임명되었다.

성운한(成雲翰, 1606-?)¹⁰⁾

본관 창녕, 거주지 원주. 1635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38위, 전체 68위)

1650년 사재감참봉에 올랐으며 이어 예빈시봉사·종부시직장·기린도찰방(麒麟道察訪)·광흥고주부(廣興庫主簿)를 거쳐 안협현감으로 재직하였다. 그 뒤 1685년(숙종 11) 80세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받고, 동지돈녕부사에 올랐다.

10) 1635년(인조 13)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였으며, 이듬해의 병자호란 이후로는 산촌에 은거, 몇 번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50년(효종 1) 사재감참봉에 제수되고, 이어 예빈시봉사·종부시직장·기린도찰방(麒麟道察訪)·광흥고주부(廣興庫主簿)를 거쳐 안협현감으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 그 뒤 만아들 성호징(成虎徵)의 공으로 첨지중추부사 겸 오위장(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이 되고, 1685년(숙종 11) 80세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받고, 동지돈녕부사에 올랐다.

성호겸(成好謙, 1790-?)

본관 창녕, 거주지 원주. 1822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5위, 전체 8위)

1822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1824년 별검을 거쳐 1826년에 전직에 임명되었으며 감찰을 거쳐 1827년에는 정언을 지냈으며 1835년에 장령에 올랐다. 1842년에 사간이 되었으며 교리를 거쳐 1845년 병조참지가 되었다. 이후 영월부사를 지내다 1854년 병조참판에 올랐다.

손병주(孫秉周, 1781-?)

본관 경주, 거주지 원주. 1816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48위, 전체 78위), 1823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2위, 전체 6위)

1823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26년에 찰방을 거쳐 1828년 전직에 올랐으며 1832년에 지평, 1835년에 이조좌랑에 임명되었다.

신용연(申用淵, 1759-1827)

본관 영해(寧海), 거주지 원주(原州), 정조 16년(1792) 생원, 진사시 동시 입격(생원시 56위, 진사시 78위), 순조 3년(1803) 증광시 문과 합격(병과 2위, 전체 12위).

1803년 4월에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로 임명되었다. 1812년에는 전직, 1814년에는 직강(直講)에 올랐고, 1819년에는 장령(掌令)에 이르렀다. 1825년에 유곡찰방(幽谷察訪)에 임명되었으나, 1827년 사망하였다.

신재화(申在和, 1742-?)

본관 평산, 거주지 원주. 1773년 증광시 생원 입격(3등 30위, 전체 60위), 1794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42위, 전체 45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신태동(申泰東, 1846-?)

본관 평산, 거주지 원주. 1873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2위, 전체 5위)

1874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85년 전직에 올랐으며 1891년에는 수문장을 역임하였

다. 이후 1893년에 인제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심관섭(沈觀燮, 1843-?)

본관 청송, 거주지 양구. 187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5위, 전체 25위)

1872년 가주서에 올라 1875년 예조좌랑을 지냈다. 이후 장령을 거쳐 1880년 충청도사에 오른다. 1886년 성균사예로 임명되었으며 1889년 전직에 부임한다.

심동규(沈東奎, 1776-?)

본관 청송, 거주지 흥천. 1805년 증광시 생원 입격(3등 2위, 전체 32위), 1835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23위, 전체 33위)

1832년 선릉참봉에 임명되었으며 1835년 가주서를 거쳐 정언에 임명되었다. 이후 1838년 함평현감으로 부임하였다.

심산보(沈山甫, 생몰년 미상)

본관 삼척, 거주지 강릉. 1447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22위, 전체 27위), 1453년 문과 증광시 합격(정과 9위, 전체 19위)

1435년까지 함열현감을 지냈으며, 1462년에 지평에 임명되었다.

심보영(沈普永, 1743-?)

본관 삼척, 거주지 강릉. 1794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37위, 전체 40위)

1797년 강원도사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1798년 정언, 1801년 지평 등을 지냈다.

심언경(沈彦慶, 생몰년 미상)

본관 삼척, 거주지 강릉, 1510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7위, 전체 22위), 진사 입격(3등 12위, 전체 42위), 1516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1위, 전체 4위)

1520년 사간원 정언에 임명되었으며 1522년에 헌납에 올랐다. 이듬해 지평이 되었으며 1525년에는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집의, 부응교를 거쳐 1530년(중종 25)에 우부 승지에 제수되었다. 1531년에 대사헌, 1532년에는 예조참판, 1533년에는 이조참판에

임명되었다. 1534년에 이조판서, 1536년에 의정부우찬성에 올랐다.

심언광(沈彦光, 1487-?)¹¹⁾

본관 삼척, 거주지 강릉, 1507년 식년시 진사 입격(1등 4위, 전체 4위), 1513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5위, 전체 8위), 심언경의 동생이다.

1507년(중종 2)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1513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에 보임되었다. 그 뒤 지평(持平)·정언(正言)·장령(掌令)·홍문관교리·집의(執義) 등을 지냈다.

1530년에 사간원대사간에 올랐으며 이후 강원도관찰사, 홍문관부제학을 거쳐 1533년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1536년 이조판서, 공조판서를 역임했으나 이듬해 함경도관찰사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바로 1537년에 다시 우참찬에 오르게 된다.

심연한(沈連漢, 1731-?)

본관 청송, 거주지 춘천. 1763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40위, 전체 50위)

1763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심일희(沈一羲, 1678-?)

본관 청송, 거주지 흥천, 1711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3위, 전체 13위)

1712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716년 전적을 거쳐 직강, 예조좌랑을 역임했다. 1721년 감찰을 거쳐 경성판관(鏡城判官)을 지냈다. 1727년 전적, 병조정랑, 풍기군수에 제수받았으며 이후 경상도사, 봉상정을 거쳐 1737년에 공조참의에 이르게 된다.

11) 1507년(중종 2)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어서 1513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에 보임되었다. 그 뒤 호당(湖堂)에 들어가 사가독서하면서 문명을 날려, 지평(持平)·정언(正言)·장령(掌令)·홍문관교리·집의(執義) 등의 청요직을 두루 지냈다. 언관을 역임하면서 국방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하였고, 국가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심정(沈貞)을 비롯한 권간들의 횡포를 탄핵하였다. 1530년 대사간이 되어서는 형 심언경과 함께 김안로(金安老)의 등용을 적극 주장, 실현시켰다. 그러나 김안로가 조정에서 실권을 장악하면서 봉당을 조직하고 대옥(大獄)을 일으켜 사람들을 모함하자, 비로소 지난 날 자신의 추천행위를 후회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김안로가 자신의 외손녀를 동궁비로 삼으려 하자 이를 질책하였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겼다. 1536년 이조판서가 되고, 이어서 공조판서를 역임하면서 김안로의 비행을 비판하자 김안로의 미움을 받아 이듬해 함경도관찰사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곧 김안로와 그 일당이 축출되자, 우참찬에 올랐다. 인종이 즉위하여 대운(大尹)일파가 집권하면서 항배가 바르지 않다고 탄핵을 받아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그 뒤 복관되었으며, 시·서·화에 능하였다. 시호는 문공(文恭)이다.

심후택(沈厚澤, 1858-?)¹²⁾

본관 청송, 거주지 춘천, 1891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17위, 전체 20위).

1891년 홍문관교리에 임명되었다. 이후 집의, 평안도경시관, 궁내부 참서관(宮內府參書官)을 거쳐 1898년에는 주차아법오공사관 2등참서관(駐筭俄法奧公使館二等參書官)에 임용되었다. 1900년에 경흥부윤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길주감리 겸 길주부윤, 주임관 2등에 서임되었으며 성진감리를 지냈다. 품계는 정2품이었다.

안기원(安基元, 1877-?)

본관 순흥, 거주지 원주. 1891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12위, 전체 15위)

동몽교관을 지냈으며 1891년에 가주서로 임명되었다.

양만고(楊萬古, 1574-?)¹³⁾

본관 청주, 거주지 강릉, 1603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1위, 전체 16위), 1610년 문과 알성시 합격(을과 1위, 전체 2위)

1625년 무장현감에 임명되었으며 같은해 형조정랑에 올랐다. 부사직과 판교를 거쳐 1639년에 군자감 정, 1640년에는 사복시 정에 올랐다. 이후 영해부사를 거쳐 1644년 인천부사, 그리고 1648년에는 우통례에 임명되었다.

엄택주(嚴宅周, 1689-?)¹⁴⁾: 초명(初名) 이만강(李萬江)

12) 부친은 심익립(沈宜立)이다. 1891년(고종 28)에는 관학유생(館學儒生)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제(應製)에서 부(賦) 분야의 수석을 차지하여 전시(殿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이후 정시 문과에서 병과 17위로 급제하였으며,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에 임명되었다. 1898년(광무 2) 주차아법오공사관이등참서관(駐筭俄法奧公使館二等參書官)에 임명되었고, 경효전(景孝殿)에서 시행된 전작례(尊酌禮) 때 대축(大祝)으로 참여하여 품계를 올려 받았다. 1900년(광무 4) 경흥감리 겸 경흥부윤(慶興監理兼慶興府尹)에 임명되었고 이후 길주감리 겸 길주부윤(吉州監理兼吉州府尹)·성진감리 겸 성진부윤(城津監理兼城津府尹) 등을 역임하였다.

13) 일찍이 생원이 되고, 1610년(광해군 2)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39년(인조 17) 군자감정(軍資監正)이 되어 시폐(時弊)를 논하는 「조진설치4책(條陳雪恥四策)」을 상소하고 이어서 통진부사를 지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서예와 문장에 두루 능하였다. 글씨로 포천의 「장령정희등묘표(掌令鄭希登墓表)」가 있다.

14) 1689년(숙종 15)~1755년(영조 31). 조선 후기 모반인. 개명(改名)은 엄택주(嚴宅周)이다. 동생은 이주영(李朱英)이다. 조부의 논죄로 인하여 벼슬길이 막히자, 이름을 개명하고 과거에 급제하였고, 이후 교서관(校書館)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1745년(영조 21)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또한 과거에 급제한 이후 신분을 숨

본관 영월, 거주지 강릉, 1719년 증광시 생원 입격(3등 59위), 1725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7위, 전체 17위)

1729년 교서박사에 임명되어 찰방, 전적을 거쳤다. 이후 연일현감을 거쳐 1739년 제주 판관을 지냈다.

오병문(吳炳文, 1836-?)¹⁵⁾

본관 동북, 거주지 원주, 1873년(고종 10) 식년시 생원에 입격(3등 31위, 전체 61위)하였고, 1875년(고종 12) 별시 문과에 급제(을과 1위, 전체 2위)하였다.

1875년 가주서, 1881년에는 수찬에 임명되었다. 1883년부터 1887년까지 문검을 거쳐 장령, 응교, 집의를 거쳤다. 이후 1888년 병조참지에 임명되었으며 1894년에는 병조참의가 되었다.

원급(元汲, 1583-?)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한성. 1618년 증광시 생원 입격(2등 16위, 전체 21위), 1627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6위, 전체 9위), 1648년 전적(典籍)에 임명되었으며 1652년 교서교리를 지냈다.

원섭(元涉, 1569-?)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590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57위, 전체 87위), 1600년 문과

기 위해 부친의 묘에 성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강상(綱常)의 윤리를 무너트렸다는 내용으로 탄핵을 당하였고, 이후 흑산도(黑山島)로 유배되었다. 또한 그의 과거 급제 사실도 삭제되었다. 1746년(영조 22)에는 유배를 당하였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서울을 오갔다는 내용으로 지평(持平) 이진의(李鎭儀)로부터 탄핵을 당하였다. 그 결과 형신(刑訊)이 가해졌다. 1755년(영조 31)에 윤지(尹志)가 노론(老論) 일당에 불만을 품고, 조정의 정책을 비방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괴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되어 국문(鞠問)을 받았는데, 임국훈(林國薰)의 공초 중 이만강(李萬江)이 윤지와 서신을 왕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투옥되었고, 심문을 받았다. 이때 윤지가 흥모를 꾸민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심문이 거듭되었고, 결국 사형을 당하였다.

15) 1880년(고종 17) 승정원의 주서(注書)를 뽑을 때 추천을 받았다. 다음 해 본관록(本館錄)·도당록(都堂錄)에 이름을 올렸다. 1887년(고종 24)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부교리(副校理)에 임명되었고, 이용태(李容泰)·이중덕(李重德)·윤영수(尹英秀) 등과 함께 강론에 참여하지 않은 홍문관원들을 고발하였다. 또한,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서 우리가 친 이번에 대해 신중한 정사를 권면하기도 하고,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신환(申桓)을 석방하라는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였다. 1888년(고종 25) 정월 초하루 때 좌통례(左通禮)로 참여하여 승급되었고, 이후 병조참지(兵曹參知)·참의(參議)에 임명되었다. 1894년(고종 31) 부호군(副護軍)에 제수되었다.

별시 합격(병과 8위, 전체 12위)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는 정자(正字)를 역임했다고 나오나,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원식(元植, 1569-?)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642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7위, 전체 17위)

1647년 전직에 임명되었다. 이후 호조좌랑을 거쳐 1648년 예조정랑에 오른다. 1652년에 호조좌랑으로 좌천되어 남학교수, 공조좌랑을 지내다 1662년 공조정랑에 오른다.

원유봉(元有朋, 1753-?)¹⁶⁾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802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1위, 전체 4위)

1792년 참봉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봉사, 전적을 거쳐 1804년 예조정랑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정언을 맡았다.

원진택(元振澤, 1624-1699)¹⁷⁾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648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46위, 전체 76위), 1657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2위, 전체 22위)

1658년 학유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학정(學正)을 거쳐 1662년 공조좌랑에 임명된다. 이후 1673년에 형조정랑에 올랐으며 충청도사, 정언을 거쳐 1675년 병조정랑, 금산군수

16) 증조부는 원명직(元命稷)이고, 조부는 원경순(元景淳)이다. 부친은 원우손(元羽孫)이고, 생부는 원익손(元翼孫)이다. 외조부는 정석행(鄭錫行)이고, 처부는 신길(申)이다. 1802년(순조 2) 정시에서 병과 1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도사(都事)·참봉(參奉)·정언(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1794년(정조 18) 비변사(備邊司)가 고성(高城) 삼일포(三日浦)의 소나무 벌목 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신문을 청하면서 문책되었다. 1799년(정조 23) 도사를 역임하면서 위세를 믿고 백성들을 학대하였으며, 한 동네의 백성들의 집을 허물고 정문(旌門)과 사판(祠版)에까지 손을 댄 죄를 저질렀다며 공초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의금부(義禁府)에서 잡혀 들어가 공초되었고, 죄상이 드러나 부령부(富寧府)에 유배되었다. 1806년(순조 6)에는 김귀주(金龜柱)가 외척을 빙자하고 당파에 의탁하여 국가를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당률(當律)로서 처분할 것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경솔하게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향리로 방축되었다가 3개월 뒤에 사면되었다.

17) 1648년(인조 26) 식년시에서 생원으로 합격하였다. 1657년(효종 8) 식년시에서 병과에 급제하였다. 1674년(현종 15)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다. 1686년(숙종 12)에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에 제수되었다. 이 해에 장령(掌令) 이국화(李國華)와 함께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궁전 건축을 중지하라고 간언하기도 하였다. 이후 관직은 참의(參議)에 올랐다. 1699년(숙종 25) 원주에 머물던 중 화적 무리들에게 변을 당해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

를 지낸다. 1677년 나주목사에 임명되었고, 1685년에 헌납에 오른다. 이후 장령, 부호군을 거쳐 갑산부사를 지내다 1690년에 양주목사, 1692년에 경주부윤을 맡는다.

원치도(元致道, 1660-?)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690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11위, 전체 41위), 1691년 문과 증광시 합격(을과 6위, 전체 9위).

1692년 학정에 올랐으며 이후 가주서를 거쳐 1696년 감찰에 임명된다. 이후 흥양(興陽)현감을 거쳐 1700년에 전적, 그리고 1701년에는 찰방에 임명되었다.

원해익(元海益, 1583-?)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624년 식년시 진사 입격(2등 8위, 전체 13위), 1627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5위, 전체 25위).

1637년 찰방에 임명되었으며 1646년에는 형조정랑에 올랐다. 이후 1652년 강릉교수, 1658년에는 원주교수를 지냈다.

원해일(元海一, 1580-?)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624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70위, 전체 100위), 163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3위, 전체 23위).

1630년 성균관전적에 임명되었다. 1635년에 서장관으로 북경에 다녀왔으며 1641년에 인천부사를 지냈다.

유병일(柳炳一, 1853-?)

본관 문화(文化), 거주지 춘천. 1892년 문과 알성시 합격(병과 2위, 전체 4위)

1892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유성환(俞誠煥, 1804-?)¹⁸⁾

18) 감찰(監察) 유대우(俞大佑)의 후손으로, 고조는 진사(進士) 유복기(俞復基)이고, 증조부는 판서(判書) 유언술(俞彦述)이며, 조부는 진사(進士) 유한유(俞漢維)이다. 부친 유희주(俞羲柱)와 모친 서영보(徐英輔)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첫째 부인은 김보연(金普淵)의 딸이고, 둘째 부인은 훈장(訓將) 서영보(徐英輔)의 딸이다. 1853

본관 기계, 거주지 원주. 1851년 문과 정시 급제(병과 5위, 전체 8위)
1852년 성균관전직에 임명되었다. 이후 정언, 교리를 거쳐 1854년 부수찬에 올랐다.
이후 헌납을 거쳐 사복정, 집의, 수찬, 사간을 지냈으며 1858년 병조정랑에 오른다. 이
듬해 병조참의, 호조참의를 지냈으며 1862년에는 돈녕도정을 거쳐 1864년 대사간, 곡
산부사를 지냈다. 1872년 호조참판에 올랐으며 이듬해 돈녕부사에 임명되었다. 1879년
에 곡산부사, 도총관, 지춘추, 한성부판윤을 거쳐 공조판서에 올랐다.

유영하(柳榮河, 1787-1868)¹⁹⁾

본관 고흥(高興), 거주지 춘천. 자는 선여(善汝), 호는 보산(甫山), 1819년(순조 19) 식
년문과에 갑과로 급제(갑과 2위, 전체 2위).

1819년 가주서에 올랐으며 이듬해 지평, 병조좌랑을 지냈다. 1825년 자인현감을 거쳐
1826년에 정언, 전적을 지냈으며 1834년에 은산현감에 올랐다. 이후 지평, 봉상정, 문
겸, 강릉부사 등을 지내고 1845년에 승지에 오른다. 1858년에 대사간에 올랐으며 이후
공조참의를 거쳐 1866년에 공조참판에 이른다.

유중식(劉中植, 1859-?)

본관 배천(白川), 거주지 강릉. 1892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46위, 전체 50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년(철종 4) 강장환(姜長煥)·남이륜(南履輪)·이현문(李玄文) 등과 함께 관록(館錄)에 선발되었다. 이후 헌납(獻納)
등을 역임하였다. 1858년(철종 9) 반교(頒敎) 때 선전관(宣箋官)으로 참여하여, 품계를 올려 받았다. 1862년(철
종 13)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임명되었고, 1864년(고종 1)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임명되었다. 이후 공
조판서(工曹判書)·이조참판(吏曹參判)·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등을 역임하였다.

19) 유기(柳耆)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정한(柳鼎漢)이다. 아버지는 동몽교관(童蒙敎官) 유관(柳瓘)이며, 어
머니는 이인수(李寅守)의 딸이다. 호조참판 유서(柳瑞)에게 입양되었다. 문과 급제 후 종묘서직장이 되고, 1820
년에는 사도시주부·병조좌랑·사헌부지평을 역임하였다. 이듬해에는 병조좌랑을 거쳐 자인현감으로 나갔으며,
1826년에는 사간원정언을 역임하였다. 1828년에는 전적(典籍)을 거치고 1831년에는 세자시강원필선·사서, 사
간원정언이 되었다. 1834년에는 군자감정을 거쳐, 은산현감을 지냈다. 이어 1838년(헌종 4)에는 정언을 거쳐
봉상시정이 되고, 1840년에는 통정대부에 승계되었다. 이듬해에는 강릉부사를 거쳐, 1845년 승정원동부승지를
역임하고, 1848년에는 안변부사 등을 지냈다. 철종 즉위년에서 고종 1년까지 15년간에 동부승지 세번, 공조참
의 한번, 사간원대사간을 역임하였으며, 1866년(고종 3)에는 공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부총관에 이르렀다. 병인
양요 때는 이항로(李恒老)의 척화주장에 찬동하였다. 이항로의 문인으로서 유중교(柳重敎)·이준(李埈)·박경수(朴
慶壽)·이박(李璞)·최익현(崔益鉉) 등과 교류하였다. 저서로는 『보산집』이 있다.

유채(柳綵, 1698-?)²⁰⁾

본관 진주, 거주지 춘천. 1729년 식년시 진사 입격(2등 1위, 전체 6위).

1737년 참봉에 임명되었다. 명릉봉사(明陵奉事), 제용봉사(濟用奉事)를 거쳐 1756년 상의주부(尙衣主簿)를 지냈다. 이후 1758년 평릉찰방(平陵察訪)에 제수되었다.

유치익(兪致益, 1822-?)

본관 기계, 거주지 철원. 1865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69위, 전체 99위), 1885년 문과 증광시 장원.

1869년 참봉, 1872년 봉사를 거쳐 1873년에 직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별제를 거쳐 제천현감을 지냈으며 1884년 첨정을 거쳐 1885년 예조참의에 제수되었다. 이후 대사간을 거쳐 1889년 대사성을 지냈으며 이듬해 공조참의가 되었다. 이후 돈녕도정을 지냈으며, 1893년 경주부윤, 1894년에 형조참의에 임명되었다.

이건춘(李建春, 1802-?)

본관 연안, 거주지 원주. 184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0위, 전체 30위)

1840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1845년 정언을 거쳐 1852년에는 장령에 임명되었다. 1855년 종부정을 거쳐 사간에 올랐으며 경기도사, 집의, 부교리를 거쳐 1862년 우통례에 임명되었다. 이후 형조참의를 거쳐 1863년에는 대사간을 지냈다.

이경운(李景薰, 1666-?)

본관 함평, 거주지 양양. 1693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8위, 전체 38위)

1693년 성균관학유였음이 확인됨.

이경화(李景華, 1656-?)

20) 1698년(숙종 24)~미상. 조선 중기 관리. 자는 경맹(景孟)이다. 부친은 성균진사(成均進士) 유희운(柳熙運)이다. 1738년(영조 14) 참봉(參奉)으로 재직 중, 해당 관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관(部官)들이 실상을 파헤치지 않고, 마음대로 조술한 것이 많아서, 지평(持平) 김상구(金尙耆)로부터 해당 사건을 단속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당하였다. 그 결과 관직에서 쫓겨났다. 1746년(영조 22)에는 제용봉사(濟用奉事)로 재직 중이었는데, 지평 이진익(李鎭儀)로부터 인물됨이 용렬하며, 행동이 망령되다는 이유로 재차 탄핵을 당하였다.

본관 함평, 거주지 양양. 1687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2위, 전체 32위)
1688년 성균관학유에 임명됨. 1692년에 예조좌랑에 올랐으며 결성현감(結城縣監)을 거
쳐 울진현령을 지냈다. 1700년 직강에 올라 겸춘추, 기주관 등을 지냈으며 1715년 상
원군수, 1719년 성균관사예에 올랐다. 이후에는 편수관과 덕천군수(1719년)를 지냈으며
1721년에는 예빈정(禮賓正)에 오른다. 1725년 첨지중추부사에 임명되었다.

이구령(李九齡, 1648-?)

본관 전주, 거주지 원주. 1679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42위, 전체 72위), 1690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2위, 전체 4위)
1690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691년 병으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난 뒤, 1701년 수문
장에 제수된 후, 1705년에는 첨절제사가 되었다.

이규휘(李奎徽, 1698-?)

본관 성주, 거주지 춘천. 1723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2위, 전체 32위)
1724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725년 예조좌랑, 이듬해 병조정랑을 거쳐 1733년 예조
정랑으로 근무하였다. 1740년 헌릉령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공흥도 도사, 평안도 도사
를 거쳐 1744년 장령에 올랐다.

이기영(李奇英, 1585-?)

경주 이씨, 거주지 원주. 1627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5위, 전체 15위)
1635년에 첨마별관을 지냈으며 1637년에는 북청판관에 임명되었으나 바로 하직하였다.

이노규(李魯奎, 1796-?)²¹⁾

본관 한산(韓山), 거주지 원주. 1828년 식년시 문과 합격(갑과 2위, 전체 2위).

21) 1837년(헌종 3) 본관록(本館錄)에 이름이 올랐고, 다음해 도당회권(都堂會圈)에서도 선발되었다. 1842년
(헌종 8) 무안현감(務安縣監)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전라우도암행어사(全羅右道暗行御史) 조귀하(趙龜夏)의 고
발로 벌을 받았다. 1846년(헌종 12)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재직할 때 대사간(大司諫) 김필(金)·장령(掌令)
성용묵(成容默)·지평(持平) 나채규(羅采奎), 헌납(獻納) 유안(柳晏), 정언(正言) 이승규(李承圭) 등과 함께 중궁전
(中宮殿)의 문후(問候)와 관련된 상소를 올렸다. 이 일로 인해 진도군(珍島郡)에 유배되었다. 1851년(철종 2)
철종의 친제(親祭) 때 집례(執禮) 부사과(副司果)의 일을 맡아 수행하여 가자(加資)되었다.

1828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전적에 올랐으며 1833년에 개성경력(開城經歷)에 부임하였다. 이후 교리를 거쳐 1839년 예안현감이 되었으며 수찬, 좌통례를 거쳐 1851년에 정3품 돈녕도정(敦寧都正)에 오른다. 이후 병조참지, 장단부사(長湍府使)를 지냈다.

이덕령(李德齡, 1630-?)

본관 전주, 거주지 원주. 1657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24위, 전체 29위), 1669년 문과 식년시 장원.

1670년 병조좌랑에 임명되었으며 같은해 충청도사에 제수되었다. 1687년에 선릉참봉에 임명되었다.

이동식(李東植, 1745-?)

본관 함평, 거주지 양양. 1774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41위, 전체 71위), 1783년 증광시 문과 합격(을과 4위, 전체 7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만림(李萬林, 1627-1675)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673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6위, 전체 26위)

1673년 부호군에 임명되었으며 사천현감을 지냈다. 1683년 선원군수를 거쳐 운산군수, 은산현감을 지내다 1708년 보성군수, 1709년에는 정평부사를 지냈다.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는 성균관학유를 지낸 경력이 나오나, 1787년 승정원일기에 나온 기록인 것으로 보아 동명이인에 대한 오기로 판단된다.

이면(李勉, 생몰년미상)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552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24위, 전체 54위), 1553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17위, 전체 27위)

1625년에 안동판관에서 사임했으며, 1639년 현릉참봉에 임명된 기록이 있으나 급제한 연도로 보아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크다.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는 예조좌랑을 지낸 경력이 나오나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상빈(李尙鱣, 1584-?)

본관 영해, 거주지 강릉. 1605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41위, 전체 71위), 1615년 문과 식년시 장원.

1623년 형조좌랑에 임명되었다. 이후 1629년 예조정랑을 거쳐 용강현령을 지냈다.

이상원(李相遠, 1765-?)

본관 성주, 거주지 원주. 1804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52위, 전체 82위), 1813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4등 전체 14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상익(李尙翼, 1629-?)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660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62위, 전체 92위), 1669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4위, 전체 14위)

1662년 참봉을 지냈으며 1670년에 학정에 임명되었다. 1671년 가주서, 감찰을 거쳐 이듬해 병조좌랑에 임명되었으며, 예조좌랑을 거쳐 전라도 점마별감이 되었다. 1673년 예조정랑, 예안현감을 지냈으며 1679년에는 평안도사, 직강을 지냈다. 1680년 직강에 임명되었으며 무장현감을 지내다 사직하였다. 1684년 공조정랑에 임명되었다.

이상협(李尙謙, 1581-?)²²⁾

본관 영해, 거주지 강릉. 1606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2위, 전체 32위), 1615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위, 전체 11위)

22) 1606년(선조 39) 증광시에서 진사 3등에 2위로 합격하였고, 1615년(광해군 7) 식년시에서 병과 1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남양부사(南陽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1615년(광해군 7) 식년 문과에 함께 급제한 김구(金榘)·김언(金瑄)·박조(朴筵)·송도남(宋圖南)·이기조(李基祚)·이계선(李繼先) 등과 함께 승문원(承文院)에 간택되었다. 1630년(인조 8) 성균관직강에 재임 중 사예(司藝)로 제수될 당시 인품이 경박하다는 이유로 논박당하여 취소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사예로 제수되었는데, 또한 반대 여론으로 제수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일로 이상협(李尙謙)을 사예로 거둬 추천한 당상과 낭청의 신료들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는 사간원(司諫院)의 상소도 올라갔었다. 1642년(인조 20) 남양부사 재임 시절 재물을 탐하고 백성을 괴롭힌 실정(失政)이 조정에 알려져 파직되었다.

1626년 형조좌랑에 임명되었다. 1630년 형조정랑이 되었으며 같은 해 성균관 직강을 지냈다. 이후 진주판관과 공조정랑을 거쳐 남양부사에 임명되었으나 1641년 하직하였다. 1642년 다시 남양부사가 되었으며 1646년 삼척부사로 임명되었다. 이듬해 여주목사를 거쳐 1648년 울산부사를 지냈다.

이선(李選, 1762-?)

본관 우봉, 거주지 춘천. 1801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3위, 전체 23위)
1801년 가주서에 임명되었으며 1803년 별검에 올랐다.

이순범(李舜範, 1841-1920)²³⁾

본관 함평, 거주지 원주. 1864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4위, 전체 7위)
1874년 감찰을 지냈으며 1884년에는 성균관 전적에 올랐다. 이후 지평, 헌납을 거쳐 1889년 부수찬에 올랐으며 같은 해 정언을 지냈다. 1890년에 부교리, 장악정을 지냈으며 1892년 장령을 거쳐 병조정랑, 그 이듬해 좌통례, 1894년에 집의에 올랐다. 1898년 흥문관시독관에 올랐다.

이시정(李時楨, 1568-?)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600년 문과 별시 장원

23) 증조부는 헌납(獻納) 이광식(李光植)이고, 조부는 현감(縣監) 이종덕(李鍾惠)이며, 부친은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이계순(李啓淳)이다. 외조부는 김교영(金敎永)이고, 처부는 권언영(權彦榮)이다. 1864년(고종 1) 정시에 병과 4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관직은 정언(正言)·부교리(副敎理)·부수찬(副修撰)·봉상사부제조(奉常司副提調) 등을 역임하였다. 1889년(고종 26) 경기도 지평현(砥平縣)에 살고 있던 유생 한용석(韓容奭)이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을 비난하면서 충헌공(忠獻公) 김창집(金昌集)·충민공(忠愍公) 이건명(李健命)·충익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충문공(忠文公) 이이명(李頤命) 등을 흉악한 무리라고 모욕함과 동시에 조태구(趙泰耆)·최석항(崔錫恒)·이광좌(李光佐)·유봉휘(柳鳳輝) 등을 충신으로 치켜세우자 한용석의 처벌을 청하는 연명차저(聯名劄子)가 흥문관(弘文館)에서 올라갈 때 부수찬으로서 동참하였다. 1895년(고종 32)에는 국가 기강을 바로잡을 조항으로, 첫째 올바른 명분을 세울 것, 둘째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여 등용시킬 것, 셋째 표현된 문장(文章)의 귀천을 구별할 것, 넷째 병정(兵丁)은 늘리고 순검(巡檢)은 줄일 것, 다섯째 백성들의 부세(賦稅)를 줄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없앨 것, 여섯째 엄격한 규정에 맞게 성문(城門)을 여닫을 것 등을 상소하였다. 1904년(광무 8) 봉상사부제조 재임 시절 1895년(고종 32)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난 직후 조선의 강산을 개간하겠다는 명분으로 50년간 빌려 사용하겠다는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일본 대리공사(代理公使) 하키하라(萩原)와 그에게 붙여 부(富)만을 탐하는 역적을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상소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문제가 되었고, 또 일본 대리공사까지 운운한 일이 외교 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부(法部)로부터 심문을 받았다.

1602년(선조 35) 대구판관을 역임하였으며 이듬해 예조좌랑에 임명되었다. 1606년 문검선전관을 거쳐 1612년 평해군수로 있었다. 1617년(광해 9)에 제용감 정으로 있었으며 이듬해 봉상시 정에 임명되었다. 1622년에 장령으로 부임하였다.

이양신(李亮信, 1801-?)

본관 덕수, 거주지 원주. 1849년 문과 식년시 장원.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엽(李曄, 1602-?)

본관 전주, 거주지 양구. 1633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68위, 전체 98위)

1636년 찰방에 임명되었다. 1639년에 판관을 지냈으며 1644년에는 재령현감을 지냈다.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는 사헌부집의를 지낸 것으로 나오나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영은(李英醜, 1620-?)

본관 예안, 거주지 원주. 1639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51위, 전체 81위), 1648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6위, 전체 16위)

1652년 보안찰방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봉상봉사(奉常奉事)를 지냈으며 1654년 성균박사, 1655년에 호조정랑을 지냈다. 같은해 예조좌랑과 검춘추를 지냈으며 1658년에 양산군수, 1660년에는 감찰을 지냈다. 같은 해 전적을 지냈으며 이듬해 함안군수를 지냈다. 1665년 예조정랑을 거쳐 1671년 봉상검정, 이듬해 진산군수를 지냈다. 1680년에 다시 전적을 지냈고 1681년에는 봉상시 부정을 지냈다.

이영협(李英謙, 1613-?)

본관 예안, 거주지 원주. 1642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39위, 전체 69위), 166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위, 전체 12위)

1660년 봉상부봉사(奉常副奉事)에 임명되었으며 1662년에 학록, 이듬해에는 보안찰방을 지냈다. 동학훈도를 거쳐 1665년에 전적을 지냈으며 1666년 사헌부감찰에 임명되었다.

이오(李璈, 생몰년 미상)

본관 영해, 거주지 강릉. 1600년 문과 별시 합격(을과 3위, 전체 4위)

1603년 사헌부감찰, 1604년 형조좌랑을 지냈다. 이후 1606년 성균관전적을 거쳐 옹진 현령이 되었다. 1624년에는 군수를 지냈다.

이원령(李元齡, 1639-1719)²⁴⁾

본관 전주, 거주지 원주. 1677년 증광시 진사 입격(2등 7위, 전체 12위), 1678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위, 전체 11위)

1678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681년 전직, 예조좌랑을 지냈으며 병조좌랑을 거쳐 1683년 함평현감에 오른다. 1685년에는 찰방을 지내고 1689년에는 장령, 고양군수를 지냈다. 1692년에는 사복정, 좌통례, 의주부윤을 지낸 뒤 이듬해 홍문관수찬을 지냈다. 그 해 시강원보덕, 홍문관교리, 집의를 차례로 지낸 뒤 1693년 우부승지에 임명되었다.

이은모(李殷模, 1745-1802)²⁵⁾

본관 덕수, 거주지 원주. 1768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4위, 전체 9위), 동년 동시 진사 입격(3등 1위, 전체 31위), 1775년 문과 정시4 합격(병과 3위, 전체 7위)

1775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776년 성균관전직, 1777년에는 감찰, 정언을 지냈다.

24) 조선 중기 문신. 자는 여장(汝長)이고, 호는 원곡(遠谷)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출신지는 원주(原州)이다. 이성중(李誠中)의 현손(玄孫)이고, 세종의 왕자인 담양군(潭陽君) 이거(李璵)의 8세손으로, 부친은 성균관 진사(進士) 증이조참판(贈吏曹參判) 이진방(李震昉)이다. 형제가 모두 벼슬하였는데, 아우 이구령(李九齡)은 승정(承正) 벼슬을 하였다. 1678년(숙종 4) 증광시 진사 2등 7위로 합격하고, 같은 해 병과 2위로 문과 급제 하여 벼슬이 동중추(同中樞)에 이르렀다. 1689년(숙종 15)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 관직을 제수 받았고, 같은 해에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이 되었다. 1691년(숙종 23) 사간원 헌납(獻納) 관직을 제수 받았다. 1692년(숙종 24) 부제학(副提學) 민창도(閔昌道) 등이 홍문록(弘文錄·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선임하는 기록)을 만들었는데, 선발된 16명의 인원 중에 속했다. 1693년(숙종 19) 홍문관 부수찬(副修撰)과 교리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보덕(輔德)이 되었고, 사헌부 집의(執義),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로 임직하였다. 1694년(숙종 20)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죽은 서인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이 복권되면서 변경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1697년(숙종 23) 의금부와 형조에서 석방하기를 명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25) 증조부는 이번(李蕃)이고 조부는 이구진(李龜鎭)이며 생부는 이환(李渙)이고 부친은 이위(李渭)이다. 외조부는 임상익(林象翼)이고 김한눌(金漢訥)의 딸과 결혼하였다. 1775년(영조 51) 을미(乙未) 정시(庭試)에 병과(丙科) 3위로 급제하였다. 권지 승문원정자(權知承文院正字), 삼사(三司), 은율현감(殷栗縣監), 동부승지(同副承旨), 병조참의(兵曹參議), 회령부사(會寧府使), 동지의금(同知義禁), 한성우윤(漢城右尹),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지평을 거쳐 1785년 부수찬, 수찬을 지냈다. 이듬해 장령, 문렴을 거쳐 1787년 병조좌랑, 부호군에 올랐다. 교리, 교수를 거쳐 1792년 부교리, 사간, 수찬을 거쳐 응교에 올랐다. 1794년 형조참의를 거쳐 1795년에는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799년에는 병조참지, 1800년 공조참의와 대사간을 지냈다. 이듬해는 회령부사에 임명되었다.

이응신(李應信, 1776-?)

본관 덕수, 거주지 원주. 1819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1위, 전체 31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의손(李懿孫, 생몰년 미상)

본관 고성(固城), 거주지 흥천. 1483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7위, 전체 17위)
1491년 동부승지에 임명되어 1494년 사간원 정언, 1495년 교리, 1496년 사간원 헌납을 지냈다. 이후 1499년에는 홍문관부교리, 장령에 올랐고 1500년 대사간을 거쳐 1504년 우부승지에 임명되었다.

이인벽(李寅璧, 생몰년 미상)

본관 평산, 거주지 금화. 1880년 문과 증광시 합격(을과 6위, 전체 9위)
1880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83년 전적을 거쳐 이듬해 이조정랑에 올랐으며 1885년 직강을 거쳐 1886년에 거산찰방에 임명되었다.

이정두(李廷斗, 1808-?)

본관 전주, 거주지 춘천. 1834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5위, 전체 35위)
1834년 가주서에 올라 5년 뒤인 1839년 지평에 임명되었다. 1848년 정언을 거쳐 1854년에 사간, 1859년에는 집의를 지낸다. 이후 현풍현감을 거쳐 1869년 공조참의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대사간과 부총관을 거쳐 1879년 병조참판에 올랐다.

이조손(李兆孫, 생몰년 미상)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510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48위, 전체 78위), 1524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19위, 전체 23위), 1537년 함경도 도사를 지냈으며 1546년에 평해군수를 지냈다.

고전용어 시소러스 사이트(<http://thesaurus.itkc.or.kr/search/view?dataId=818>)에서는 청주 목사도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그 부분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주징(李周徵, 1639-?)

본관 연안, 거주지 흥천. 1673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39위, 전체 69위), 1691년 문과 증광시 합격(갑과 2위, 전체 2위)

1689년 목천현감과 호조좌랑을 지냈다. 고양군수를 거쳐 1692년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이후 좌부승지를 거쳐 1693년 양주목사에 임명되었고, 1701년에는 광주목사를 지냈다. 이후 여주목사를 거쳐 1709년 승지에 올랐다.

이중익(李重翼, 1711-?)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75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5위, 전체 15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지병(李之屏, 1597-?)

본관 평창, 거주지 간성. 1618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9위, 전체 24위), 1624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4위, 전체 34위)

1641년 찰방에 임명되어 1644년에는 인제현감에 부임하였다. 1650년 교서관교리로 재직했으며 1655년 강릉교수를 거쳐 1659년에 여주교수로 임명되었다.

이태섭(李泰燮, 1847-?)

본관 원주, 거주지 원주. 1876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3위, 전체 23위)

1876년 가주서에 임명되었으며 1882년에 전직에 올랐다.

이하징(李夏徵, 1686-1755)²⁶⁾

26) 1721년 (경종 1) 사마시에 합격하고, 1747년 나주목사로 있을 때 수관문제(輸款問題)로 동래에 유배되었

본관 한산(韓山), 거주지 춘천. 1721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12위, 전체 43위)
1723년에 창릉참봉으로 있었으며 의영봉사(義盈奉事), 감조관(監造官) 등을 거쳐 1733
년 호조좌랑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전주판관을 거쳐 1737년 형조정랑, 한산군수를 지
냈다.

이형덕(李馨德, 1722-?)

본관 한산, 거주지 원주. 1765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8위, 전체 28위)
1765년 가주서로 임명되었다. 이후 1770년 별검을 거쳐 1773년 전적이 되었으며 이듬
해 주부에 임명되었다. 1774년 예조좌랑을 거쳐 예조정랑에 올랐으며 병조좌랑, 정언
을 지냈다. 1783년 지평에 임명되었다.

이형필(李衡弼, 1714-1775)

본관 함평, 거주지 양양. 1753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22위, 전체 52위), 1759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5위, 전체 56위)
1759년 가주서를 거쳐 1768년 예빈주부, 1770년 예조좌랑에 임명되었다.

고, 궤서사건을 일으킨 윤지(尹志)와는 벗으로 지냈다. 나주궤서사건이 일어났을 때, 임국훈(林國薰)·이효식(李孝植) 등과 함께 연루되었는데, 임국훈이 관에 바친 상자 속에는 윤지와 서신교환을 한 사람 가운데 이하징의 서찰이 가장 많았으며, 그 내용 또한 친밀하여 골육과 같았다. 왕이 친국을 할 때 윤지 부친의 역적행위를 부인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얻어 종성으로 유배되었다가, 복주(伏誅)되었다.

이홍덕(李弘德, 1698-?)

본관 한산, 거주지 원주. 1725년 증광시 생원 입격(3등 20위, 전체 50위), 1741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3위, 전체 6위)

1741년 가주서, 부사정을 거쳐 1747년 전직에 임명되었다. 이후 예조좌랑을 거쳐 기사관, 경상도사 등을 지내다 1749년 예조정랑에 임명되었다. 1750년에는 병조좌랑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정언, 옥구현감을 지내다 1752년에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다.

이후(李煦, 1629-?)

본관 경주, 거주지 춘천. 1654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24위, 전체 54위), 1660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5위, 전체 8위)

1660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승문부정자(承文副正字)를 거쳐 1662년 승문원박사에 임명되었다. 이후 충청도사를 거쳐 1663년 지평에 임명되었다. 1669년 병조정랑을 겸직했으며 원양도사를 거쳐 1670년에는 정언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장령에 임명되었고 1671년에는 강릉현감으로 부임하였다. 1676년 사간에 임명되었지만 이듬해 병환을 이유로 사직을 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78년 집의, 수찬에 임명되었으며 다음 해에는 홍문관부교리에 임명되었다. 1680년 2월 하직하였으나 8월에 다시 판결사(判決事)에 임명되었다.

이휘진(李彙晉, 1680-1752)²⁷⁾

본관 함평, 거주지 양양. 1702년 식년시 진사 입격(2등 5위, 전체 10위), 1708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3위, 전체 6위)

1708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여러 번 사직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710년 1월에 병으로 사직하였다. 그러나 그해 6월에 다시 병조좌랑에 임명되었으며 과거 시험의 참고관으로 임용되었다. 1713년 강원도사를 지냈으며 1716년에 병조정랑에 올랐다. 1719년 장령에 올랐으며 1726년 1월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자신은 적임자가 아니라며 직명을 환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해 11월에 화양부사로 임명되

27) 1708년(숙종 34)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후, 장령·동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장령으로 있던 1722년(경종 2) 임인년 옥사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주장하였으며, 자신의 삼수설(三手說)을 알리는 데 힘썼다.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어 악기조성청의 낭청(郎廳)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었다. 이후 1734년 병조정랑, 1736년 길주목사를 거쳐 1742년 함안군수로 재직할 당시 직접 악기를 쥐고 영인(伶人)들 사이에 끼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는 이유로 파직을 주청하는 상소가 있을 정도로 악기에 조예가 깊었다. 1742년 이산부사로 임명되었으나 1743년 다시 하직하였다. 1744년 다시 함경도사로 임명되었으며 1745년에는 장악정(掌樂正)에 임명되었다. 그러다 다시 장령으로 재직하였으며 고산찰방으로 부임하였다.

이휘항(李彙恒, 1695-1745)

본관 함평, 거주지 양양. 1723년 증광시 진사 입격(2등 8위, 전체 13위), 1726년 문과 식년시 장원.

1726년 전적을 거쳐 예조좌랑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기사관을 거쳐 검춘추를 지냈으며 병조좌랑에 임명되었다. 이후 충청도사를 거쳐 1734년 함경도사를 지냈으며 1739년 장령에 임명되었다. 1743년 봉상정을 거쳐 경성판관(鏡城判官)에 임명되었으며 1745년 정언을 거쳐 헌납에 임명되었다.

이희준(李羲俊, 1798-?)

본관 벽진, 거주지 강릉. 1836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1위, 전체 4위)

1836년 가주서로 임명되어 이듬해 찰방에 올랐다. 1849년 전적에 올랐으며 1842년에는 봉화현감, 1846년 장령, 1858년에는 첨지를 지냈다.

이희춘(李喜春, 1673-?)

본관 성주, 거주지 강릉. 1705년 증광시 생원 입격(2등 1위, 전체 6위), 1713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32위, 전체 42위)

1715년 부사정,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학정을 거쳐 1719년 전적에 임명되었다. 1720년 문검에 올랐으며 1722년 감찰, 직강을 지내다 예조정랑에 오른다. 이듬해 성균관사예에 올랐으며 고부군수가 된다. 1729년 경상도사를 거쳐 승문원판교, 1730년에 편수관에 오른다. 이후 기주관을 거쳐 이듬해 진주목사에 오른다. 1735년 다시 사예로 재직했으며 군자감 정으로 임명된다.

임백동(任百東, 1802-?)

본관 풍천, 거주지 평강. 1873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6위, 전체순위 26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선수(林選洙, 1853-?)

본관 나주, 거주지 강릉. 1882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46위, 전체순위 56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팽손(任彭孫, 생몰년 미상)

본관 풍천, 거주지 철원. 1447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60위, 전체 90위), 1466년 과천 현감에 재직하였다.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는 한성판관을 지낸 것으로 나오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확인되지는 않는다.

임필벽(林必璧, 1850-?)

본관 울진, 거주지 간성. 1882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9위, 전체 19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형곤(林衡坤, 1869-?)

본관 울진, 거주지 울진. 1885년 문과 정시 합격(을과 1위, 전체 2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임홍식(任弘植, 1774-?)

본관 풍천, 거주지 평강. 1801년 문과 식년시 합격(순위 7위, 전체 17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장세필(張世弼, 1447-1552)²⁸⁾

본관 진천, 거주지 김화. 1507년 증광시 생원 입격(3등 37위, 전체 67위), 동년 문과 식년시 합격(3등 17위, 전체 27위)

1513년 병조좌랑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함경도사에 제수되었다. 1531년 광주목사로 재직했으며 1534년 강릉부사로 임명되었으나 바로 교체되었다. 1538년 성주목사로 다시 임명되었으나 사헌부의 탄핵으로 바로 교체되었다. 1544년에 사도시정으로 근무하던 중 관사 안의 물건을 동료에게 구걸하여 가져가는 등 행실이 장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교체되었다.

장언침(張彦枕, 1549-?)²⁹⁾

본관 진천, 거주지 김화. 1588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1위, 전체 4위)

1605년 해주판관으로 재직하였음. 이듬해 장악원첨정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회양부사로 임명되었으나 1608년 파직되었다. 1611년 낙안군수로 임명되었다.

장의국(張義國, 1537-?)

본관 진천, 거주지 김화. 1558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53위, 전체 83위), 1564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7위, 전체 17위), 선조(宣祖) 19년(1586) 병술(丙戌) 중시(重試) 문과

28) 부친은 전곡산부사(前 谷山府使) 장기손(張起孫)이다. 1507년(중종 2)에 식년시에서 3등 17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1513년(중종 8) 좌랑(佐郎)으로 임명된 지 20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품 위인 함경도사(咸鏡都事)에 임명되자, '승진 기한 30 개월을 채우지 않았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교체되었다. 1530년(중종 25) 광주목사(廣州牧使)에 임명되었으나, 사헌부에서 목사 적임자가 아니라며 체직(遞職)을 요구하였다. 1531년(중종 26) 광주목사로 있을 때, 일반 백성 나근내(羅斤乃)라는 자가 의금부나장(義禁府羅將)을 사칭하며 쇠사슬을 가지고 목사 관아에 들어와선 뜰 아래로 그를 끌어내린 후 죄목을 열거하며 질타하였는데도, 자신이 모욕당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단지 태형(笞刑)만 행하고 풀어주었던 일이 사헌부에 알려져 '식견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처사'라는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1534년(중종 29) 강릉부사(江陵府使)로 임명되었으나 광주목사로 있을 때 일으킨 물의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재차 관직이 교체되었다. 1538년(중종 33)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임명되었으나 '수령으로 있을 때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하였는데 성주와 같은 큰 고을을 다스릴 능력은 결코 없다'라며 사헌부가 탄핵하여 관직에서 교체되었다. 1544년(중종 39) '사도시정(司導寺正)으로 있으면서 관사의 물건을 동료에게 구걸하여 가져가는 등 하는 짓이 바르지 못하여 한 관사의 장관이 될 수 없다'는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교체되었다.

29) 1588년(선조 21)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으며, 1605년 해주판관으로 있으면서 공무를 민첩하게 처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병이 있어 관아를 오랫동안 비웠다는 것으로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다. 곧 다시 등용되어 이듬해에는 장악원첨정에 임명되었다. 이어 회양부사가 되어 다시 외직으로 나갔으나 공무에 충실하지 못하며 집이 가까이 있는 관계로 폐단이 크다는 사간원의 탄핵으로 1608년 파직되었다. 역학에 조예가 있었다.

(文科) 병과(丙科) 3위(5/6), 1592년 창원부사로 재직했다.

한국역대인물정보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승정원승지로 재직했다는 기록되어 있으나 왕조실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백령(全栢齡, 1705-?)

본관 정선, 거주지 금성. 1765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6위, 전체 36위)

1766년 정의현감(旌義縣監)에 임명되었으며 문겸을 거쳐 1770년 예조정랑에 임명되었다.

정기풍(鄭基豐, 1594-?)³⁰⁾

본관 초계, 거주지 원주. 1615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4위, 전체 19위), 1648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8위, 전체 18위).

1646년 옥천군수로 재직했으며 1650년에 지평에 올랐다. 이후 1651년 장령을 거쳐 1653년 집의에 임명되었다. 1654년 사간, 이듬해 나주목사에 올랐다. 1658년에 다시 집의로 재직했으며 이듬해 사성에 올랐다가 1662년 서원현감에 제수되었다. 같은 해 경주부윤으로 임명되었다.

정기화(鄭琦和, 1786-?)

본관 초계, 거주지 횡성. 1827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20위, 전체 30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도겸(丁道謙, 1643-1663)

본관 나주, 거주지 원주. 1660년 증광시 생원, 진사 입격(생원 1등 4위, 진사 2등 15위), 1662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3위, 전체 23위)

1662년 거주서에 임명되었으나 병환으로 인해 그 해 사직하였다.

한국역대인물정보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승문원박사로 재직했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왕조

30) 1642년(인조 20) 신계현령(新溪縣令)으로 재직 중, 암행어사(暗行御史) 정치화(鄭致和)를 통해 그의 선정(善政)이 보고되어 임금으로부터 의복을 하사받았다. 1650년(효종 1) 옥천군수(沃川郡守)로 재직하던 중, 문학(文學)에 임명되었다. 이후 사간(司諫)·양양부사(襄陽府使)·장령(掌令)·지평(持平)·집의(執義)·필선(弼善) 등을 역임하였다. 1658년(효종 9)에는 조복양(趙復陽) 등과 함께 승지(承旨)에 임명되었다.

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도복(鄭道復, 1729-?)

본관 영일, 거주지 삼척. 1771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1위, 전체 31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두형(鄭斗亨, 생몰년 미상)³¹⁾

본관 영일, 거주지 삼척. 1540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20위, 전체 25위), 1544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7위, 전체 10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범조(丁範祖, 1723-?)

본관 나주, 거주지 원주. 1759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36위, 전체 66위), 1763년 문과
증광시 합격(갑과 3위, 전체 3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사신(丁思愼, 1662-1722)³²⁾

본관 나주, 거주지 원주. 1687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16위, 전체 46위), 동년 동시
진사 입격(2등 22위, 전체 27위), 1691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4위, 전체 14위)
1691년 가주서에 올랐다. 이듬해 병조좌랑에 올랐으며 1693년에는 홍문관수찬, 정언,

31)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천장(天章), 호는 낙전당(樂全堂). 정몽주(鄭夢周)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참봉 정충원(鄭忠元)이다. 1540년(중종 35)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고, 1544년(중종 39)에 생원으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그 뒤 대교·홍문관박사를 거쳐 예조좌랑이 되고, 사간원사간을 지낸 뒤 승정원승지가 되었다. 천성이 순후하여 남의 장단점을 말하지 않았고, 처사(處事)에 신밀(愼密)하여 실수가 없었다. 또한, 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겨 하고자 하는 것은 난이(難易)를 막론하고 뜻대로 봉양하였고, 죽은 뒤에는 3년을 시묘하여 정성을 다하였다. 외직으로 나가 있을 때는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여 선정을 베풀었다. 죽은 뒤에 효행으로 정려가 내려졌다.

32) 일찍이 할아버지로부터 학문을 익혀 1687년(숙종 13) 사마양시에 모두 합격, 생원·진사가 된 뒤, 1691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부정자·승정원주서·성균관전적·병조정랑 등을 거쳐 1693년 수찬이 되고, 이어 정언·지평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갑술옥사가 일어나자 수찬으로서 상소, 귀양간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 등 남인의 노대신들을 구하려다가 도리어 왕의 노여움을 사 삭탈관작당하였다. 1707년 다시 등용되어 안성군수·선산부사·공조참의·호조참의 등을 거쳐, 1722년 풍덕부사로 있을 때 임지에서 죽었다.

지평을 지냈다. 이듬해 홍천현감을 거쳐 홍문관수찬에 올랐으며 1707년에 안성군수, 부교리 등을 지냈다. 1712년 예빈정을 거쳐 1721년 공조참의, 호조참의에 올랐으며 1722년 풍덕부사를 지냈다.

정상교(丁庠敎, 1797-?)

본관 나주, 거주지 원주. 1827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4위, 전체 24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석형(鄭錫衡, 1625-?)

본관 초계, 거주지 원주. 1651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7위, 전체 22위), 1678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31위, 전체 41위), 1677년 참봉에 임명됨.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좌랑으로 재직했음이 기록되어 있지만, 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우주(鄭宇柱, 1666-1740)³³⁾

본관 초계, 거주지 강릉. 1690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19위, 전체 49위), 1691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7위, 전체 27위)
1691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승문원부정자를 거쳐 1693년 찰방, 1696년 승문원정자에 이른다. 1698년 병조좌랑에 이어 만경현감을 지냈다. 1701년 병조좌랑을 거쳐 함흥판관, 횡성현감을 지내다 1711년 지평, 진주목사에 오른다. 1715년 부호군에 임명되었으며 장령을 거쳐 1722년 안변부사, 1723년 길주목사, 1725년 안동부사를 지낸다. 1729년 승지에 임명되었으며 1730년에 병조참의를 거쳐 1731년 부호군에 제수된다. 이듬해인 1732년에는 양양부사로 부임한다.

33) 1691년(숙종 17)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10년 사헌부지평이 되었으며, 장령을 거쳐 1715년 세자시강원필선이 되었고, 같은 해 12월 다시 장령으로 옮겼다. 1725년(영조 1) 안동부사로 재직할 때 향리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727년 남양부사로 재직할 때에는 임금의 능행(陵幸)을 당하여 밤에 햇불을 세우려고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었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다시 파직되고 의금부에서 고초를 겪었다. 같은 해 3월 의금부에서 풀려났으며, 11월에는 승정원승지에 사용되었다. 다음해 여주목사를 거쳐 1729년 승지로 천보되었다.

정운(鄭漣, 1828-?)

본관 영일, 거주지 강릉. 1876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31위, 전체 41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원선(鄭元善, 1760-?)

본관 초계, 거주지 횡성. 1794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47위, 전체 50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원시(鄭元時, 1824-?)

본관 초계, 거주지 원주. 1864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22위, 전체 32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이운(鄭履運, 1745-?)

본관 영일, 거주지 강릉. 1798년 문과 식년시(병과 26위, 전체 36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전(鄭漣, 1585-?)

본관 영일, 거주지 고성(高城). 1606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4위, 전체 9위), 1612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1위, 전체 31위)

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강원도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진국(鄭鎭國, 1740-?)

본관 초계, 거주지 횡성. 1774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27위, 전체 37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현덕(鄭顯德, 1810-1883)³⁴

본관 초계, 거주지 황성. 1850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29위, 전체 39위)

1850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59년 전적을 거쳐 1862년에는 헌납, 교리를 지냈다. 2년 뒤에는 장령, 사복정, 교리를 지냈으며 서장관에 임명된다. 1865년 성균관사성에 임명되었으며 1866년에는 이조참의, 좌승지, 1867년에 동래부사를 지낸다. 1882년 부호군, 우승지를 거쳐 형조참판에 제수된다.

정현오(鄭顯五, 1839-?)

본관 초계, 거주지 황성. 1873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79위, 전체 109위), 1888년 문과 별시(을과 3위, 전체 4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혹(鄭穀, 1559-1617)³⁵

본관 초계, 거주지 원주. 1589년 증광시 생원 입격(3등 55위, 전체 85위), 동년 동시 진사 입격(3등 22위, 전체 52위). 1594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6위, 전체 10위)

1596년 정언을 지냈으며 이듬해 검토�관을 거쳐 부수찬에 임명된다. 1598년 지평을 거쳐 이조정랑에 임명되었다. 같은해 12월 홍문관 수찬을 거쳐 1599년 종사관을 거쳐

34)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백순(伯純), 호는 우전(雨田). 1850년(철종 1)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1862년 부사과로 되었으며, 고종 초에 서장관(書狀官)으로 정사 서형순(徐衡淳)을 따라 청나라에 다녀왔다. 대원군이 집권하자 심복인물로서 동래부사가 되어 일본과의 교섭을 담당하였다. 대원군의 뜻을 받들어 일본 메이지신정부(明治新政府)의 국교재개의 교섭을 서계문제(書契問題)를 이유로 끝내 거부하였다. 일본과의 암거래를 하는 무리를 엄중단속하여 박승달(朴承達)을 외화 소지혐의로 참형에 처하였다. 그 뒤 이조참의가 되었다가 대원군이 실각하자 민씨척족정권에 의하여 파면되어 유배되었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이 일어나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자 형조참판으로 기용되었으나 대원군이 물러남으로써 이에 다시 파면되어 원악도(遠惡島)로 유배된 뒤 그 곳에서 사사(賜死)되었다.

35) 증조부는 정윤겸(鄭允謙)이고, 조부는 정숙(鄭淑)이다. 부친 송정대부(崇政大夫) 팔계군(八溪君) 정종영(鄭宗榮)과 모친 이엄(李兪)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형은 정섭(鄭燮)·정렬(鄭烈)·정묵(鄭默)이다. 부인은 권수(權守)의 딸이다. 1589년(선조 22) 증광시에서 생원 3등 55위로, 진사 3등 22위로 합격하였다. 1594년(선조 27) 정시에서 병과 6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이후 정언(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1596년(선조 29)에 부수찬(副修撰)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부교리(副校理)·사간(司諫)·수찬(修撰)·우부승지(右副承旨)·이조정랑(吏曹正郎)·지평(持平) 등을 역임하였다. 1598년(선조 31)에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서 유랑민들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1603년(선조 36)에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임명되었다. 1605년(선조 38)에는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호군(行龍讓衛護軍)에 임명되었다. 이후 강원감사(江原監司)·병조참의(兵曹參議)·예조참의(禮曹參議) 등을 역임하였다.

1601년에는 성균관사성에 임명된다. 1602년 사간원사간을 거쳐 사복시정에 재임했으며 홍문관응교를 지냈다. 1603년 우승지를 지낸 뒤 병조참의를 지냈으며, 1605년 예조참의를 거쳐 1607년 강원감사에 임명되었다.

정홍순(鄭鴻淳, 1784-?)

본관 초계, 거주지 횡성. 1813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0위, 전체 15위), 1845년 문과 정시 합격(을과2위, 전체 3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희동(鄭熙東, 1846-?)

본관 진양, 거주지 횡성. 1880년 문과 알성시(병과 2위, 전체 5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희보(鄭熙普, 1683-1763)³⁶⁾

본관 초계, 거주지 원주. 1715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2위, 전체 32위), 1725년 문과 증광시 합격(갑과 2위, 전체 2위)

1726년 전직에 임명되었다. 바로 병조좌랑이 되었으며 이듬해 평강현감으로 부임하였

36)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중욱(仲旭), 호는 퇴성헌(退省軒). 아버지는 첨지중추부사 하주(廈柱)이며, 어머니는 안동김씨(安東金氏)로 사헌부감찰 윤중(胤重)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종조(從祖)인 수석(洙碩)에게 수학하였다. 재주가 남달리 뛰어나 주위로부터 큰 기대를 모았으며, 영의정 이여(李翕)에게 학문이 높다는 칭찬을 받은 일도 있었다. 1715년(숙종 41) 진사시에, 1725년(영조 1)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고, 내성시직장(內臚寺直長)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전직으로 승진되고 이어 병조좌랑으로 옮겼으며, 1727년 평강현령으로 나가 3년 동안 치적을 쌓았다. 1729년 아버지 상을 당해 고향에 돌아갔다가 삼년상을 마친 뒤 1732년에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었다. 이 해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정부의 구황 정책(救荒政策)이 삼남에만 치우치고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을 지적, 이의 시정을 간하는 소를 올려 왕의 하답을 얻었다. 1733년 사간원정언이 되고, 병조정랑을 거쳐 평안도도사로 부임, 청나라를 내왕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색을 맡아 보았다. 1734년 사간원사간, 이듬해 사헌부집의, 1739년 시강원보덕 등을 역임하였다. 1741년 다시 사간이 되었는데, 당시 왕실의 외손이었던 원경하(元景夏)와 의견 충돌이 생겨 권력층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후 여러 한직을 거치다가 1747년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다시 원경하의 무고로 사직하였다. 1750년 황주문안사에 임명되고, 조사오위장(曹司五衛將)·병조참지 등을 거쳐 해미현감으로 나갔다가 곧 사직하였다. 1755년 의주문안사에 다시 임명되었으나, 원경하 일당의 모함을 받아 삼척으로 유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사장(詞章)에 뛰어나 조하망(曹夏望)·강박(姜樸) 등과 함께 교우 관계를 맺고 문명을 크게 떨쳤다. 저서로는 『퇴성헌유고』 12권이 전한다.

으나 한달만에 사직하였다. 1731년 지평에 다시 임명되었으며 정언을 거쳐 이듬해 병조정랑에 임명되었다. 다시 지평을 역임하다 1734년 장령을 거쳐 1737년 헌납, 사간을 거쳐 부호군에 임명된다. 1739년 다시 사간에 임명되었으며 1740년에는 집의, 이듬해 필선을 거쳐 1748년 동부승지에 오른다. 1752년 병조참지를 거쳐 해미현감으로 부임했고, 1755년 의주문안사에 임명되었다.

조대환(曹大煥, 1856-?)

본관 창녕, 거주지 강릉. 1892년 문과 별시(병과 10위, 전체 14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범구(趙範九, 1858-?)³⁷⁾

본관 풍양, 거주지 원주. 1891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442위, 전체 472위)
1887년 홍문관수찬을 거쳐 1888년 부교리에 임명된다. 서학교수, 헌납을 지내다 1889년 장령으로 임명되었으며 1890년 다시 수찬에 오른다. 영암군수를 거쳐 1892년 부수찬, 성균관사성, 장악정을 역임하다 1894년 집의, 부수찬을 맡는다. 1895년 장례원주사, 부교리에 올랐으며 이듬해 하동군수와 김제군수를 맡는다. 1898년 중추원3등의관에 올랐으며 이듬해는 홍문관시독관, 1900년에는 종3품 집례를 맡는다.

조창교(趙昌敎, 1800-?)

본관 한양, 거주지 양양. 1827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7위, 전체 11위)
1827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32년 교서관 교리를 거쳐 철방을 지냈으며 1837년 전적에 오른다. 1843년에 직강에 올랐으며 이후 장령, 병조좌랑을 거쳐 1854년 사예에 임명되었다. 이후 1859년 지평, 1860년 봉상첨정을 지냈으며 1864년에 지평으로 임명

37) 1887년(고종 24) 홍문관수찬으로 임명되었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그 우두머리를 극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95년 부교리·장례원주사(掌禮院主事)에 올랐다. 같은 해 10월 12일 왕실근신인 이재순(李載純)과 임치수(林致洙)·이도철(李道徹)·이민평(李敏宏)·안경수(安駟壽)·김재풍(金在豐)·이충구(李忠求)·이세진(李世鎭) 및 일부 양인(洋人)까지 포함하여 합작모의하였다. 이들은 시해당한 명성황후에 대한 복수와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을 타도하고 정부를 개조하여 시국을 수습하고자, 병사를 모아 궁궐을 공격하는 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 전용교로서 관련되었으나 범행이 피동적이며 경미하다 하여 석방되었다. 1896년 하동군수·강릉부참서관을 거쳐, 1897년 김제군수를 지냈다.

되었다.

조항존(趙恒存, 1769-?)

본관 풍양, 거주지 강릉. 1792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39위, 전체 49위).

1792년 가주서에 임명되었으며 1796년 전직에 올랐다. 이후 1800년에 지평, 이듬해 정언을 거쳐 1805년 장령에 오른다. 다음 해인 1806년에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다.

진의(秦嶽, 생몰년 미상)

본관 삼척, 거주지 이천. 1522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11위, 전체 41위), 1555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8위, 전체 28위)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는 교수, 현감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차봉운(車鳳運, 1737-?)

본관 연안, 거주지 영월. 1777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8위, 전체 28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강로(崔綱魯, 1795-?)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814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8위, 전체 18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규태(崔逵泰, 1684-?)

본관 강릉, 거주지 양양. 1713년 증광시 진사 입격(2등 2위, 전체 7위), 1723년 문과 식년시 합격(갑과 2위, 전체 2위)

1724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곡성현감을 거쳐 1729년 예조좌랑, 1730년에 어천찰방, 예조정랑에 오른다. 이듬해 병조정랑을 거쳐 1735년에 직강, 1736년 장령, 부호군에 제수되었다. 1741년 봉상정을 거쳐 홍천현감을 지냈으며 1746년 사헌부장령에 오른다. 이후 함경도사, 정언을 지내다가 1753년 성균관사성에 오른다.

최기백(崔基鉅, 1575-?)

본관 강릉, 거주지 양양. 1606년 증광시 생원 입격(3등 34위, 전체 64위), 1635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0위, 전체 20위)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성균관사예를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최문식(崔文湜, 1610-1684)³⁸⁾

본관 강릉, 거주지 원주. 163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9위, 전체 19위)

1633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636년 고산찰방에 올랐으며 1639년에 지평, 강원도사, 전적, 형조정랑을 역임했다. 1648년에 직강에 임명되었으며 1651년 장연부사, 1656년 영광군수를 거쳐 1662년 공산현감, 1665년 강릉부사를 지낸다. 1667년 봉상정에 올랐으며 승문원판교를 지낸다. 이듬해 장령에 올랐으며 1674년에는 헌납, 사간을 지냈다. 1676년 예조참의에 올랐으며 이듬해 대사간에 올랐다. 1678년 도승지에 제수되었다. 1679년에는 대사간, 병조참판을 지냈다.

최문활(崔文活, 1600-?)

본관 강릉, 거주지 원주. 163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6위, 전체 26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상은(崔相殷, 1644-?)

본관 강릉, 거주지 양양. 1673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9위, 전체 39위), 1696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2위, 전체 22위)

1697년 봉상주부에 제수되었다. 이후 감찰을 거쳐 1700년 예조좌랑, 예조정랑에 올랐다. 그러나 예조정랑에 오른지 한달 만인 1700년 7월에 해남현감에 부임하였다.

38) 1630년(인조 8) 형 문활과 함께 식년문과에 응시, 나란히 병과로 급제하여 형제동방(兄弟同榜)의 영예를 누렸다. 그 뒤 정언·지평·공산현감 등을 거쳐 1665년(현종 6) 강릉부사가 되었다가, 내직에 돌아와서 장령·헌납·사간 등 대간직을 역임하였다. 1677년(숙종 3) 대사간에 오른 다음 승지·강원도관찰사를 거쳐서 다시 대사간으로 있다가 관직을 떠났다.

최선(崔鑾, 생몰년미상)

본관 수원, 거주지 춘천. 1687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9위, 전체 29위)

1691년에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지평현감(砥平縣監)에 부임하였으며 1694년 횡성현감으로 재직하였다.

최송제(崔嵩齊, 1647-?)

본관 전주, 거주지 춘천. 1677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8위, 전체 38위), 1686년 문과 정시 합격(을과 1위, 전체 2위)

1678년 참봉에 임명되었으며 1687년에 예조좌랑에 올랐다. 이듬해 진안현감이 되었으며 1689년에 직강에 올랐다. 같은 해 예조정랑을 거쳐 1690년에 성균관사예에 올랐으며 1691년 정선군수를 역임하였다.

최연(崔演, 1500-1549)³⁹⁾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525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8위, 전체 23위), 동년 동시 진사 입격(3등 12위, 전체 42위). 1525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4위, 전체 7위).

1525년 예문관검열, 저작, 1531년 홍문관수찬, 정언, 지제교를 지냈으며 1532년에 병조좌랑을 역임했다. 1533년 병조정랑을 거쳐 1537년 장령, 종사관, 부제학, 1538년 장령에 제수되었으며 1541년 병조참지, 1544년 동부승지, 우부승지를 지내다 1545년 도

39) 1519년(중종 14) 사마시를 거쳐 1525년(중종 20)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이 되고, 이어 저작에 올랐다가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설서·사서를 거쳐 1531년(중종 26)에 김안로(金安老)의 전횡을 고변하고 홍문관수찬에 올랐다. 이어 정언·지제교를 거쳐 병조좌랑에 전임되었을 때, 대간으로부터 여러 차례 탄관이라는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신임이 깊어 유임되었다. 1537년(중종 32) 장령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문장이 능하다고 하여 명나라 사신을 맞는 원접사(遠接使)의 종사관으로 활약하였다. 이 해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자 충청도어사가 되어 농민을 위무하였다. 다시 조정에 들어와 장례원판결사를 거쳐 부제학·대사간·동부승지·좌승지 등을 역임하고 1545년(명종 즉위년) 도승지에 올랐다. 이 해에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이기(李芻)·임백령(林百齡) 등 소운에 가담, 위사공신(衛社功臣) 3등에 책록되고 동원군(東原君)에 봉해졌으며 가의대부에 올랐다. 이어 도승지로 경연참찬관을 겸임했고, 1546년(명종 1) 이조참판에 보임되었다. 한성부좌윤을 거쳐 병조참판을 역임했는데, 그 동안 승문원 소속의 노비 2구를 점탈했다는 이유로 대간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이듬해 병조판서에 승진했고, 곧 한성부판윤으로 전임되어, 『무정보감(武定寶鑑)』을 편찬하였다. 1548년(명종 3) 지중추부사 겸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를 거쳐, 이듬해 동지사(冬至使)로 명나라에 가던 중 평양에서 병사하였다. 시문에 능해 국가에서 주관하는 교서·책문을 주로 담당했고, 어제시(御製詩)에 항상 수석 또는 차석을 차지하여 왕의 총애를 받았다. 저서로 『간재집(良齋集)』이 있다. 좌찬성 겸 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양(文襄)이다.

승지에 올랐다. 이듬해 한성부좌윤이 되었고 1547년에는 병조참판에 올랐다. 1548년 한성부판윤에 올랐으며 병조판서를 지냈다.

최완(崔浣, 1609-?)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639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53위, 전체 83위), 1651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7위, 전체 27위)

1652년 학유에 올랐다. 학록을 거쳐 1658년 성균박사, 전적을 지냈으며 이듬해 예조좌랑에 올랐다. 1660년 호조좌랑을 거쳐 정선군수로 있었으며 1664년 예천군수를 거쳐 1665년 형조정랑에 올랐다. 1669년 풍기군수, 1671년 직강, 상례를 거쳐 안성군수를 지냈다. 1682년에 좌통례, 오위장 등을 지내다 1688년 사직하였다.

최옥(崔煜, 1594-?)⁴⁰⁾

본관 수원, 거주지 춘천. 1618년 증광시 진사 입격(2등 8위, 전체 13위), 1629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7위, 전체 13위)

1629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기사관을 거쳐 주서에 올랐고, 1631년에 형조좌랑에 올랐다. 백유격접빈관(白遊擊接伴官)을 거쳐 1640년 예조좌랑, 영광군수를 지냈으며 1644년에는 사예를 지냈다. 청송부사를 거쳐 1652년 장령에 올랐으며 1655년 창원 부사에 임명되었다.

최운부(崔雲溥, 1548-1575)⁴¹⁾

40) 1594년(선조 27)~미상. 조선 중기 문신. 자는 여명(汝明)이다. 본관은 수원(水原)이다. 증조부는 최세홍(崔世弘)이고, 조부는 최호(崔濩)이다. 부친 최충원(崔忠元)과 모친 홍익준(洪翼俊)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1618년(광해군 10) 증광시에서 진사 2등 8위로 합격하였고, 1629년(인조 7) 별시 문과에서 병과 7위로 급제하였다. 1630년(인조 8)에는 주서(注書)로 재직 중이었는데, 목릉(穆陵)의 관을 영악전(靈幄殿)에 봉안하는 일에 참여하였다. 1652년(효종 3)에는 장령(掌令)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대사헌(大司憲) 홍무적(洪茂績)으로부터 대신(大臣)을 맡보아서 무례하게 행동했다는 탄핵을 당하기도 하였다.

41) 1548년(명종 3)~1575년(선조 8). 조선 중기 문신·유학자. 자는 대중(大中)이고, 호는 내한(內翰)이다. 본관은 강릉(江陵)이고, 출신지도 강원도 강릉(江陵)이다. 최문한(崔文漢)의 후손으로, 증조부는 최자점(崔自霽)이고, 조부는 최세환(崔世桓)이며, 부친은 최해(崔澗)이다. 부인은 권화(權和)의 딸 안동권씨(安東權氏)이다. 1567년(선조 즉위년) 식년시 진사 2등 8위로 합격하였고, 1570년(선조 3) 식년시 을과 5위로 문과에 급제하였다. 1572년(선조 5) 예문관(藝文館)에서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인 한림(翰林)으로 추천하였고, 1574년(선조 7)에는 이조낭청(吏曹郎廳)에 의해 홍문록(弘文錄)에 이름이 올려졌다. 유고(遺稿) 『내한유고(內翰遺稿)』가 있는데, 후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567년 식년시 진사 입격(2등 8위, 전체 13위), 1570년 문과 식년시 합격(을과 5위, 전체 8위)

1572년 예문관검열인 한림으로 추천되었고, 1574년에는 이조낭청에 의해 홍문록에 이름이 올랐다. 같은 해에 봉교로 재직하던 중 사가독서로 선발되었다.

최응천(崔應天, 1615-1671)⁴²⁾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642년 식년시 진사 입격(2등 16위, 전체 21위), 1646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8위, 전체 18위)

1637년 만호로 임명되었으며 1641년에는 부호군에 임명되었다. 1648년에는 성균관학유, 학록을 지냈으며 1652년 학정을 지냈다. 이듬해 공조좌랑을 거쳐 황주판관을 지냈다. 1654년 고성현령을 거쳐 1660년 형조좌랑에 제수되었다. 같은 해 겸춘추, 무안현감을 지냈으며 이듬해 보령현감, 봉산군수를 지냈다. 1668년에는 대구부사, 1670년 진주목사를 지냈다.

최일규(崔一奎, 1698-?)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735년 식년시 합격(병과 23위, 전체 33위)

1737년 학유를 거쳐, 1738년 보안찰방을 지냈다. 1740년에 전적, 감찰을 거쳐 1742년 예조좌랑에 올랐다. 1748년에 직강에 올랐으며 평안도사, 문검을 지내다 1768년 예조좌랑을 지냈다.

최태후(崔泰厚, 1656-?)

본관 수원, 거주지 춘천. 1683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47위, 전체 77위), 169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6위, 전체 26위).

1691년 학정에 제수되었다. 1693년에 전적을 거쳐 1702년 선전관을 지냈다. 1711년

손 최형길(崔亨吉)이 강릉최씨(江陵崔氏) 18명의 유고(遺稿)를 합본하여 출판한 『동원세고(東原世稿)』 속에 포함되어 있다. 『내한유고』에서 주목할 작품으로는 「호당사적(湖堂事蹟)」 등이 있다.

42) 1642년(인조 20)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진사(進士) 2등 16위로 합격하고, 1646년(인조 24) 병술(丙戌) 식년시(式年試) 병과(丙科) 8위로 급제했다. 사장(詞章)과 문장을 짓는 일 외에도 별자리나 명리학, 음율과 사어(射御)에 두루 통하였다. 관직은 성균관학유(成均館學諭)를 거쳐 진주목사(鎭州牧使)에 이르렀다. 정호(鄭滄)의 『장암집(丈巖集)』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다. 문집으로 『제촌유고』가 있다.

감찰을 거쳐 하양현감을 지냈다.

최필숭(崔必崇, 생몰년 미상)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480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53위, 전체 83위), 1486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23위, 전체 33위)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주부(主簿)를 지냈다고 나오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항제(崔恒齊, 1649-?)

본관 전주, 거주지 춘천. 1675년 증광시 생원 입격(2등 10위, 전체 15위), 동년동시 진사 입격(2등 22위, 전체 27위), 1677년 문과 알성시 합격(병과 2위, 전체 5위)

1678년 사변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승문정자, 승문박사에 임명되었으며 1680년에는 전직에 올랐다. 이후 1689년에는 이조좌랑, 병조정랑을 거쳐 정언을 지냈으며 강춘도사(江春都事)와 진보현감(眞寶縣監)을 지냈다. 1692년에 사예를 거쳐 이듬해 세자시강원 필선, 세자시강원문학을 거쳐 장령, 세자시강원보덕을 거쳐 1696년 청송부사에 올랐다.

최흡(崔洽, 1544-?)

본관 전주, 거주지 홍천. 1583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3위, 전체 9위)

1593년 공조좌랑, 1600년 공조정랑을 지냈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부사(府使)를 지냈다고 나오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관련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계도(河啓圖, 1587-?)

본관 진양, 거주지 강릉. 1610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63위, 전체 93위), 163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8위, 전체 18위)

1642년 교서관교리를 거쳐 1643년 은계찰방, 1647년 진해현감을 지낸 뒤 1649년 봉상판관에 올랐다.

한광식(韓光植, 1729-?)⁴³⁾

본관 청주, 거주지 원주. 1777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2위, 전체 22위)

1777년 가주서에 임명되어 1780년 예조좌랑에 올랐다. 같은 해 병조정랑을 거쳐 이듬해 기사관을 지냈다. 1783년 병조좌랑을 거쳐 1785년 지평, 정언을 지냈다. 이듬해 병조정랑을 거쳐 1788년 전라도사로 부임했으며 이듬해 교리, 부수찬, 이조좌랑을 지냈다. 1790년 수찬을 맡았고 1790년부터 1797년까지 수찬, 부수찬, 사간, 집의, 헌납 등을 매년 돌아가며 맡다가 1797년에 성균사성에 오른다. 1798년에는 경원부사, 병조참지를 맡는다.

한병우(韓秉佑, 1798-?)

본관 청주, 거주지 강릉. 1834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39위, 전체 49위)

1834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1843년에 봉상주부에 올랐다.

한용탁(韓用鐸, 1759-1817)⁴⁴⁾

본관 청주, 거주지 원주. 1789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6위, 전체 36위), 1790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9위, 전체 29위)

1782년 색장을 지냈다. 1790년 사변가주서로 임명되었고 1791년에 이조좌랑, 부사과

43) 1789년(정조 13) 박규순(朴奎淳)·이귀운(李龜雲)·조운수(曹允遂) 등과 함께 홍문록(弘文錄)에 선발되었고, 이후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 등을 역임하였다. 1792년(정조 16) 의정부감상(議政府檢詳)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은언군(恩彦君)을 법에 따라 처단할 것을 청하였던 상소가 임금의 진노를 사게 되어 향리(鄉里)로 퇴출당하였다. 이후 사면되어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등을 역임하였다.

44) 일찍이 생원이 되어 1790년(정조 14) 원자정호경과(元子定號慶科)에 병과로 급제하고 문신강제(文臣講製)에 뽑혔다. 이듬해 충청도도사로 참시관(參試官)이 되었는데, 과장(科場)에서의 난동을 제지하지 못해 파직되었다. 1794년 홍문록(弘文錄)에 오르고 곧 장령이 되어 사치 풍조를 없애고 재정을 확충할 것과,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는지 두루 살필 것을 왕에게 상소하였다. 1799년 수찬이 되고, 1801년(순조 1) 경상도 창원·하동 등지에 괘서(掛書)를 한 범인과 그 관련자를 처리하기 위해 안핵사(按覈使)로 파견되었다. 이듬해 동래부사로 임명되었으나 전일에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그가 관찰사 휘하의 수령으로 임명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우의정 서용보(徐龍輔)의 주장에 따라 취소되었다. 대신 실록청당상에 이어 강화유수가 되었다. 때마침 기근이 혹심하며 진휼을 위해 조정에 공명첩(空名帖) 300장을 진휼 자금으로 요구해 허락받았다. 1804년 이조참판, 이듬해 예조참판에 이어 다시 이조참판을 거쳐, 1806년 공조판서가 되었다. 1807년 형조판서가 되어 맹인으로 사형수가 된 김대성(金大成)이 폐질인(廢疾人)임을 들어 감형을 진언, 정배(定配)하게 하였다. 1809년 한성판윤이 되고, 1812년 황해도관찰사를 거쳐, 이듬해 대사헌이 되어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예조판서·대사헌·이조판서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1816년 함경도관찰사로 나가 이듬해 임지에서 졸하였다. 시호는 정헌(靖獻)이다.

(副司果)를 지내다 충청도사에 임명된다. 1793년에는 병조정랑과 전적을 지냈으며 성균관전적에 제수되었다. 1794년 홍문록에 오르고 곧 장령이 되었다. 1799년까지 부수찬, 유통례, 응교, 집의 등을 차례로 지내고 1800년에 예조참의에 올랐다. 1801년 예조참판, 1802년 호조참판에 올랐으며 그 해에 강화유수를 지낸다. 1804년에 다시 예조참판에 임명되었으며 이조참판, 병조참판을 지내다 1806년 도총관에 올랐다. 그 해에 형조판서에 올랐으며 이듬해에는 사직제조를 맡았다. 1808년에는 동지의금부사에 올랐으며 형조판서, 광주유수를 지내다 1812년 황해도관찰사, 1813년 동지사예 임명되었다. 1814년 예조판서를 거쳐 대사헌을 맡는다. 이듬해 내의원제조, 한성판윤 등을 지낸다. 1816년 공조판서를 거쳐 함경도 관찰사에 임명된다.

한응원(韓應源, 1844-?)

본관 청주, 거주지 원주. 1891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5위, 전체 8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이원(韓以原, 1651-1720)⁴⁵⁾

본관 곡산, 거주지 원성(현재의 원주, 문과방목 상의 표기가 원성으로 되어 있음). 1675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16위, 전체 46위), 1687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3위, 전체 23위)
1688년에 가주서에 임명되었으며, 1692년에 결성현감, 1694년에 평안도 도사에 임명되었다. 1696년에는 고성현감으로 임명되었으며, 1710년에는 장령으로 임명되어 1719년까지 장령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다.

45) 1675년(숙종 1) 사마시를 거쳐, 168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감찰이 되었다가 1692년 결성현감을 거쳐, 1694년 전적을 역임하고 이어 평안도도사로 나갔다. 1698년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사직하고, 1701년 충청도도사가 되었다가 병조에 들어가 정랑이 되었다. 이 때 수많은 문안들을 한번보고 바로 거짓임을 적발하여냄으로써 하리(下吏)들이 두려워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그 뒤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향리에 있다가 상기를 마치고 고산찰방·장령을 거쳐 해미현감이 되었다. 그 때 해적떼가 수백 척의 배를 몰고 온다는 헛소문으로 주민들이 동요하였는데, 그는 흠어진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현민들을 안정시켰다. 1715년 가례원류사건(家禮源流事件)으로 소론인 교리 송성명(宋成明)을 논척하였다가 파직되었다. 1716년 장악원정이 되었고, 다음해 필선에 제수되었으나 사퇴하였다. 1718년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의 효종묘정 배향을 청하였으며, 사복시정이 되었다.

한종운(韓鐘運, 1778-?)

본관 청주, 거주지 춘천. 181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3위, 전체 13위)

1818년 지평에 재직 중이었음이 확인되었다.

한희원(韓熙元, 1871-?)

본관 청주, 거주지 원주. 1892년 문과 별시 합격(병과 7위, 전체 11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함헌(咸軒, 1508-?)⁴⁶⁾

본관 강릉, 거주지 강릉. 1531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37위, 전체 67위), 1534년 문과
알성시 합격(병과 3위, 전체 6위)

1534년 간성군수, 1550년 예조정랑, 1562년 삼척부사를 지냈음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 간성군수, 삼척부사를 지냈다고 나오지만, 조선왕조실
록에서는 예조정랑을 지낸 기록만 확인된다.

홍대호(洪大浩, 1755-?)

본관 풍산, 거주지 원주. 1803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64위, 전체 94위), 동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8위, 전체 18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홍만기(洪萬紀, 1650-?)

본관 풍산, 거주지 원성(현재의 원주, 문과방목 상의 표기가 원성으로 되어 있음).

1687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26위, 전체 56위), 1689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2위,
전체 22위)

46) 1534년(중종 29)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간성군수가 되었다. 1552년(명종 7) 예빈시정(禮賓寺正)으로 있을 때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 서울인 북경(北京)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이천부사가 되었다. 1562년 삼척부사를 지냈으며, 재임중 관리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백성들을 구휼하여 치적을 남겼다. 만년에는 학풍의 퇴폐를 통탄하고 강릉에 오봉서원(五峯書院)을 짓고 서장관으로 북경에 다녀올 때 가져온 공자(孔子)의 진상을 비치하여 추모하면서 후진을 가르쳤으며, 이황(李滉)·정광필(鄭光弼) 등과 교류하였다. 저서로는 『칠봉문집』 1책이 있다.

1673년 사간원정언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1691년 사헌부지평, 1693년 사헌부장령, 문학, 1696년 사간원헌납에 임명되었다. 또한 1707년에는 승지로 임명되었다.

홍성좌(洪聖佐, 1695-?)

본관 남양, 거주지 춘천. 1726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3위, 전체 23위)

1727년 가주서에 재직하였다.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에는 성균관전적을 지냈다고 나오지만,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홍수보(洪秀輔, 1723-?)⁴⁷⁾

본관 풍산, 거주지 원주. 1744년 식년시 생원 입격(2등 12위, 전체 17위), 1756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5위, 전체 8위).

1756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검열을 거쳐 1759년 예조정랑에 임명되었으며 전라도사, 지평, 이조좌랑을 거쳐 1761년에는 정언, 사서, 수찬을 맡는다. 1762년부터 1765년까지 부교리를 맡다가 1765년 헌납에 올랐다. 1768년에 부수찬, 수찬, 장령 등을 맡다가 1769년에 사간에 올랐으며 1770년 평해군수를 거쳐 1775년 승지에 오른다. 1776년에는 병조참판을 역임했으며 1779년에는 부총관이 되었다. 1780년에는 한성우윤을 거쳐 형조참판, 부총관을 지내다 1781년 대사간에 오른다. 이후 1785년까지 부총관, 형조참판, 좌윤 등을 지내다 대사헌에 오르게 된다. 같은해 동지춘추관사를 맡았으며 1789년까지 대사헌, 경기감사 등을 맡다가 1790년에 강화유수로 부임한다. 1792년에는 한성판윤, 형조판서, 대사헌을 맡았으며 우참찬에도 제수된다. 이듬해 사직제조를 거쳐 1795년에 판의금부사, 판돈녕부사로 임명되었다.

47) 1756년(영조 32)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62년(영조 38) 승지로 재직 중 영조의 명을 받아 예문관 현판(懸板)을 써 붙였다. 집의·수찬·필선(弼善)으로 재직 중에 세자를 잘 보필한 공로로 대록피(大鹿皮) 1령(令)이 내려지고 승지로 발탁되었다. 1776년(정조 즉위년) 정조가 즉위한 후 외직인 경기수군절도사(京畿水軍節度使)로 파견되었다. 1788년(정조 12) 경기도관찰사 재직 시절 정조가 화성으로 행차할 때 선창(船艙) 축조(築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탄핵을 받아 관직을 박탈당하고 정배당하였다. 후에 다시 서용되어 강화부유수·예조참판·한성부판윤·의정부좌참찬등을 역임하였다.

홍언철(洪彦喆, 1729-?)⁴⁸⁾

본관 남양, 거주지 춘천. 1762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61위, 전체 91위), 동년동시 진사 입격(3등 51위, 전체 81위), 1763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20위, 전체 30위).

1763년 가주서로 임명되었다. 1767년 전적을 거쳐 양근군수를 지냈으며 1769년에 정언, 이조좌랑을 지낸다. 이듬해 장령으로 임명되었으며 우통례, 헌납을 거쳐 1775년 좌통례, 1776년 사간에 임명된다. 이후 평안도사와 집의를 거쳐 1778년 다시 사간에 부임한 뒤 1780년에는 영해부사를 지낸다. 1783년 봉상정, 집의, 사간을 지내고 사복시정에 임명되었다. 이후 1791년까지 집의, 사간을 오가면서 재직하다 1792년 승지에 제수되었다. 1795년에는 청송부사에 임명되었다.

홍은모(洪殷謨, 1844-?)

본관 풍산, 거주지 원주. 1870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12위, 전체 15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홍의호(洪義浩, 1758-1826)⁴⁹⁾

본관 풍산, 거주지 원주. 1780년 식년시 진사 입격(2등 8위, 전체 13위), 1784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2위, 전체 5위)

1784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병조좌랑, 지평을 지냈으며 1786년에는 서학교

48) 1765년(영조 41) 한림추소시(翰林追召試)에 참여하여, 이겸빈(李謙彬) 등과 함께 선발되었고, 이후 대교(待敎)·장령(掌令)·정언(正言) 등을 역임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 사간(司諫)으로 재직 중, 임금으로부터 삼사(三司)의 신하들이 이해관계에만 얽혀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질책을 당하였다. 그 또한 이 일에 연루되어 동료 관원들과 함께 사판(仕版)에서 삭제를 당하였다. 그러나 곧 사면되어 재차 사간으로 임명되었다.

49)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양중(養仲), 호는 담녕(澹寧). 원주 출생. 홍만기(洪萬紀)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홍중효(洪重孝)이고, 아버지는 참판 홍수보(洪秀輔)이며, 어머니는 박종윤(朴宗潤)의 딸이다. 대사헌 홍인호(洪仁浩)의 아우이다. 1784년(정조 8)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초계문신(抄啓文臣)에 선발되고 지평·집의·응교 등을 거쳐, 동부승지, 호조·예조·공조의 참판을 역임하였다. 1786년 교리로 있을 때 「진팔조이강소(陳八條二綱疏)」를 올려서 언로를 넓힐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경비를 절감할 것, 군사를 조련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것, 법금을 엄격히 하여 기강을 세울 것, 상벌을 명백히 하여 권징을 보일 것 등을 진언하고, 1802년(순조 2) 한성부 판윤이 되어 『선조심리판부(先朝審理判付)』 16권을 찬진(撰進)하였다. 이듬해 사은부사(謝恩副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와 의주부윤 대사간을 역임하고, 이어 호군이 되었는데, 영남유생 권재강(權載綱) 등의 진소(陳疏)사건과 관련되어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복직되어 예조·형조·공조의 판서 등을 역임하면서 1815년과 1823년 두 차례에 걸쳐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25년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저서로 『담녕집』, 『청구시지(靑丘詩誌)』가 있다. 시호는 정헌(正憲)이다.

수, 부수찬, 수찬, 부교리를 차례로 지냈다. 1787년에 사예, 교리를 지낸뒤 1789년 문검, 사복시정, 돈녕도정 등을 지낸다. 이후 병조참지를 거쳐 승지에 임명되었다. 1792년 강릉부사를 거쳐 1794년 병조참의, 1796년에는 청송부사를 지낸다. 1799년에는 영광군수를 지냈으며 이듬해 병조참지를 거쳐 조사위장을 거쳐 1802년 좌승지에 임명되었다. 공조참판과 동지의금부사를 거쳐 1803년 병조참판과 호조참판을 지낸다. 1807년 부총관을 지냈으며 1810년에는 장악제조, 1812년에는 강화유수를 역임했다. 1814년 도총관, 한성판윤, 제조사를 지냈으며 이후에도 계속 도총관, 지사, 동지춘추관사 등을 오가다 1822년 동지돈녕부사에 임명된다. 1815년과 1823년 두 차례에 걸쳐 동지정사로 청나라에 다녀왔으며 1825년에는 봉조하로 임명되었다.

홍인조(洪寅祚, 1724-?)

본관 남양, 거주지 삼척. 1794년 정시 합격(병과 41위, 전체 44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홍인호(洪仁浩, 1753-1799)⁵⁰⁾

본관 풍산, 거주지 원주. 1777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10위, 전체 20위)
1777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781년 병조좌랑을 거쳐 1781년 병조정랑에 올랐다. 이듬해 교리를 거쳐 장령, 부수찬을 지냈으며 1783년에 봉상시정에 임명되었다. 1785년에는 승지를 지냈으며 1786년에는 병조참지(兵曹參知)로 근무하였다. 1789년에 대사간으로 임명되었으며 1792년에 여주목사를 지낸다. 이듬해 병조참의로 임명되었으며 1794년에는 우승지가 되었다. 이후 다시 대사간을 지내다 1795년 동지의금부사를 지내다 1798년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50) 홍만기(洪萬紀)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홍중효(洪重孝)이고, 아버지는 참판 홍수보(洪秀輔)이며, 어머니는 박종윤(朴宗潤)의 딸이다. 1777년(정조 1)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783년 홍문관교리로 있을 때 지역적인 문벌과 당색에 구애받지 말고 덕망과 재능에 따라 인재를 널리 천거, 등용할 것과 언론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헌부·사간원의 관원들을 너무 자주 교체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를 왕에게 올렸다. 그 뒤 중화부사 승지를 거쳐 대사헌이 되었고, 1798년 강원감사가 되어서는 도내 각 읍의 관리들의 비위와 이들이 저지르는 민폐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왕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앞서 1784년 왕명으로 각도의 형옥결안(刑獄決案)의 편집에 착수하여 1799년에 완성하였는데, 뒤에 동생 홍의호(洪義浩)가 증수하여 『심리록(審理錄)』이라 하여 간행하였다.

홍일형(洪一衡, 1828-?)

본관 남양, 거주지 춘천. 1851년 문과 알성시 합격(병과 1위, 전체 3위)

1856년 가주서를 지내다 1858년 전적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강진현령을 지내다 1862년 정언에 임명되었다. 1865년 장악정, 헌납을 거쳐 이듬해 봉상시정을 지냈다. 1867년 다시 헌납에 임명되었다.

홍재구(洪在九, 1835-?)

본관 남양, 거주지 원주. 1891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5위, 전체 15위)

1891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1894년 전적에 올랐다.

홍중효(洪重孝, 1708-1772)⁵¹⁾

본관 풍산, 거주지 원주. 1725년 증광시 진사 입격(3등 64위, 전체 94위), 1740년 문과 증광시 장원.

1740년 전적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이조좌랑에 제수되었다. 1742년에는 정언을 지냈으며 이듬해에는 이조좌랑을 지냈다. 1744년 수찬을 거쳐 부교리를 지냈으며 다시 정언을 지내다 1745년 영동현감으로 부임한다. 1747년 헌납에 올랐으며 1751년에는 장령을 맡았다. 이후 1756년까지 헌납, 수찬, 부교리를 맡았다. 1756년 동래부사로 부임했으며 1757년 판결사를 거쳐 이듬해 동부승지, 대사간에 올랐다. 1762년에는 예조참의를 거쳐 부총관이 되었으며 동의금부사, 공조참판을 차례로 맡았다. 이듬해 호조참판, 대사간, 돈녕부사를 거쳐 1766년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1768년에는 형조판서에 임명되었으며 1771년 다시 대사헌으로 재직하게 된다.

51) 좌찬성 홍탁(洪濤)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홍주문(洪柱文)이고, 아버지는 우부승지 홍만기(洪萬紀)이며, 어머니는 이열(李說)의 딸이다. 1740년(영조 16) 진사로 증광문과에 장원하여 성균관전적·병조좌랑·정언·장령·홍문관교리·필선 등의 청요직(淸要職)을 지내고 1757년 동래부사가 되었다. 뒤이어 대사간·공조참의·호조참판을 지내고, 1763년에 주청사(奏請使)의 부사로 연경(燕京)에 다녀왔다. 1766년 대사헌이 되고 이어 한성부좌윤과 형조 및 예조판서를 지냈다. 영조의 사랑과 대우가 두터웠으나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죽은 이후로는 거의 향리에서 떠나지 않은 채 대사헌 이후의 벼슬은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경전에 마음을 쏟으면서도 시(詩)에 뛰어났으며, 만년에 글씨에도 힘을 기울였다. 저서로는 『소와집』, 『학본내외편(學本內外篇)』, 『이기왕복서(理氣往復書)』, 『예기강목고이(禮記綱目考異)』 등이 있다. 시호는 효민(孝敏)이다.

홍희종(洪羲宗, 1806-?)

본관 풍산, 거주지 원주. 1844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25위, 전체 35위)

1844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전직에 올라 병조정랑이 되었으며 이듬해 정언, 수찬을 거쳐 수찬에 임명되었다. 이후 1848년까지 집의, 부응교, 사복시정 등을 거쳤으며 1849년 사간, 응교를 지냈다. 이후 다시 사간을 지내다 1855년 집의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호조참의를 거쳐 1860년에 이천부사에 임명되었다.

황경(黃燦, 1790-?)

본관 평해, 거주지 춘천. 1837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4위, 전체 24위)

1837년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1840년 감찰을 거쳐 1842년에는 지평, 이듬해에는 이조좌랑에 임명되었다. 1844년 찰방을 거쳐 1847년 우통례가 되었으며 1851년에 병조참의에 올랐다.

황경언(黃敬彦, 1765-?)

본관 창원, 거주지 평강. 1807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3위, 전체 5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황내정(黃乃正, 1743-?)

본관 평해, 거주지 강릉. 178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0위, 전체 20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황도(黃燾, 1776-?)

본관 평해, 거주지 춘천, 1810년 문과 식년시 합격(병과 17위, 전체 27위)

1810년 가주서를 거쳐 1815년 전직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찰방을 거쳐 1818년 감찰을 지냈으며 1824년에 자인현감에 부임했다. 1826년에는 우통례, 이듬해에는 병조참의에 임명되었다. 1833년에 자산부사를 거쳐 1837년 영해부사를 지냈다.

황면(黃冕, 1701-?)

본관 창원, 거주지 춘천. 1740년 문과 증광시 합격(병과 34위, 전체 44위)

1747년 사록, 거주서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 승문원박사가 되었다. 1756년 훈련주부로 재직했으며 1761년 문검을 지냈다.

황여일(黃汝一, 1556-1622)⁵²⁾

본관 평해, 거주지 평해. 1576년 식년시 진사 입격(3등 17위, 전체 47위), 1585년 문과 별시 합격(을과 1위, 전체 2위)

1588년 검열로 재직하였다. 1594년 형조정랑에 임명되었으며, 도원수의 종사관으로 부임하였다. 1597년에는 사서, 장령에 임명되었으며 1605년에 성균관전적이 되었다. 1611년에 길주목사로 부임하였으며 1614년에는 사예로 임명되었다. 1617년에는 동래진병마첨절제사로 부임했으며 이듬해 동래부사가 되었다.

황옥(黃櫨, 1715-?)

본관 창원, 거주지 원주. 1744년 식년시 생원 입격(3등 43위, 전체 73위), 1751년 문과 정시 합격(병과 7위, 전체 11위)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관직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황중윤(黃中允, 1577-1648)⁵³⁾

52) 1576년(선조 9)에 진사가 되고 1585년 개종계별시문과(改宗系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88년 검열이 되었는데, 하번사관(下番史官)임에도 불구하고 출입하였다 하여 파직되었다. 1594년 형조정랑이 되고 곧 도원수 권율(權擥)의 종사관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뒤 도원수의 허락을 받고 일시 귀가하여 도원수와 함께 추고(推考)당하였다. 1598년 사서에 이어 장령이 되고, 이듬해 장악원정을 역임하였다. 1601년 예천군수가 되고 1606년 전적을 역임, 1611년(광해군 3) 길주목사, 1617년 동래진병마첨절제사가 되었다. 평해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조천록(朝天錄)』, 『해월집(海月集)』 14권 7책이 있다.

53) 1612년(광해군 4)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정언·헌납·낭청·사서 등의 관직을 지냈다. 1616년(광해군 8) 신경희(申景禧)의 옥사에 연루되어 추고당하였고, 1618년(광해군 10) 다시 사서에 기용되었다. 이 해 명나라에서 요동 순무를 위해 병마 7,000을 요청해 왔고, 조정에서 징병에 관한 의논이 있을 때 징병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어 병조좌랑에 올랐으나, 입직하다가 교대를 기다리지 않고 나간 것이 문제가 되어 체직되었으며, 이듬해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어, 무과시험시 관원들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고발하였다. 1620년(광해군 12) 주문사(奏聞使)로 임명되어 표문(表文)을 가지고 연경에 다녀온 뒤, 동부승지·우부승지·좌부승지를 거쳐 승지에 올라 왕의 측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정권이 교체되자 이이첨(李爾瞻)의 복심이 되어 광해군의 뜻에 영합하였고, 중국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오랑캐와의 통호를 주장하였다는 죄목

본관 평해, 거주지 평해. 1605년 증광시 생원 입격(1등 4위, 전체 4위), 동년동시 진사 입격(3등 9위, 전체 39위). 1612년 문과 증광시 합격(갑과 3위, 전체 3위)
1615년 낭청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사서, 정언 등을 지냈다. 1618년 병조좌랑에 부임하였으며 이듬해는 헌납에 올랐다. 1620년에는 주문사가 되어 연경(燕京)에 다녀왔으며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었다. 이후 우부승지, 좌부승지를 차례로 지냈다.

으로 양사의 탄핵을 받아 변방에 위리안치되었다. 이어 이듬해 내지로 양이(量移)되었고, 1633년(인조 11) 유배에서 풀려나 시골로 돌아갔다.

강원학 연구보고 5

조선시대 강원지역 출신 문과(文科) 급제자 분석

A Study on Successful Applicants of Mungwa from Gangwon Province in Joseon Dynasty

2018년 12월 일 인쇄

2018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 육동한

발행처 :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전화 : (033) 250-2980, 2983

URL : <http://www.gangwonstudies.re.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사는 금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